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5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1월 11일(음력 9월 25일) 수요일(주간)

사람 타클라마칸 단독종주 탐험가 남영호

혜초 스님 도전정신 잇다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이유는 그 분의 프론티어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실크로드 한복판의 '죽음의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전 구간을 한국인 탐험가 남영호(32)씨가 세계 최초로 도보단독 종주에 성공했다.



'죽음의 사막' 타클라마칸 종주에 성공한 남영호씨.

10월 3~19일 450㎞ 구간
'왕오천축국전' 경로 따라

남씨는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의 저자 혜초(慧超 · 704~787) 스님의 여행경로를 따라 지난 10월 3일부터 19일 동안 450km 죽음의 구간을 건넜다.

남씨는 2일 인터뷰에서 "불교신도가 아니지만 1300년 전 그분의 미지에 대한 도전과 탐구 정신은 종교를 넘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남씨는 "우리는 '마르코폴로' 같은 외국 탐험가를 위대하다고 말하며 수백년 앞서 동남아 · 인도를 거쳐 아랍까지 진출한 혜초 스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왕오천축국전>이 세계 3대 여행기중 하나라는 사실, 그것이 프랑스에 있고 문화재 반환목록에서조차 빠져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왕오천축국전>을 분석해 혜초 스님의 루트를 추정해 그대로 따랐다. 혜초 스님의 여정은 2006년 유라시아 대륙 1만8000㎞를 자전거로 횡단한 베테랑 여행자인 남씨에게도 순탄치 않았다.

특히 남측 출발지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호탄에 도착한 후 위성위치추적장치 GPS 작동시험을 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현지 당국에 의해 GPS를 압수당한 것은 큰 장애로 다가왔다. 목적 좌표와 각종 정보를 잃고 남씨는 혜초 스님의 여정 그대로 직관과 나침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씨는 첫날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내륙으로 들어가 길을 잃고 헤매는 등 숱한 우여곡절에도 하루 평균 24km의 강행군을 계속했다.

남씨는 "타클라마칸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소름 돋을 정도의 광활함, 막막함이 느껴지는 사구(砂丘)의 파도를 보며 오히려 건너보겠다는 마음이 더욱 생겼다"며 "처음 사막을 접하고 종주를 위해 실크로드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혜초 스님에 대해 더욱 깊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남씨는 탐험의 여독이 가시기도 전에 혜초 스님과 <왕오천축국전>을 알리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남씨는 2010년 경주를 출발해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이란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오는 혜초 스님의 여정을 4개월간 탐험할 계획이다.

한편, 남영호씨의 타클라마칸 사막 종주기는 11월 13일, 20일 밤 8시 50분 교육방송EBS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희망을 꿈꾸는 도반 될 것"

조계종 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 이 대통령 등 각계 축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불교중흥'을 표방하는 조계종 제33대 총무원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은 11월 5일 오전 11시 총본산 조계사에서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를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 포교 등을 통해 불교저변을 확대하고 대사회적 역량을 강화, 보다 폭넓은 불교계 활동을 펼 것을 천명했다. 자승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는 제33대 총무원은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희망을 꿈꾸는 도반이 될 것"이라며 "항상 깨어있는 수행자의 본분과 초심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책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5일 조계사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박재완 기자

자승 스님은 또 "관주위보(貫珠爲寶: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수승한 종책이라도 종도 여러분의 협조가 없다면 실현되기 어렵고 종단이 아무리 성장해도 수행 승가로서의 위의를 다하지 못한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며 불교중흥을 위한 사부대중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남다른 지혜와 기략으로 다수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오늘의 경사스러움을 만들었으니 불일(佛日)이 넘치고 도업(道業)이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며 "대중을 섭수하고 종문(宗門)의 정안(正眼)으로 종통을 바로 세워 불조 혜명을 빛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준비위원장 장적 스님의 자승 스님 수행이력 소개와 각계 화환 증정이 진행됐다. 특히 화환 증정은 '젊고 열린 불교, 화합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불교'란 의미를 지녀 더욱 뜻깊었다. 전국 신도를 대표해 김의정 중앙신도회장과 조계사 이연숙 신도회장의 화환증정에 이어 해외 불교국가를 대표한 미얀마 묘린 대사와 청년불자를 대표한 대불련 이경환 회장의 화환 증정은 큰 박수를 받았다.

자승 스님의 취임에 사회 각계에서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자승 스님의 취임에서 보여진 '대승적 추대'는 열린 종단, 그리고 화합의 종단으로 이끄는 적임자라는 종단의 뜻"이라며 "원융화합의 정신을 널리 펴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화합과 국민의식 함양에도 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취임법회는 전국비구니회 성관 스님의 발원문 낭독과 함께 불자들의 합송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법회에는 밀운 천운 동춘 원명 혜정 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소임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등 각 종단 대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정관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했다. 관련기사 9면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조계종 포교대상에 도문 스님

14일 시상식… 공로상에 지현 스님 등

조계종 포교대상에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1월 2일 포교대상심사위원회를 개최, 제21회 포교대상에 도문 스님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포교대상(종정상)을 수상한 도문 스님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불교초전법륜성지 성역화 불사, 군법사 양성 및 군포교 활동, 20여 종의 경전 번역 및 불서 법보시 운동,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 설립 등 49년간 활발한 계층포교를 펼치며 수계한 불자만도 105만 명에 이른다.



도문 스님.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불교호스피스 회장 지현 스님(어린이포교, 송광사 율주), 부산 설동근 교육감(청소년포교), 한갑진 한진흥업 회장(영상포교),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예술포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14일 포교결집대회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社告

백양사 야단법석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오전 8~11시	오후 2~5시	오후 7~9시
11/21		고우 스님	시몽 스님
11/22	각묵 스님	용타 스님	용타 스님
11/23	도법 스님	월암 스님	월암 스님
11/24	시몽 스님	향봉 스님	향봉 스님
11/25	도법 스님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집 결 : 2009년 11월 21일 낮 12시
입 재 : 2009년 11월 21일 오후 2시
회 향 : 11월 25일 오전 11시
대 상 자 : 사부대중 누구나, 선착순 200명
동 참 비 : 출가자-10만원, 재가자 20만원
접수계좌 : 농협 645117-51-017109(예금주:백양사)
접 수 처 : 백양사 종무소 (061)392-7502

주최 : 고불총림 백양사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동절기이므로 개인침구 반드시 지참하세요

법구경
지혜로운 이는 조그만 행위도
소홀히 하지 않아
크나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

현대불교@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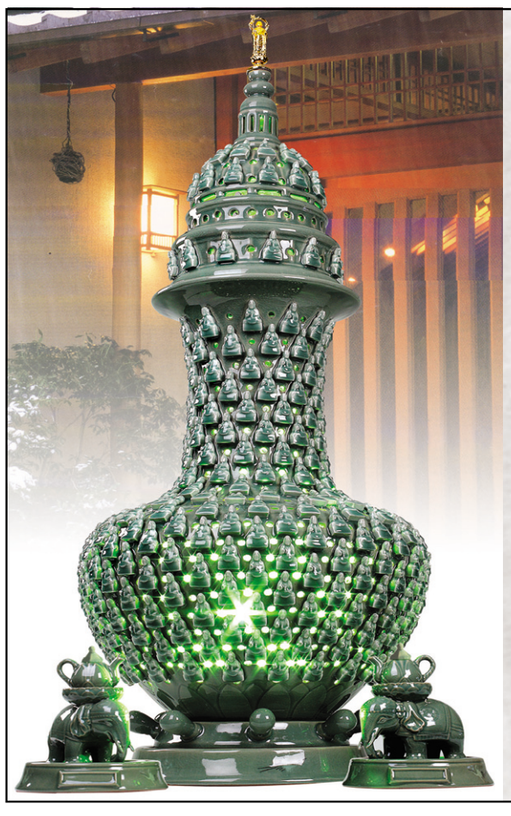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빚,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죽비와 목탁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기대'

부산 동명대학교(이사장 강정남)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문화학과를 신설해, 오는 11월 23일부터 2010학년도 수시 2차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부산경남지역 4년제 정규대학에서 불교관련 학과가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명대는 조계종립 동국대를 비롯한 위덕대, 금강대에 이어 국내에서는 네번째로 불교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됐다. 하지만 불교관련학과의 경우 종립학교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어서, 사립대학인 동명대의 이번 불교문화학과의 신설이 반가우면서도 한편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흔히, 불교학과라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 오해에 부딪힌다. '4년 내내 불교경전만 배울 것이다', '강의실에서만 수업하니 재미없다', '졸업하면 도대체 어디에 취업을 할까' 등 어쩌면 당연한 우려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동명대의 경우는 이런 오해를 처음부터 불식시키고 있다.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1·2학년은 사찰에서 실습 및 봉사활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3·4학년은 해당 사찰에서 행사 및 특별한 법회 등을 기획하고 실제 운영해보는 심화학습의 기회를 만들었다. 또 방학 때는 도보 사찰순례, 선지식 친견 여행, 해외 구법순례 등을 통해 치열한 구도수행에 나선 선인들의 자취를 따라 나서기로 해, 유익함과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졸업 후 진로를 걱정해 입학을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불교문화학과 졸업생은 재학 중 복수전공을 통해 2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경영학과와 불교문화학과, 혹은 컴퓨터공학과와 불교문화학과 등과 같이 학생이 원하는 별도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소요 경비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학교 측은 총 소요 경비의 50%는 학과단위 기금조성을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생 개인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책임을 져 부담케 한다는 방침이다.

흔히 부산을 일컬어 '대한민국 불교 수도'라고 부를 만큼 시민들의 불심 또한 깊다고 한다. 불교 교세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2010년 3월이면 불교문화학과의 첫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만큼, 청년불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명대 불교문화학과가 초심을 잊지 않고 여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3면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교육원장 현응, 호법부장 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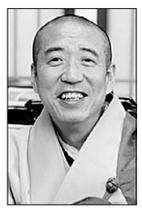
조계종 33대 집행부 인선 본격화… 182회 종회 동의

조계종 신임 교육원장에 중앙종회의원 현응 스님, 호법부장에 덕문 스님이 선출되는 등 제33대 집행부 인선이 본격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82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제33대 집행부 출범과 관련된 인사안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재적 종회의원 80명 가운데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회에서 보선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단은 최근 여여하게 임기를 성료하신 지관 스님과 그 바탕으로 중흥과 도약을 다짐하는 신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아름다운 종무이양의 순간을 함께 했다"며 "안정적인 집행부 이양이 이뤄진 만큼 중앙종회가 튼튼한 다리로 연결고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교육원장 선출 △법규위원회 위원 선출 △법계위원 위촉 동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호법부장 임명 동의 등 인사건과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 △2010년 예산안 승인 △불교방송 선임 공개 촉구 결의 △종법 제·개정 △종무보고 및 분과위, 특위 보고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



호법부장 덕문 스님.

이날 교육원장에는 현응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제2안건으로 상정된 법규위원에는 지산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3안건으로 상정된 법규위원 위촉에 관한 안건과 4안건으로 상정된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대종사 품계 품수의 특별전형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계위원에는 보성 고산 인환 혜정 월주 종진 설정 지성 무관 스님 등 전임 법계위원이 전원 재위촉됐다. 또 제5안건으로 상정된 호법부장 선출에 관한 건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추천한 덕문 스님이 만장일치 선출됐다.

교육원장에 선출된 현응 스님은 1971년 종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2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4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강원을 졸업한 뒤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기획조정실장, 총무원 기획실장, 12·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학감, 대승불교승가회와 선우도량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불교신문사 사장, 해인사 주지 등을 지냈다.

호법부장에 선출된 덕문 스님은 자운 스님을 계사로 1985년 사미계와 1990년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총무원 호법과장과 상임감찰, 화엄사 기획국장, 원로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은사는 종열 스님이며, 본사는 구례 화엄사다.

한편, 제182회 중앙종회는 제6안건으로 상정된 2009년도 종정 감사의 건으로 인해 휴회됐으며 재개회는 11월 9일 오전 10시로 예고됐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조계종 210억·진각종 147억 예산

조계종 6.5% 증액… 진각종 9억여원 증액

2010년도 조계종 예산은 약 210억원, 진각종 예산은 147억 여원이 각각 편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0월 29일 종무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으로 210억 3743만 원을 편성하고 제182회 정기중앙종회에 상정했다.

2010년 예산은 2009년에 비해 6.5% 증액된 수준으로 총무원은 7.8%, 교육원은 1.6% 증액됐으며 포교원은 포교전진대회 진행비 등을 감안해 13.5% 인상됐다. 총무원 내에서는 총무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삭감돼 차기 집행부 추경예산으로 편성토록 했다. 중앙종회는 3.2%, 호계원은 3.2%, 종정기관은 0.7%로 각각 증액됐다.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새 집행부 출범에 따라 예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종책 수행을 가능토록 했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편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예산안은 11월 9일 재개회 되는 제18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진각종 통리원(통리원장 혜정 정사)은 2010년도 예산으로 147억 3100만원을 확정했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성초 정사)는 10월 22일 제365회 정기종의회·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201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인 137억 9900만원 보다 9억 3200만원이 증액된 수치다.

편성 분야는 통리원 135억 2000만원, 교육원 6억 7000만원, 제시 5억 4100만원 등으로 대부분 긴축 편성됐다.

종의회 의장 성초 정사는 개회 인사말을 통해 "진각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종단발전과 화합을 위한 서원과 정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영산재보존회 캐나다서 시연

태고종 영산재보존회(회장 일운, 신촌 봉원사 주지)는 캐나다 현충일인 11월 11일 'Remembrance Day'를 맞아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이번 캐나다 현충일 영산대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500여 캐나다 유엔군의 전사자를 기리고 양국 간 상호우호 관계 증진과 영산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는 지난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캐나다 영산대재는 한국전통문화 홍보차원에서 문광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캐나다한국무용연구회 등에서 후원한다.

노덕현 기자

"소통 화합의 자비행" 천명

자승 스님 용산참사 현장 찾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첫 대외행보로 이웃종교 복지시설과 용산참사 현장을 찾는 등 '소통'과 '화합'의 자비행을 필 것을 강력히 천명했다.



5일 용산참사 현장 희생자 빈소에서 분향하는 자승 스님.

자승 스님은 11월 5일 오후 3시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단식기도중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종훈 신부와 문정현 신부 등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용산참사 해결 기원 발원문'을 통해 "용산참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다"며 "하루 속히 이 대립과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공동체 모두가 화합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용산참사 방문에 앞서 자승 스님은 노숙자 의료시설인 요셉의원(원장 이문주 신부)과 노숙자 쉼터 보현의집(원장 지거)도 방문해 노숙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용산참사 현장 및 복지시설 방문에는 기획실장 장적 스님과 사회부장 세영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 등이 함께 했다.

노덕현 기자

동안거 결계 포살

조계종 12월 1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1월 2일 2009년 동안거 대중결계 및 포살 시행을 공고했다. 결계 신고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며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 구역 교구본사에 접수 가능하다.(공찰주지는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접수 서식은 조계종 소속 사찰 및 교구본사 발송 안내 책자,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게재된다. 결계 신고를 한 스님은 각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예외 사항 공고문 전제)

결계 신고 및 포살에 참여하지 않는 스님은 △비구·비구니계 수지 불가 △승가고시 응시자격 박탈 △법계 품수 및 승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덕현 기자

사미 65명·사미니 32명 탄생

태고종 합동득도수계산림 수계식

태고종은 10월 30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34기 합동득도수계산림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사미 65명, 사미니 32명 등 총 97명의 예비스님이 탄생했다.



태고종 제34기 합동득도수계산림 후 가진 기념촬영.

전계대화상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오늘 수계는 광겁다생(曠劫多生)의 선인(善因)이요, 일조일석의 우연이 아닌 것이니 다 같이 경축할 일대사 인연"이라며 수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예비승을 포함해 태고종 전체 교직자 수는 총 8,350명으로, 수계식을 마친 사미, 사미니 스님들은 종단 교육기관인 법륜승가대학, 동방불교대학, 태고총림 선암사 전통강원, 보덕사 비구니전문강원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종단의 정식 승려로서 수행과 포교에 정진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노덕현 기자

봉 재단법인 설립 축하 및 세계불교도총연맹 한·스 조인식 축

세계평화·남북통일·국태민안·G20 성공개최 기원 대법회

2009년 음력 9월 27일 (양력 11월 13일)



모시는 말씀

삼보에 귀의하옵고,
다사다망 한 가운데에도 하시는 불사 원만성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여래종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재단법인 설립과 종정 큰스님의 세계불교 통합 염원이 담긴 스리랑카 국제불교도 총연맹 법왕청 조성 조인식을 스리랑카 대사 및 내외귀빈을 모시고 봉축 대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봉축 대법회에 참석하여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9년 음 9월 27일 (양 11월 13일) 오전 11시
• 장 소 : 옥천명가(☎043-733-7747)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94
• 주 최 : 한국불교여래종 • 후 원 : 여래종 종도회

세계평화·남북통일·국태민안·G20 성공개최
■ 창종 45주년 대법회 ■
■ 재단법인 설립 축하 대법회 ■
■ 국제불교도총연맹 법왕청 조성 한국 및 스리랑카 대표 조인식 ■

초청인 : 증명 종정 인왕 큰스님
총무원장 명안 큰스님
종문도회장 인관 큰스님
스리랑카대사

※ 참석 여부를 전화 주시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031-734-3205)
※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 화환을 대신해서 축의금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접수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양미 1구좌 5만원 2구좌 10만원 접수합니다.

여래종 창종 45주년 종단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 대약사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 (043)731-2261 Fax (043)731-6453
☎ (031)734-3205 Fax (031)735-3374

입학생 전원에 장학금 등 혜택

부산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신설

종립대학 외 4년제 종합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부산 동명대에 불교관련 학과가 신설된다.

부산 동명대(총장 이무근)는 '불교문화학과'를 신설해 11월 23~26일 수시2차 모집기간 중에 첫 신입생 40명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불교문화학과는 불교학전공, 불교문화전공, 불교사회전공 등 3개 전공으로 구성됐다. 수시 선발기준은 고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종단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학생부 80%, 면접 20%' 방식으로 40명을 선발한다.

동명대는 불교문화학과 신입생들에게는 불교계, 불자기업 등과 협력해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복수전공제를 통한 2개 학사학위 획득과 겨울방학 해외 구법순례 활동 실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동명대 관계자는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조직화 현대화 국제화 등 '불교계 5대 혁신운동'의 주체인 청년불자 운동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불교문화학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명대는 불교문화학과 신설을 시작으로 불교학부 및 석사 · 박사과정, 불교문화연구소 및 불교문화전시관 등을 설치 · 운영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여수세계박람회 발언 종교차별"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 자문위 판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종교차별신고센터 자문위원회는 여수세계박람회 담당자 발언('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하나님의 은혜' 등)이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는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에 총 6건에 대한 종교편향을 신고했고, 이에 종교차별신고센터는 10월 28일 자문회의 결과를 우편을 통해 회신했다.

종교차별신고센터는 회신을 통해 여섯 사안 중 여수세계박람회 담당자의 발언이 공직자 종교차별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종교차별신고센터는 이 밖에도 △율산고등학교 특정종교 복음회에 학교시설대관 △치현초등학교에 특정종교예배시 학교시설 대관 △부여보건소 출장 진료시 특정종교시설에서 진행 △제천시 성시화축제 후원 명칭 사용 등은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기관에 주의를 요망했다.

종교차별신고센터는 "타종교인과 무종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선주 기자**

社告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

공동주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TV
현대불교

1강	10/27	신심과 원력의 길	혜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2강	11/3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정락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
3강	11/10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4강	11/17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5강	11/24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6강	12/1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청화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백상원 건립기금 쾌척

지관 스님, 동대 이사장 정련 스님 만나 15억원 전달

동국대 학인스님들의 수행공간인 백상원이 새로 지어진다.

조계종 총무원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기말인 10월 27일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을 만나 수행관(백상원)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며 15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정련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많은 분들이 수행관 건립불사에 힘을 보탠 원력에 감사하다"며 "그 원력이 모여 30여 년간 동국대의 숙원이던 학인스님들의 수행공간이 마련되게 됐다. 부족함 없는 쾌적한 수행관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화계사 경내 초입에 자리한 백상원은 그동안 부실공사 등에 따른 불편이 컸다. 부실한 시설에서 어렵게 학업중인 스님들에 대한 소식이 교계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앙종회에 '종비생수행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 · 활동해 왔다.



조계종 前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에서 세번째)은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 상임이사 성관 스님을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만나 수행관 건립기금 15억원을 전달했다.

동국대는 조계종 총무원이 기탁한 15억원에 학교 출연금 10억원, 2006년 교육원이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5억원 등을 보태 서울 화계사 경내 달마선원 자리에 백상원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 착공될 백상원은 면적 1550㎡(470여 평) 규모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세워지게 된다.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은 "수행관 불사는 종단이 인재양성과 교육불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불사를 계기로 동국대 등 종립교육 기관에 대한 종단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평화블로거 종교인권 지키길"

종교평화위 · 불교아카데미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과정' 첫 수료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 · 손안식)와 불교아카데미(원장 박희택)가 종교평화 실현과 종교차별 방지를 위한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과정' 수료식을 11월 4일 만해NGO센터에서 가졌다. 수료증은 30명에게 돌아갔다.


11월 4일 만해NGO센터에서 열린 '제1기 종교평화블로거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은 불자들과 손안식 종교평화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손안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아셈종교간대화'에서도 종교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첫 발걸음이 부담스럽지만 매스미디어의 파급력에 힘입어 종교평화블로거가 활발한 활동으로 종교인권, 종교자유 확산에 힘써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평화블로거 손상훈씨는 종교차별 현장을 담은 사진을 소개하며 종교평화 블로거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 손씨는 사찰의 세금문제를 짚어가며 "이런 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방주사가 돼야한다"는 지적도 했다.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교육을 수강한 30명의 불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제작한 블로그에 일기, 칼럼, 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 활동을 전개한다.

교육을 주관한 종교평화위원회와 불교아카데미 측은 "종교차별에 대한 기존 언론의 보도태도는 조심스러워 블로그를 통해 종교차별 근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와 세상이 만나는 불교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결국 불교계의 '디지털 인맥'을 형성할 것이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종교평화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1월 15일 까지 '제1기 종교평화 블로그'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글, 사진, 동영상, 그림, 카툰 부문이다. 선발된 기자들은 소정의 활동비와 기사 채택시 원고료가 지급되고, 90%이상의 출석률을 보이는 이에게 활동증명서 발급 등의 혜택을 준다. 이메일 bsr@buddha21.org로 접수가능하다. (02)2278-1141 **박선주 기자**

"예일대는 기본 윤리 지켜라"

東大, 예일대 언론 대응 및 소송지연책 비판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

동국대가 예일대에 5000만 달러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예일대 측이 美 현지 언론에 동국대 前 이사장 영배 스님의 유죄판결까지 언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1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일대 측이 소송과 관련 없는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예일대가 언론 대응시 기본적인 윤리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10월 30일자 '뉴욕타임즈'에서 예일대 대변인 톰 콘로이(Tom Conroy)는 "예일대에 과실(negligence)이 나 중과실(recklessness)의 책임이 없다"며 "과거 동국대 이사장이 신씨의 애인(변영균 前 대통령정책실장)에게서 불법 지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배심원들이 꼭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예일대 측은 26일자 '주간조선'에 게재된 '10월 13일 예일대 언론성명서'에서는 "동국대는 불필요한 소송을 걸었으며 예일대가 모든 소송사항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밝혔다.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은 "특별교부세 지원은 (신정아씨 학위검증과 관련한) 본 소송과 관계가 없다. 특별교부세 사건을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는 (동국대에 대한) 추가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총장은 예일대에 △언론 발언시 기본 윤리 준수 △소송과 무관한 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동국대는 증거조사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20일 미국 코네티컷 현지법원에 소장 변경신청을 한 내용도 공개했다.

수정 소장은 2007년 예일대가 학내에 보관된 담당자 문서 파일을 확인도 않은 채, "신정아 학위 확인 요청 문서를 받은 적이 없고 예일대가 발송한 학위 확인 팩스도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한 내용 등을 담았다.

한진수 부총장은 "소송 개시 이후 예일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송의 지연을 유도해 왔다"면서 "12월 초 예정된 증인심문과정(Deposition)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배우 한지민씨, 최빈국 아이돕기

대학생정토회 '작은짜이집' 거리모금


배우 한지민씨.

대학생정토회 국제활동팀 '작은짜이집(이사장 법륜)'은 11월 7일 서울 인사동거리에서 최빈국 아이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쳤다.

이번 모금활동은 배우 한지민씨와 '작은짜이집' 활동을 하는 전국 대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

한지민씨는 이날 필리핀 민다나오 오지마을인 '알라원'에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쓴 도네이션북 <우리 벌써 친구가 됐어요> 기부 싸인회를 열었다. 또 한 씨가 직접 인도 전통차 '짜이'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모금활동으로 벌인 수익금은 전액 민다나오JTS를 통해 필리핀 아이들에게 학교와 학용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착한 배우 한지민씨와 '작은짜이집' 활동가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한씨는 바쁜 연기활동 중에도 '문맹퇴치기구JTS 거리모금'에 항상 참여했고, 이번 여름에는 민다나오 알라원 마을에서 일일교사로 활동했다. **박선주 기자**



공군 군종병 선발

수계 5년 이상 6명

공군은 군법당에서 근무하며 군종법사의 지도하에 사무행정 및 군종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불교계 군종병 6명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수계 5년 이상으로 수계 증명서와 군종특별교구 또는 재적 사찰 주지 스님의 추천서 등 소정의 양식을 첨부해 병무청에 13일까지 서류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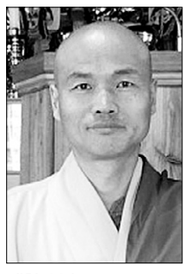
서류 전형 후 12월 2일 계룡대 종교센터에서 불교상식, 가치관 등에 대한 면접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합격 공지는 12월 14일로 입대는 1월 18일이다. (02)749-8646

노덕현 기자

천수경으로 '소리선' 공부

열린선원 22일부터 '노래로 배우는 천수경 법회' 봉행

불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경전 중 하나인 <천수경>을 한글로 뜻을 쉽게 풀어 음악으로 공부하는 법회가 열린다. <천수경>은 불자들이 항시 독송하는 경전이지만 불자들 대부분은 뜻은 알지 못하고 소리만 따라 외우는 경우가 많다. 천수경 첫 구절인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만화영화에서 마법사의 주문으로 잘못 알려져 <천수경> 독송을 기복적 미신, 저주라고 흔히들 오해하고 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세속에 찌들어 더러워진 심신, 입을 씻어낸다는 의미다.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입으로 지은 갖가지 죄업을 깨끗이 씻어내고 비로소 부처님말씀을 독송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천수경>의 수승한 본뜻이 세월이 지나면서 왜곡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선원(원장 법현,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이 '노래로 배우는 한글 천수경 법회'를 봉행하고 재가자들의 생활 속 수행을 지도한다.


태현 스님.

11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법회에는 수필가, 명상음악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현 스님(수진암 주지)이 초청됐다. 태현 스님은 법회에서 최근 완성된 '한글 천수경 명상음악'을 교재로 경구의 뜻을 정확히 설명해 <천수경>의 뜻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내용 외에도 각종 진언을 통해 소리선(禪)과 염불법(수인 염불) 등의 수행법도 함께 소개한다. 또 단전의 힘으로 진언 외우기, 손동작을 병행한 염불하기(수인염불법), 노래와 관음정근 화음 맞추기 등의 다채로운 수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현 스님은 "참가자들은 대중들과 함께 <천수경>을 노래로 부르고, 명상음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며 자연스럽게 '나'를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며 "정근, 염불 등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하모니 등은 집중력 향상, 마음의 안정, 치매예방, 스트레스 해소, 업(業)의 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한글 천수경을 음악과 함께 반복해서 부르면 리듬을 타 쉽게 외워져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천수경> 독경 수행을 하게 된다. 그동안 뜻도 모르고 암송할 때와 달리 쉽게 의미를 알고 난 후에는 <천수경>의 무궁무진한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거리 포교'로 잘 알려진 열린선원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 내에 소재하면서 생활 속의 수행불교, 수행 속의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수행전문도량이다. (02)386-4755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궁중접빈다례의식 29년만에 시연

명원문화재단 제14회 명원차문화대상시상식… 조유행 군수 등 수상

조선 후기 궁중접빈다례의식이 225년 만에 최초로 시연돼 세계인과 차인(茶人)들의 관심을 모았다.

(재)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1월 3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1000여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제14회 명원차문화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시상식, 2부 전통차 문화 다례, 3부 다식(茶食), 다서(茶書), 다기(茶器) 등의 전시회와 축하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부에서는 정조 8년(1784), 고종 19년(1882) 당시 중국 칙사를 위한 궁중접빈다례 의식이 최초로 재연돼 화제가 됐다.



명원문화재단이 3일 하얏트호텔에서 고종 19년 중국 칙사를 접대하는 궁중접빈다례의식을 재연하고 있다.

김의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에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는 다례를 사치로 보거나 의례중심의 문화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러한 인식을 안타깝게 여기고 명원문화재단 설립자인 김미희 선생은 한국 최초로 우리 전통 문화와 예절인 다례를 복원, 정립, 발표해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유산으로 복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축사에서 "차는 한잔의 마시는 음료를 넘어 시대정신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시공을 초월한 소통의 도구"라며 "국가 브랜드 가치, 국가산업,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다인과 명인들의 공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제14회 명원차문화대상에는 국내외 차인들 중 차 문화 · 차 산업 · 차 교육 발전에 기여한 조유행 하동군수(공로상), 김애숙 명원하동군지부장(교육상), 황종례 국민대 명예교수(학술상)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수상자에게는 수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조유행 하동군수는 수상소감에서 "초의 선사의 <동다송(東茶頌)>에 '동다(東茶)'는 하동차의 뛰어난 빛, 향, 맛을 극찬하는 것이다. 차 산업과 차 문화 발전에 하동이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상을 수상한 김애숙 지부장은 "명원문화상을 시상한 것은 최고의 영예다. 더 많은 후학들에게 차 문화를 전달하라는 경책으로 알고 차 생활인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다례의식 시연은 조선시대 궁중의식, 궁중의상, 궁중예절, 궁중다기, 궁중음악 등과 함께 4부에 걸쳐 재연됐다. 시연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인 김의정 이사장이 <승정원일기>, <의주등록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225년 전 궁중문화를 소개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다례의식은 김의정 이사장의 어머니인 명원 김미희 선생이 1980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최초로 발표한 궁중다례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 이후 처음이라 화제가 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재)명원문화재단, (사)한국다도총연합회, (사)홍차협회, 명원궁중다례원에서 공동주최하고 조계종,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대한불교다도협의회가 후원했다.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벽안 수행자 초청특강**=상도선원은 11월 22일 오전 10시 하버드의대 임상심리학 교수이자 임상심리학자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 11월 29일 오전 10시 숭산 스님 사상을 몸으로 펴가는 헝가리 출신의 청안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02)815-3391

●**'숫타니파타' 집중수행**=충북 괴산군 다보사 다보수련원은 11월 13~22일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법문은 <숫타니파타>(전재성 역)로 진행하며 필기도구, 세면도구, 수행하기에 편리한 옷, 어깨나 무릎에 덮을 숄 등을 준비하면 된다. (043) 833-7789 cafe.daum.net/msosolgil

●**대구 위빠사나 수행법회**=대구 위빠사나 수행법회가 12월 6일 오후 2시에 대구 구도회에서 열린다. 법회는 교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제 24장 '몸의 흔들림은 위빠사나 수행과 양립할 수 있는가'로 진행된다. 위빠사나 법문, 경행, 좌선, 면담 순서로 묘원 법사가 진행한다. (02)512-5258

●**참선집중수행**=해남 미황사는 11월 21~28일, 12월 12~19일 참선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집중수행은 참선 6시간,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수행론 · 화두간택 · 좌선의 · 육조단경 법문, 다도 등을 주지스님인 금강 스님이 직접 지도하며 20~65세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참가비는 35만원으로 선착순 20명 접수받는다. (061)533-3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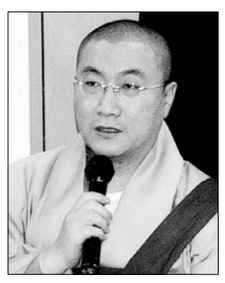
●**동안거 결제 접수**= 계룡 국제선원 무상사는 12월 1일~2010년 2월 28일 동안거 결제 접수를 받는다. 재가자는 최소 1주일 단위로 입방가능하며 스님은 전체 안거에 참가해야한다. 만18세 이상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042)841-6084

'관무량수경' 첫 대중 강좌

서진 스님 서원사서, 30일까지 신청

정토삼부경 가운데 하나인 <관무량수경>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된다.

서울 서원사 주지 서진 스님이 12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수유사거리에 위치한 서원사 불교문화센터에서 <관무량수경>을 강의한다. 정토학 연구에 매진 해 온 서진 스님은 2006년 <무량수경 종요>와 <아미타경소>를 해설한 <불이정토론>(2006년)과 <정토삼부경>(2007년) 번역서를 낸 이후 처음으로 대중 강좌를 개최한다.


서진 스님.

<관무량수경>은 빔비사라왕이 아자세의 쿠데타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남편과 아들의 골육상쟁을 지켜봐야 하는 위제희 왕비를 위해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다.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 인간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펼쳐 보이시는 가르침인 것이다. 정토학을 연구하는 스님이 그리 많지 않아 <관무량수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강좌도 흔하지 않다.

강좌에 참여하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이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02)983-7484

임연태 기자

'학업성취' 학부모 기도 열기 HOT

수험생 위한 템플스테이 27일부터 백담사서

수능철이 다가왔다. 전국 사찰에 수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을 둔 애타고 간절한 학부모들로 전국 사찰에는 기도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11월 7일 수능 5일을 남겨 두고 수험생, 학부모 등 자녀들의 학업성취 발원 촛불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촛불기원법회는 명진 스님의 격려와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 2000여 명이 도량을 돌며 하나 된 마음으로 수험생들의 합격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기원했다. 그밖에도 학부모의 편지 낭독, 수험생의 학업원만성취 발원문 낭독이 진행됐다. 또한, 수험생을 비롯한 학부모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찹쌀떡, 복주머니, 합장주, 오색실 등을 나누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기도했다.

영험하기로 소문난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는 '누구에게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속설을 따라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는 평소보다 부쩍 늘어 3천~4천명, 주말에는 1만 여명의 인파가 몰려오고 있다. 자녀의 사진을 좌복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해발 850m의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도 학부모들의 기도의 열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도 준비됐다. 인제 백담사(주지 삼조)는 제1회 '나의 꿈이 펼쳐질 저 하늘로 비상하라'는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27~29일, 12월 4~6, 11~13일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오랜 수험생활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의 미래 설계를 돕는다. 참가비는 10만원. (033) 462-5565

이상언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세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법륜불자교수회 창립 20주년

경북지역 교수불자단체인 법륜불자교수회가 10월 31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창립 20주년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2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불교와 사회의 만남> 봉정식도 함께 열렸다.

한편, 법륜불자교수회는 지난 20년간 교수회원을 비롯해 교수불자 가족이 함께 신행활동을 펼치며 전공과 불교를 연계한 연구사업을 펼쳐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동화사 부설 자비원 4일 개원


자비원 개원식에서 테이프 컷팅 장면.

대구 동화사 부설 노인요양시설인 자비원(원장 명삼)이 11월 4일 개원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동화사 자비원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부처님 자비광명을 널리 전파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자비원을 자비 가득한 부처님의 마음으로 어르신 보금자리인 안식처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비원은 20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지어졌다. 20여명의 전문 인력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중증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053) 985-2115 **손법천 대구지사장**

대전 불광사 108산사기도회 창립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에 이어 대전지역에도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설립됐다. '좋은인연 좋은도반 현광 스님과 함께하는 108산사성지순례기도회'는 10월 24일 대전 불광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불광사 주지 현광 스님을 비롯해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도안 스님, 박성효 대전시장, 권선택 국회의원, 김학원 대전시의회의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108산사성지순례기도회 회주 현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108산사순례는 기존의 단순한 순례가 아닌 국가와 부모, 조상, 이웃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나'를 찾는 모임"이라며 "서울권역 순례모임과 강원, 영남, 호남권 모임의 정보교류를 통해 새로운 신행모델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108산사성지순례기도회는 매월 넷째 토요일 순례기도를 떠나며, 11월 경주 불국사, 12월 오대산 월정사, 2010년 1월 김천 직지사 등을 순례할 예정이다. (042)252-3775 **조동섭 기자**

반야선원 쌀 보시

송광사 포교원 대구 반야선원(선원장 효종)은 11월 2일 대구 수성구청에 불우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입시기도로 모인 쌀 80포를 전달했다.

효종 스님은 "수능 입시 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한 쌀을 모았다. 입시 기도를 이웃돕기로 회향하게 돼 선원 사부대중이 모두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구인사, 충용사에 보시

천태종 구인사(주지 정산)는 최근 육군 충용부대 호국충용사(주지 법찬)에 법당 출입문 24개를 제작·보시했다. 정산 스님은 호국충용사 법당 출입문을 제작할 예산확득이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불교활동 환경 개선 차원에서 6400만원을 지원했다.

김선원 행정 부사단장은 "군인불자들의 신앙전력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자전거 타고 산사 누비네

불교문화사업단 첫 자전거 템플스테이 인기


평창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자전거로 숲길을 달리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건강에도 좋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주목받는 가운데 정동진, 대관령 옛길을 달리는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0월 23~24일 '자전거 타고 산사로 떠나는 가을여행'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자전거 트레킹 템플스테이는 환경친화적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해 여행과 템플스테이를 함께 즐기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도로싸이클협회의 인솔과 강원도 각 시·군의 협조를 받으며 홍천 장애인복지관(관장 희유), 한국 레노버(대표 박치만)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차 집결지인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108배, 명상, 전나무숲길 걷기 등을 체험했다. 월정사에서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상원사로 이동했다. 가파른 언덕길에서 뒤처지는 회원들은 월정사 법장 스님의 보호도 받으며 스님과 자연스러운 교류와 대화의 시간을 나눴다.

원주 상원사(주지 해월)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국보 제36호인 상원사 동종을 비롯한 문수동자상 등 문화재를 감상하고 저녁 예불 등을 체험했다.

다시 월정사로 돌아와 1박을 한 참가자들은 이튿날 새벽 본격적인 트래킹을 위해 장비와 복장 등을 점검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대관령 옛길을 따라 정동진, 망상해수욕장에서 가을 바다의 정취를 만끽했다. 최종 도착지인 동해 삼화사(주지 원명)에서는 사찰의 기본적인 맛보기 프로그램인 템플라이프와 국행수륙대재를 함께 체험하기도 했다.

종훈 스님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사찰체험을 넘어 템플스테이와 레저 프로그램과의 다양한 접목을 시도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발과 정비, 안내판 설치 등의 생태적인 여행 환경 확대를 기획해 시민들의 바람직한 여가문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나눔자선바자회

東大 불교일산병원

동국대 불교일산병원(원장 이진호)은 11월 4~5일 병원 후문 야외정원 등에서 '아름다운 나눔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불우 환자의 치료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행사에는 병원 교직원을 비롯해 일산 여래사 등 인근 사찰이 참여해 잡화 등 물품을 기증했다.

이진호 병원장은 "기부의 즐거움과 나눔문화 인식을 높이고자 자선바자회와 함께 '1인 후원나뭇잎 되어주기'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수익금 전액은 동국대 불교일산병원에서 치료받는 불우환자들을 쓰이게 된다. **조동섭 기자**

"불퇴전 정신으로 중심도량될 터"

대전 만불선원 개원 4주년 법회 봉행


만불선원 개원 4주년 기념법회에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을 배우는 신도들.

만불선원(주지 선오)은 10월 30일~11월 1일 개원 4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첫째 날에는 천수경 및 다라니 독송 등 기도와 주지스님 법문이, 둘째 날에는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과 제2회 만불작은음악회가 개최됐다. 셋째 날에는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천안 광법사 주지 선일 스님, 권선택 국회의원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기념 대법회가 봉행됐다.

선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라며 "부처님의 끊임없는 불퇴전의 정신으로 모든 난국을 해결해 나가고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모아 대전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우뚝 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만불선원은 11월 7일 '제1회 만불선원 전가족 등반대회'를 대둔산에서 개최한다. 17~19일에는 제32차 '신묘장구 대다라니 3일기도'를 봉행한다. **혜철 충청지사장**

무비 스님 "대중불교 선언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유마경 경전산림'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유마 거사의 말씀을 통해 불교의 정수를 익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10월 28~31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유마경 경전산림'을 개최했다.

<유마경>은 부처와 중생, 삶과 죽음, 옳고 그름 등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같다는 불이의 가르침을 유마힐 거사 설하고 이를 14품으로 정리한 경전이다.

법사로 나선 조계종 前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평등하다는 불이(不二) 사상을 담은 <유마경>은 <법화경>과 더불어 대승불교, 대중불교의 선언서"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유마경> 개설에 이어 '제1품 불국품'을 시작으로 <유마경>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이어갔다.

강의에 앞선 입제식에서 명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유마 거사의 불이사상을 토대로 현대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법석"이라며 "대강백인 무비 스님의 말씀 하나 하나를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박 4일간 법사인 무비 스님의 6차례 강의와 2차례 질의응답이 이어진 내내 전국비구니회관 만불전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조동섭 기자**

멸종위기 동물 11종 서식

운문산 휴식년제 학술조사 보고회서 밝혀


휴식년제 학술보고회에서 인사말 하는 운문사 교무 은광 스님.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는 10월 31일 운문산 자연휴식년제 종합학술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2011년 끝나는 청도 운문산 자연휴식년제를 앞두고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영남대 박선주 교수는 "운문산 자연생태 정밀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 동물만 11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멸종위기 1급종인 수달이 살고 있었고, 또 다른 멸종위기 2급종인 삵과 담비, 하늘다람쥐, 말똥가리, 새흘리기 등 동물 8종과 식물로는 멸종위기 2급종인 산작약, 솔나리, 노랑무늬붓꽃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남지장사 삼존불 점안법회 봉행


삼존불 봉안법회에서 인사말 하는 남지장사 주지 선공 스님.

거창 남지장사(주지 선공)는 11월 1일 삼존불 봉안·점안법회를 봉행했다.

前 조계사 주지 현근 스님 등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에는 법회 후 산사음악회도 함께 열렸다.

선공 스님은 "남지장사는 영남에서 손꼽히는 지장기도 도량"이라면서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전법도량으로서 기도와 수행, 교육과 포교, 지역봉사에 중점을 둔 수행공동체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세계평화 기원 한마당

태국 수도 왓벤사 사원에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공개 · 의륜 서주범 대종사 제19대 전국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취임

2009년 12월 1일(화요일) 오후 1시 ·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취 지 문

인류의 등불이신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은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 하시고 초대 법왕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장, 대학선원장, 조계종원로의원, 경주 불국사 주지, 국가보위입법위원 등 많은 직책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일붕삼장대학원, 일붕신문사 등 많은 불교단체을 설립하였고 우리민족의 숙원인 남북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기원 하기위해서 40여년 전부터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 마라도에서부터 최북단 통일전망대에 이르기까지 8백여개의 평화통일 기원비를 세웠으며, 세계각국 유명대학교에서 문학, 철학, 종교학박사 등 126개의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불교포교를 위하여 1천 40 종류의 저서를 냈으며 국내외적으로 6천7백여명의 제자를 두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을 누비면서 불교포교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편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2회 연속 올랐으며 제17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세계불교사에 빛나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일붕 존자님의 제자들이 모인 단체는 전국일붕문도중앙회에서 한국불교단체가 동참하는 평화 한마당을 마련하고 전국일붕문도중앙회 제19대 회장 의륜 서주범 대종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취임식과 아울러 화합 단결로 불교발전을 이룩하고 불국정토를 구현하고자 세계평화기원 한마당 대법회를 봉행코져 합니다.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전국일붕문도중앙회 제19대 회장 의륜 대종사 취임을 계기로 일붕 법왕님의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정신 사상을 이어 받아 한국불교중흥은 물론 전 세계 불교문화를 위해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 설것을 부처님전에 서원하며 이 뜻을 응집하여 우리의 결의를 만천하에 알리고자 한국불교 전체 종파를 초월하여 사부대중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회장 의륜 서주범 약력**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저서 : 알기쉬운 불교 외 40여종 / 전국 순회포교 백일
- **동참안내**
  교계 각 종단의 고승대덕 스님들과 각 불교단체 임원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요일) 오후 1시 입장 (오후 2시 – 5시)**
- **장 소 :**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 **규 모 :** 1천여명 뷔페식 만찬
- **법요식 :** 평화기원 메시지 전달 / 회장 취임 인사
- **시 상 :** 불교계에 공헌하신 분 (각 종단, 단체 추천에 의한)

* **태국 수도 왓벤사 사원에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공개 / 불자 연예인 공연**

- **문 의 :** 전국일붕문도중앙회 02)777-0901 / 각 종단 및 사암
  회장 의륜 대종사 011-352-7751 / 기획위원장 김소부 011-356-3427 / 사무총장 서병열 010-6253-4936

* **불교TV와 연합불교방송에서 함께 합니다. (특집 프로그램 제작)**

세계평화 기원 한마당 봉행위원회

대 회 장 **석월호 대종사** [(사) 한국불교정토종 종정 / 전국일붕문도중앙회 고문 / 저서 : 월호 박팔봉 설법집 등 10여종 출간]

해 외 WORLD

케이트 허드슨, 애인에 불교 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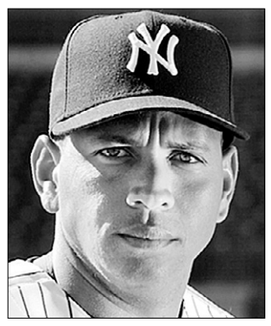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알렉스 로드리게스 "개종 고민중"

영화 '10일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으로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 케이트허드슨(31)이 남자친구인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알렉스 로드리게스(35)를 불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헐리우드 스타들의 소식들을 전하는 '셀러브리티 가십넷'은 최근 보도를 통해 "케이트 허드슨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뉴욕 양키스 스타 로드리게스를 그녀와 같은 종교인 불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 중"이라고 전했다.

허드슨의 측근은 "불교 신도로 살아온 허드슨에게 종교란 중요하다. 로드리게스는 그녀의 행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개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고 귀띔했다.


케이트 허드슨.


알렉스 로드리게스.

허드슨은 로드리게스의 최근 경기에 염주를 갖고 와 승리를 기원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 목격자는 "경기내내 허드슨은 그녀의 친구와 함께 갈색의 긴 염주를 들고 경기를 관람했다"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 전문가들은 뉴욕 양키스의 아이콘이나 다름 없는 타자인 로드리게스가 허드슨이 권유한 좌선 수행으로 집중력을 키워 경기에 임해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케이트 허드슨은 여배우 골디 혼의 딸로 '올모스트 페이머스' '신부들의 전쟁' 등의 영화로 국내에 잘 알려진 배우다.

소림사, 대만 진출 고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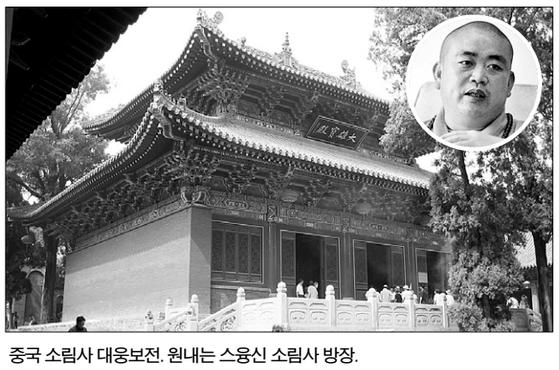
스융신 소림사, 방장 상하이서 밝혀

중국 톈진(天津)에 북(北) 소림사 중건을 계획중인 소림사(少林寺)가 대만 진출도 고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외신보도들에 따르면 스융신(釋永信) 소림사 방장은 2010년 상하이엑스포 기간에 소림무술을 공연하는 계약에 서명하기위해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많은 대만인들이 소림사가 대만에 분사나 소림학원을 설치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인 그는 "현재까지 소림사가 추진 중인 수많은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 진출은 아직 탐색중"이라고 말했다.

스융신 방장은 또 "대만과 중국간의 불교 교류가 매우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소림사 대웅보전. 원내는 스융신 소림사 방장.

소림사는 지난 2월 홍콩 분원을 세우기로 하는 등 사세(寺勢) 확장에 의욕을 보여와 불교 진흥에 힘쓴다는 호평과 함께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소림사는 쿵푸 쇼와 영화제작은 물론 사찰음식과 의약품 판매에 나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또 2010년에 병원을 개업하고 소림사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30여 종의 기능성 차와 음료 시판 사업에도 진출키로 했다.

이나은 기자

"따뜻한 마음 모아 자비김치 나눠요"

불교계 복지시설, 독거어르신 등 위한 김장김치 · 난방비 지원으로 후끈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강추위에 겨울이 성큼 다가와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월동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홀로사는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가정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그거나 난방비 등을 지원하느라 바쁘기만 하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을 담그는 자원봉사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 031-919-8677)은 11월 16~17일 김장지원서비스와 특식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관은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세대 200명을 대상으로 김치 10kg들이 200박스를 전달하고, 이용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11월 20일에는 재가복지대상자 10명에게 난방비로 현금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 02-915-9200)은 11월 18일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KT&G복지재단의 주최로 성북구청광장 앞마당에서 성북구내 8개 복지관과 연합 김장담그기행사에 참여한다. 복지관은 오전에 담근 김장 150포기를 오후에 재가대상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승가원자비복지타운(관장 묘전, 031-642-1300)은 11월 18~20일 시설 내 실습농지에서 재배한 배추 6000포기를 제천어머니회, 상승대, 영월아문수회, 원각사보현회 등의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승가원 식구들이 겨울동안 먹을 김장김치를 담글 계획이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 02-2282-1100)은 11월 10일 성동구청 앞마당에서 성동구 내 복지관, 동사무소, 구청 등 20여 기관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500포기의 김치를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재가대상자 200여 가구에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천운, 062-266-3853)은 12월 10일 김장담그기행사를 실시해 500포기를 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가정 1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 054-633-6415)은 10월 29~30일 재가장애인 20세대를 선정해 이불을 지원했으며 11월 8일에는 지게꾼봉사단체의 후원으로 독거노인, 저소득층 13세대에 4300장을 전달했다. 복지관은 11월 25~26일 직접 담근 김장김치 1500포기를 120세대에 각각 전달할 계획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051-628-6737)은 11월~12월말 기간 동안 독거노인, 결식아동 400세대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보일러기름, 연탄 등을 50~100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능인정사(주지 법경, 02-455-1080)는 동짓날인 12월 22일 불우이웃들에게 쌀 20kg 100포대와,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100세대에는 연료비를, 축서사 스님들에게 겨울옷 40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이 복지시설들이 분주하게 월동준비를 하고 있지만, 불자들의 정신적 · 물질적 후원이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 042-488-6297)은 11월 9~27일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모금행사를 실시한다. 매일 300여 명의 급식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김장김치를 제공하기위해 복지관 내 · 외부에 홍보물을 배포해 배추 1포기씩 1만원 모금행사를 하고 있다.

부산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정년, 051-264-9033)은 12월 3~5일 지역 저소득가정, 새터민, 독거어르신 등 300세대를 대상으로 2000포기의 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모영 재가복지담당자는 "복지관에서 준비한 김장계획에는 배추, 고춧가루재료로만 수백 여만원이 드는데 기업체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준다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불자들의 많은 후원을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딸 학비 벌러 한국행… 수술비 막막

생명나눔 11월의 환우 김봉선씨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1월의 환우로 김봉선(58 · 남)씨를 선정했다.

9월의 어느 토요일, 조선족인 김봉선씨는 오토바이 배달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한참 뒤 발견된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내출혈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봉선 씨는 의식도 좋아지고 외부 소리에도 반응하고 있어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잡화점 판매일을 하다 정년퇴직을 한 김씨는 부인 황병림(가명)씨와 2007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두 딸의 대학입학금 마련을 위해 고민하다 5년 체류계획을 세우고 온 것. 하지만 한국에서도 직장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결국 김씨가 시작한 일은 중화요리집 배달부.

부인 황씨가 주방보조로 일하며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탰고, 평소 몸이 허약해 쉬는 날이 잦았던 김씨는 월 50만원을 벌었다. 언어도 서툴고 낯선 한국땅에서 3년간 일해온 두 부부는 힘들고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두 딸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다. 하지만 그 재산은 모두 고스란히 병원비로 들어갔다.

김씨 부부는 병원 미납금 200만원과 앞으로 들어갈 수술비 700만원 마련이 막막하기만 하다. 중국에서 공부중인 두 딸은 문병도 올 수 없는 형편이라 가슴만 미어지고있다.


뇌내출혈로 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김봉선씨 부부.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영통한마음축제

수원영통복지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권)이 10월 23~24일 지역주민과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수원시로부터 6월에 위탁받아 운영 중인 복지관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영통한마음축제'를 열었다.

복지관은 23일에는 기념식, 지역주민노래자랑, 청소년반딧불이캠프 등의 행사와 24일 가족사생대회, 영통벼룩시장, 청소년댄스동아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비롯해 체험부스, 먹거리 장터를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031)201-8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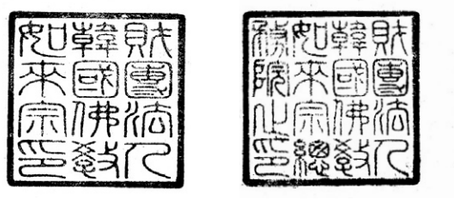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직 인 공 고

재단법인 한국불교 여래종

본 종단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으로 취득되어 직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구)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폐지)

(신) 재단법인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재단법인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석 명 안

이나은 기자

공 고

재단법인 한국불교 여래종

재단법인 취득에 의한 임명장, 등록증, 신분증 갱신 공고

본 종단이 비영리법인(종교)에서 법인재단인 법인 한국불교여래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등록 취득하여 각 사암의 임명장, 등록증, 신분증 갱신 사유가 발생하여 갱신공고하오니 종도께서는 아래의 날짜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일시 : 불기 2553년 10월 31일

▶ 갱신기간 : 불기 2553년 (양) 11월 1일부터
불기 2553년 (양) 12월 30일까지

▶ 서 류 : 사진2매, 주민등록증 사본, 구비서류 (총무원)

(양)11월 13일 창종법회에서 접수받습니다.

※불기 2554년 1월 1일부터는 구 등록증을 사용니다.

재단법인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석 명 안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한마음선원 자율성-능인선원 시스템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회의서 조기룡 연구교수 사찰경영 노하우 정리

안양 한마음선원, 서울 능인선원,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부천 석왕사 등 도심에 위치한 대형사찰은 현대식 포교의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출가자에게 수행만큼이나 입전수수(入廛垂手:저자거리에서 자비의 손을 드리움)하는 자세가 중시되면서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도심포교당이 늘고 있지만, 부침(浮沈)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한마음선원 등 도심포교 성공사례에서 사찰경영의 노하우(Know-how)를 분석 · 정리한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11월 5일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한 제4회 학술회의에서 '사찰경영의 모범적 사례와 사회적 평가'를 주제 발표했다.

조 연구교수는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의 성공요인을 신도의 개성과 자율성 중시, 신행단체의 활발한 활동, 관련 단체의 활성화와 현대적 포교방법으로 파악했다.

능인선원(원장 지광)의 성공요인은 신도교육 시스템과 가정법회의 조직화, 신도의 주체적 사찰운영 참여로 정리됐다.

석왕사(주지 영담)는 지역사회와 함께 펼쳐 온 사회복지 활동과 창건주인 고산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에게서 후임자인 영담 스님에게 원만히 계승된 리더십이 성공요인으로 꼽혔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철저한 신도교육과 봉사시스템 구현, 조직의 체계화가 사찰경영의 성공을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룡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조기룡 연구교수는 "한마음선원 등 표본사찰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도를 교육해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후 대내적으로는 사찰의 일에 동참시키고 대외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한 공통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교상업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조 연구교수는 "대형사찰의 분원 · 지원 운영은 해당 사찰 입장에서는 사세(寺勢) 확장은 되지만, 인근 중소형사찰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불교계에서는 아직까지 대형사찰의 분원 · 지원으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개신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교수는 "사찰의 외적 · 수적 · 양적 성장에 대한 포교적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사찰의 크기가 아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찰을 경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법진 스님(선학원 이사장)이 '21세기 한국불교와 사찰경영'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재정의 관리방안'을, 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연구원은 '신도교육과 신도조직 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는 현대 사회 갈등의 해법"

원각불교사상硏 제12회 천태국제학술대회

물질적 풍요 속에 이념 · 종교적 갈등을 거듭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불교적 조화가 해법이며, 불자들은 정보기술을 통해 포교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각불교사상연구소(소장 권기종)는 10월 31일 서울 관문사에서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제12회 천태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아웅땡뉜 미얀마 종교성 국장은 주제발표 '21세기의 문명과 불교'에서 "불교는 현대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해법일 뿐 아니라, 정보기술을 이용한 접근 또한 용이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했다.

아웅땡뉜 국장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며, 마음을 늘 깨끗이 하라'는 <법구경> 가르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은 도덕성과 집중, 지혜를 강조했다"면서 "21세기의 불자들은 정보기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석 금강대 교수도 '과학시대의 과학격의불교'를 통해 아웅땡뉜 국장의 주장에 동감을 표했다.

최 교수는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종교관련 정보 교류와 친교공간으로 인식돼 오프라인 종교활동의 보완적 수단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불교를 과학적으로 해석한 과학적 격의불교를 통하면 불교의 인간관인 오온설을 현대 인지심리학과 대비하는 등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술발표에 앞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법어에서 "급변하는 21세기 문명 속에서 불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불교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전해질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 행복을 전해줄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웅땡뉜 미얀마 종교성 국장.

미얀마 연방 예와디 부종정도 법어를 통해 "이 세상에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협박하고 피해주는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받지 못한 이들"이라며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홍법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제1회 원효학술상 후보 공모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한구 · 성균관대 교수)는 제1회 원효학술상 후보 공모를 실시한다.

원효학술상은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의 지원을 받아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은 불교사상 연구부문을 비롯해 서양사상과 불교사상 · 동양사상과 불교사상의 학제간 연구의 3개 부문에 △교수 △박사 후 연구자 △학부~박사과정생 등 3개 영역별로 총 3000만원이 전달된다. 수상후보자는 불교계 종립대를 제외한 대학의 철학 관련 학과 학자 및 학생에 한한다.

지원은 지원서 1부와 저술 혹은 논문 1부를 2010년 1월 4일~2월 26일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에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단, 학생 논문은 해당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해야 하고, 심사대상 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05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발표된 저술이나 논문에 한한다.

지원서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심사결과는 4월 말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 되며, 시상식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02)719-2606

조동섭 기자

명상문화연구원 11일 고불법회

명상 대중화 통한 수행과 봉사의 삶 제시

불교적 안목으로 한국 전통명상문화를 연구 · 보급하기 위한 기관이 설립된다.

명상문화연구원(이사장 세민, 소장 현종)은 "11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설립기념 고불법회를 봉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고불법회에 이어서는 '명상과 삶, 그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의 법문과 명상아카데미 원장 혜봉 법사의 강연이 마련됐다.

연구원은 '명상은 삶의 본질'을 케치프레이즈로, 명상의 대중화를 통한 수행과 봉사적 삶을 선도해 인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설립 준비됐다.

현종 스님은 "현재 인류의 삶을 살펴보면 배금주의 · 과다경쟁주의 · 과학만능주의에 쫓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으로 가치관 · 인간관의 혼란이 가중돼 정체성을 잃고 있다"며 "명상만이 인류가 당면한 제반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의 빛이요, 열쇠"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명상의 과학적 검증을 비롯한 명상법 연구 △미디어 등을 활용한 명상보급방법 연구 △명상수행용품 개발 △명상 수행 · 실천 조직을 포함한 대중수행 프로그램 보급 △명상리더 양성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연구원은 또, 첫 사업으로 '인도순례 명상기행'을 기획했다. A · B · C 등 3팀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인도순례 명상기행'은 동국대 김선근 교수 안내로 팀별로 남인도 · 용수보살 유적지 등을 돌아본다. (02)1577-0373

천축사 괘불 문화재로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1월 5일 도봉산 천축사 비로자나삼신불도와 비로자나삼신괘불도를 각각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2 · 293호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천로금강경> <원돈성불론> <선가귀감> 등 '개운사 목아미타불좌상복장일괄'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1호로 지정 · 고시했다.

조동섭 기자

지증대사적조탑비 국보 승격

문화재청 지정예고… 통일신라 말기 대표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1월 5일, 보물 제138호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를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했다.

국보로 지정 예고된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는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산문(曦陽山門)의 개창자 도헌 국사(道憲國師), 즉 지증 대사의 탑비이다. 비석의 크기나 귀부와 이수의 조각수법 등이 통일신라 말기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양식과 기법을 보여준다.

특히 비문은 신라의 대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이 지었다.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는 최치원이 지은 대숭복사비(大崇福寺碑), 성주사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郎慧和尙白月葆光塔碑, 국보 제8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雙磎寺眞鑑禪師大空塔碑, 국보 제47호)와 함께 4산비문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비문에는 신라불교사를 3시기로 나누어 약술하고, 도신(道信) - 쌍봉(雙峰) - 법랑(法朗) - 신행(愼行) - 준범(遵範) - 혜은(慧隱) - 도헌(道憲)으로 이어지는 도헌 국사의 법계(法系)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한국 선종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된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또한, 비에는 탑비를 세운 연대와 비문을 쓰고 각자(刻字)한 인물이 분황사 승려 혜강(慧江)이라 쓰여져 한국 서예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조동섭 기자

'국제불교문화사상'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는 최근 영문학술지 <국제불교문화사상> 제13집을 발간했다.

책에는 △'신라 밀교의 관상수행에 관한 고찰'(정성준 동국대 BK21 연구교수) △'제1차 세계대전과 1989년 벨벳혁명 사이의 체코 불교와 불교학'(지리 홀바, 체코 프라하대) △'붓다고샤와 마하비라 사원의 발견'(김경래 동국대 박사과정생) 등 논문이 수록됐다.

또, 찰스 윌러 일본 동경대 교수의 서평 '박성배의 <몸과 몸짓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실렸다.

한편,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불교문화와 사상에 관한 이론과 불교학의 학제간 연구 등을 위해 2002년 7월 창립해 매년 2회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국제불교문화사상>(편집위원장 김용표)은 세계 150여 개 주요 대학 도서관과 학술기관등에 보내지고 있으며, 20여 세계유수 대학 도서관에서 정기구독하고 있다. 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며, A&HCI 등재를 준비 중이다. (02)2260-3835 조동섭 기자

한국종교교육학회 13일 추계학술대회

다양한 종교의 욕망관을 통해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13일 오전 10시 가톨릭대 성심교정 미카엘관 4층에서 '인간의 욕망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불교-'욕망의 관점에서 본 불교의 교육론'(박범석 동국대 교수) △유교-'유가 욕망론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고찰'(정도원 성균관대 교수) △통일교-'통일교의 욕망이해와 다스림'(이재영 선문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02)2260-3835 조동섭 기자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 정 : 2009. 11. 21(토) 오후 1시부터 ~ 11. 22(일) 오후 6시까지
-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H·P 010-2031-1233 ☎ 02) 313-5047

※ 수효사 7층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백천사에는 오후 1시까지 도착바랍니다.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343일 조상천도 법회 봉행 안내

1. 조상 꿈을 많이 꾸는 분
2. 병명없이 몸이 자주 아픈 분
3. 부부간, 형제간 가정불화가 많은 분
4. 집안에 우환 및 사고가 많은 가정
5. 사업이 부실하고 고통이 많은 분
6. 특히 건설업, 운수업을 하시는 분
7. 자손이 귀하거나 탈선하는 가정
8. 관재수나 손재수가 많은 분
9. 입시생,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
10. 관직, 승진, 선거출마 예정자 등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저희 지장선원에서는 조상천도, 호국영령, 천재지변,
각종 사고사망, 낙태태아등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하여
343일간 7번의 49재와 천도재 구병시식 법회를 봉행하여
유주무주고혼 애혼각 열위열명영가를 극락세계 상품상생케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 우환이나 근심거리가 있으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모든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천도공덕으로 가내 두루 평안하고 영원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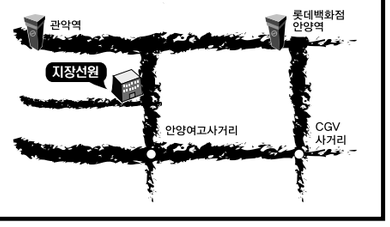
입재법문 : 현각 큰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입재 : 2009년 12월 1일(음 10.25) 사재 : 2010년 6월 14일(음 5.3)
초재 : 2010년 1월 18일(음 12. 4) 오재 : 2010년 8월 2일(음 6.22)
이재 : 2010년 3월 8일(음 1.23) 육재 : 2010년 9월 20일(음 8.13)
삼재 : 2010년 4월 26일(음 3.13) 회향 : 2010년 11월 8일(음 10.3)



◆ 기도비 : 49재마다 7만원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 봉행 오후 3시 시작)
◆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접수순서대로 조상님의 위패를 영단에 봉안하여 기도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접수문의 : 031) 444-5935~6 / 1588-1936 종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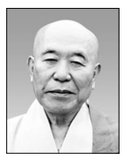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조실 지관 / 회주 세민 / 주지 현호 / 신도회장 심정구 / 수석고문 이필상

일주문



부천 천화사 백만독 관음정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1월 2일 부천 천화사에서 백만독 관음정진 결제를 봉행했다. 김해 해성사는 내년 2월 10일까지 100일 정진에 돌입한다.



제1회 노동자 친선 체육대회

함께하는세상 이사장 지성 스님은 11월 8일 대구 성서초등학교에서 '제1회 노동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053)582-0479



인드라망 귀농 마을학교 개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1월 20~22일 전북 귀정사에서 귀농자를위한 인드라망 마을학교를 개최한다.(02)576-1886



파라미타 서울 지회 장학금 수여식

서울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 회장 명진 스님(봉은사 주지)은 11월 15일 봉은사에서 동대부고 등 13개 불교계 학교 분회 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옥천군 아이낳기 운동본부 출범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11월 4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옥천군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제27차 49일 다라니정진 회향

일산 덕양선원장 법상 스님은 11월 8일 제27차 49일 천수다라니 기도정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원심회 두두림 공연 성료

조계사 원심회 김장경 회장은 1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두두림 공연을 성료했다.



반갑다연우야 자선콘서트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12월 4일 KBS공개홀에서 부설 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야' 1만명 무료진료 기념 자선콘서트를 개최한다.



제2회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이사장은 11월 25일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실시한다. (02)722-2101

<바로잡습니다>

본지 756호(11/4일자) 8면에 게재된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창종' 기사 중 초대종정 화엄 스님을 초대종정 정화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계·정·혜 지키며 부처님 말씀 수행하라"

한국테라와다불교 상가라자에 도성 스님 추대

"테라와다(상좌부) 불교가 한국에서 20년 만에 지금과 같은 조직화와 성장을 이룬 것은 수많은 수행자 여러분들과 테라와다 수행국가, 한국불교교단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테라와다불교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상징인 승정(상가라자)으로 도성 스님(뿐냐산또, 태종사 조실)이 추대됐다. 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빤냐와로)는 10월 31일 BBS불교방송 대법당에서 '한국테라와다 불교 창립법회 및 까티나 행사'를 개최하고 도성 스님을 상가라자로 추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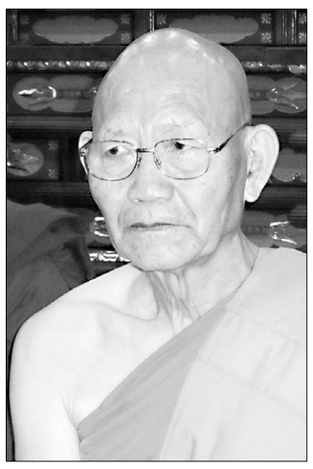
도성 스님은 추대식에서 "20년 전만 해도 남방불교인 테라와다불교 수행자는 극히 소수였으며, 개인적으로 수행을 해왔다. 짧은 시간에 교단 창립이 이뤄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캄보디아, 태국 등의 대사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테라와다 교단 창립의 밑거름은 해인사 등에서 한국전통 수행자을 닦은 인연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해인사에서 살면서 만난 운허·자운·여암 스님 등 대덕 스님들과의 인연 공덕이 크다. 특히 성철 스님을 찾아오는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빨리어와 산스크리트를 접하면서 불교원전을 통한 공부와 보급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불교의 원류인 남방불교를 배우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도성 스님은 "부산 선암사 석암 스님이 '생긴 것도 못나고, 성질도 급하니 매일 108배를 하고, 참회문을 써서 항상 참회하면서 살라'고 했던 말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것이 오늘의 나신을 이끌어 왔다"며 수행자로서의 삶을 회상했다.

스님은 "몇 십 년 전 우리나라에는 수행법과 근본불교의 계맥 등에 변화가 요구됐었다. 우리는 이제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배워야 한다. 불법 외에는 어떠한 것도 첨삭해서는 안 된다. 계·정·혜 3학을 철저히 지키며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도성 스님.

도성 스님은 1919년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에 참전 해 전쟁포로가 됐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석방된 스님은 부산 선암사 지월 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출가 후 56회의 안거를 마치고 1972년 태국 방콕 벤자마보핏 사원에서 프라담마 딧띠소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미얀마 마하시 선원, 태국 위웩아솜 위빠사나 수행처, 스리랑카 비구 아일랜드에서 위빠사나 수행 후 한국에 위빠사나를 전파했다.

스님은 1977~1979년 해인사 주지, 1990~1993년 대흥사 주지, 1991~1993 조계종 전국 본사주지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밖에도 스님은 태국 마하 쫄라롱콘대학 한국분원 학장을 지내면서 국제적인 교학증진에도 기여하는 등 전 세계에 테라와다불교를 선양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최초 거미박물관 東大에 기증

김주필 명예교수, 박물관 및 전시품 200억 원 달해

세계 최초의 거미박물관이 동국대에 기부됐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최근 김주필 명예교수(66·한국거미연구소 소장)가 본인 소유 200억 원 상당의 거미박물관(경기도 남양주 소재) 및 전시품 일체를 학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주필 명예교수(오른쪽)와 동국대 오영교 총장.

김 명예교수는 동국대에서 20여 년을 연구와 강의에 매진해 왔다. '국내 거미박사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만큼 국내 거미 연구의 일인자로 불린다. 동국대가 기부 받은 '주필 거미박물관'은 2004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거미 박물관이다. 25만 여 점의 거미와 표본을 비롯해 수백 종의 화석 종유석 도자기 병풍 불상 등 인문분야 수집품까지 소장한 종합박물관이다. 김 명예교수는 1만2000㎡ 규모 대지에 세워진 거미박물관을 비롯해 수석전시관, 동물표본관, 동물사육실, 도서관, 사택 기타 부속시설 등을 모두 동국대에 기부키로 했다.

김 명예교수는 "30여 년 전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동국대와 인연을 맺어왔다. 주필거미박물관의 영속화를 이룰 곳으로 동국대를 꼽아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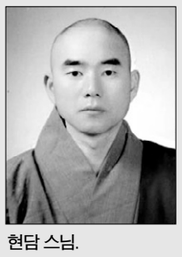
동국대 관계자는 "기부자인 김주필 명예교수의 뜻에 따라 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 및 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주필거미박물관 인근 운길산 연습림 일대 부지 1만 여 ㎡를 환경생태체험학습장 시설로 개발하는 등 운길산 연습림 개발사업과 연계해 주필거미박물관을 세계적인 생태체험 학습시설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상대 허물 보며 나를 바로잡아"

현담 스님, 10년째 불심으로 재소자 교화

"법우들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교화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다보니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현담 스님.

스님이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10여 년 이상 남몰래 교정과 교화에 힘써온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인 서남사(영덕군 영덕읍 화개리)주지 현담 스님은 포항교도소·청송교도소의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매월 재소자들에게 법회와 공양 주관하고 있다.

현담 스님은 "상대의 허물이 내 허물이고, 상대를 보면서 나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라며 "교정의 결과가 눈에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오는 150명의 재소자들 중 몇 명이라도 교화가 된다면 스님들의 공부가 잘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10월 28일 '제64회 교정의 날'에는 스님이 절에서 정성껏 재배한 호박, 고구마와 떡을 포항교도소 전 수형자에게 공양했다. 지난 6월에는 그동안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 힘쓴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처럼 현담 스님의 원력행과 자비행의 덕화에 대해 지역 불자들은 "오랫동안 많은 봉사활동으로 덕행을 쌓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스님은 "교화활동 시작 당시엔 10명의 법사들이 있었지만 하나 둘, 자리를 떠나고 이제는 스님 두 분만 남아있는 실정이다"며 "적은 인력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라도 배우려는 재소자들을 보면 힘이 난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우포라이스텍 최동헌씨 아름다운동행 쌀 보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현미 쌀을 개발하는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아름다운동행에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황토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농약을 쓰지 않은 벼를 재배해온 (주)우포라이스텍의 최동헌 대표가 11월 2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쌀 20포를 전달했다.

원래 무종교였던 최동헌 대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불교와 인연이 닿았다고 한다. 최 대표는 "평소에 자고 일어나면 부처님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기도 드린다"며 "좋은 일이 일어나건, 나쁜 일이 일어나건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있으니 이것이 인생인가 한다"고 인터뷰 내내 소탈하고 밝은 목소리로 응했다.

또 그는 "현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를 통해 영감을 받았다"며 "이렇게 부처님 덕으로 나온 현미 쌀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대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이후에도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에 전달된 쌀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청소년가정에 전달된다. 우포라이스텍 (055)532-7068

박선주 기자

이후락 별세 前 중앙정보부장 불교계 애도

제7, 11, 12대 전국신도회장을 지낸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10월 31일 별세했다.

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1963년 12월~1969년 10월)과 제6대 중앙정보부 부장(1970년 12월~1973년 12월)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10월 31일 추모사를 통해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는 동안에도 전국신도회장을 맡아 신심과 열정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전국신도회 체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며 "원적을 애도하며, 불교를 위하신 높은 공덕을 기린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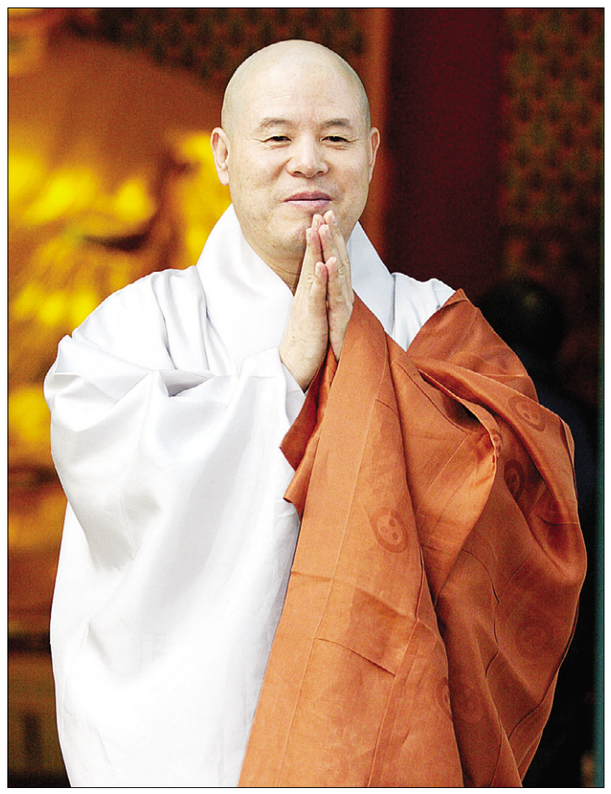
젊은 총무원장 스님 닮아 불교도 젊어지길…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자들의 환호에 일일히 답하고 있다.



11월 5일 조계사 앞마당은 한국불교 중흥을 기원하는 불자들로 가득찼다.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계 안밖에는 젊은 총무원장으로서 불교계가 더욱 활발한 대사회 행보를 펼치길 기대하고 있다.



조계사 앞 특설무대에는 정관계 내외빈과 원로의원 스님등이 배석했다.

"하루하루 사찰에 가 절하는 낙으로 삽니다. 이제는 바깥에 안 좋은 일이 알려져 실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서울 금천구 김미숙씨)

"젊은이들이 점차 절에 오는 것을 피하고 있어요. 이제는 스님들부터 발 벗고 젊은 사람들 찾아나서야 합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젊은 만큼 불교계도 젊게 발 벗고."(서울 성북구 신경우씨)

입동(立冬)을 앞둔 11월 5일, 연이틀 매서운 한파에도 조계사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다.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 한국불교의 상징이자 수난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은 조계사에 모인 5000여 사부대중은 새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불교 중흥이 이뤄지길 발원하고 또 발원했다.

이날 불법 홍포를 위해 모인 각계각층의 사부대중은 조계사에 드리워진 만장 만큼이나 다양했다.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란 법문

각계 화환 장사진… 불교중흥 발원하고 또 발원

이명박 대통령 "소통·화합 적임자, 국민화합 힘쓰길"

그대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를 따라 온 아이부터 젊은 청년들,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지역 사찰의 스님들과 지팡이를 짚고 온 노보살들의 모습에서 부처님의 자태가 보였다.

취임법회는 11시부터였지만 조계사는 아침부터 들썩였다. 종로인근부터 북인사동까지의 견지동 거리는 지방에서 상경한 불자들을 실어나른 버스로 즐비했고, 조계사 경내 주차장은 일찌감치 가득 찼다. 총무원청사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는 각계의 화환이 장사진을 이뤘다.

조계사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 좌측은 스님들, 우측은 재가자들의 자리로 골고루 배정됐다. 비좁은 공간을 활용코자 배석제가 운영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보살들 어느 하나 불평이 없었다. 불자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마주치는 사람에게 합장하며 미소를 건넸다.

도량 곳곳에 서있던 불자들은 오전 11시 타종과 함께 육법공양이 시작되고 열리자 조용한 가운데 자리를 찾아 앉았다.

사회자 정만 스님이 법회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자승 스님은 꽃을 든 동남동녀와 함께 입장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여야 대표 인사들도 이 자리에서 만큼은 정치를 잊고 웃으며 환담을 나눴다.

자승 스님이 부처님께 헌화한 뒤 참석자 모두는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종정 스님의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불렀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을 통해 "불일(佛日)이 넘치고 도업(道業)이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며 "항상 자기절복(自己折伏)과 근기(根機)에 알맞은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 대중을 보살피고 종통을 바로 세우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희망을 꿈꾸는 도반이 되겠다"며 종단 안정과 화합을 토대로 사회와 인류에게 상생과 평화의 미래를 제시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제32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와 달리 해외불교계와 청년불자를 대표한 화환증정이 눈길을 끌었다.

전국신도를 대표해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과 조계사 신도회 이연숙 신도회장의 화환증정에 이어 미얀마 묘린 대사와 대불련 이경환 회장이 화환을 증정했다.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전 진행했던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학교 건립 지원과 은정불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청소년불교교리경시대회 등 해외불교 · 청년불자 양성이란 종단 운영 방침을 상징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이날 법회에서는 세랍 55세의 젊은 총무원장의 취임을 바라보는 바깥의 기대에 찬 축사도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독 축사로 "소통과 화합의 '적임자'"라며 "국민화합에 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으며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신형 대표회장도 "불교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정신 계도에 힘을 모으자"고 축하를 보냈다.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대한 불자들의 바람은 한결 같다.

"'백척간두진일보 시방세계현전신'(百尺竿頭進一步 十方世界現全身), 우리가 딛고 있는 이곳에서 한 발짝 더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고 강조한 자승 스님의 취임사처럼 젊은 총무원장, 젊은 불교가 한 발 한 발 과감히 불법홍포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왼쪽)를 비롯한 불교계 내외 인사들이 자승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C757-102009.11.91:39PM페이지1(1,1)

"쉼없는 관음수행으로 마음자리 찾자"

삼광사, 신도회 창립 40주년 기념 대법회 열어

부산 35만 신도의 천태종 삼광사(주지 화산)는 신도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산사음악회와 기념대법회를 열고, 부산시민과 4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삼광사 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는 송창식, 설운도, 김수희, 박강성, 박현빈, 박상철, 웅산, 신형원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3만여 부산시민 및 불자들과 흥겨운 전야제를 연출했다.

이어 11월 1일 오전 11시 지관전에서 신도회 창립 4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산경제 살리기 및 G20 정상회의 유치기원'을 슬로건으로 한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도용 종정스님, 총무원장 정산 스님,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설동근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부산시 교육감), 허원제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11월 1일 부산 삼광사 신도회 창립 40주년 기념대법회에는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용 스님은 "관음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으면 부처님의 갖가지 지혜가 다 보이니, 계율을 잘 지켜 멀리 내다보고 살 줄 아는 불자가 되라"는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치사에서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삼광사는 이미 부처님의 도량으로, 앞으로 이어질 40년이 무척 기대된다"며 "부산시민과 함께 국가와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자성을 밝히는 광명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앞서 주지 화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불자들의 원력으로 이루어낸 삼광사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상월원각대조사께서 천태종을 중창하며 세운 중생구제라는 대원력에 힘을 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인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로서 오탁악세에 방황하는 무명중생들의 귀의처가 되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은 "관음기도로 이어온 40년 역사가 백 년, 천 년을 이어가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으며, 허남식 부산시장도 "삼광사가 불교의 현대화, 세계화, 대중화를 이끄는 대가람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는 축사를 했다.

또, 지난 40년 간 삼광사 발전에 기여한 허남식 부산시장에 감사패,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류연석 동구지회 부회장에 표창패, 조성래 사상지회장과 주량월자 전통요리연구회장에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고려 호국불교의 진수' 백고좌대법회

올해 2회 맞아 10월 31일 부산 벡스코서 봉행

750년 만에 부활한 고려시대 호국불교의 진수였던 백고좌법회가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백고좌법회 봉행위원회 주최, 성재문화원(원장 이강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봉행됐다.


왼쪽부터 허남식 부산시장, 이강원 성재문화원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을 시작으로 100명의 스님이 단상에 오르고, 100명의 보살이 등 · 꽃공양을 올렸다. 이어 '산사의 아침을 열다' 영상과 전통무용, 이강원 성재문화원장의 개회선언, 삼귀의례, 반야심경, 부산시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의 인사말, 조계종 원로회의장 종산 대종사의 격려사, 허남식 부산시장 축사, <인왕반야경> '호국품' 낭독,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축사, 석가모니불 정근, 김동주 (주)하나로공조 사장, 국민화합과 국운융창 기원 군무, 대구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의 국민화합과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법문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이어졌다.

이강원 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750년간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백고좌법회를 재현하는 것은 잃어버린 불교문화의 뿌리를 찾는 중요한 일인만큼 역사 · 문화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본 법회를 정례화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역동적인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우리나라 대표 불교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음악회에는 인드라 스님, 시명 스님, 심진 스님 등이 출연해 백고좌법회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구 동화사와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허남식 부산시장, 국회 불교모임 정각회 부회장 안홍준 의원 등 사부대중 1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백고좌법회는 신라 진평왕 35년인 613년 7월경, 황룡사에서 원광법사를 초청해 설법을 들은 것을 시초로 고려 원종 이후 원나라의 억불정책으로 맥이 끊어졌던 것을, 지난해 성재문화원에서 처음 재현해 이번에 제2회를 맞았다.

박지원 기자

개원 1주년 특별한 법석
길상사 삼계선원

도심포교 중심도량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주지 혜수)이 오는 11월 17일 개원 1주년을 맞아 3가지 특별한 법석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오전 10시 개원기념법회에는 특별 법문으로 범어사 전 주지 대성스님이 단상에 오른다.

이어 18~22일 5일간 매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육조단경> 초청 특강이 신설된다. 법사는 그동안 스님들만을 가르쳐 온 송광사 전 강주 현진 스님을 초청해, 재가불자로는 처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강의료 및 교재는 일체 무료로, 선착순 100명에 한한다. 뿐만 아니라 경내에서 열리는 김경현 수묵화 특별전에서는 수묵화 작품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

한편, 길상사는 11월 28일(초하루)부터 1000일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천일기도에 들어간다.

혜수 스님은 "길상사 삼계선원은 엄숙한 수행공간이면서, 어른들의 놀이터"라고 말했다. (055)333-8202

박지원 기자

아미타대불 · 인연의손 제막

홍법사 개산 6주년 기념법회 성료

11월 1일 홍법사(주지 심산)는 개산 6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부산 홍법사는 11월 1일 개산 6주년을 기념해 아미타대불 인연의손 등을 제막했다.

오전 10시 불공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대웅보전에서 무비 스님(前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역임)을 초청법사로 개산 6주년 기념법회, 오후 12시 약사여래불 점안식 및 아미타대불 인연의손 제막식, 오후 8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등을 차례로 마련했다. 경내 잔디마당에서는 이경순 영광문화예술원 관장의 연꽃사진 초대전이 열려 관람객의 마음을 온통 가을빛으로 물들였다. 한편, 경내 곳곳에서 어린이법회 천진불들의 난타, 가야금 연주 등의 공연이 펼쳐져 큰 갈채를 받았다. 더불어 홍법사 신도들이 손수 요리한 먹을거리장터로 흥겨운 축제의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이날 점안식을 가진 약사여래불은 대웅보전 앞 건물 외벽 안에 조성하고, 유리관 밖으로 폭포가 흘러내리는 독특한 구조를 띄고 있다.

특히, 아미타대불 인연의손은 2010년 낙성 예정인 대웅보전의 옥상에 조성 중인 아미타대불의 양손으로, 홍법사 신도 이외의 불자들과 언론 등에 처음으로 위용을 드러냈다.

주지 심산 스님은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미타대불의 손을 잡고 그 인연으로 더욱 신심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참나를 찾아서' 깨달음 향한 72시간 구법여행

해운정사, 제2회 3박4일 참선철야 용맹정진

"세상과 청산 중 어느 것이 좋으냐?" 진제 스님의 화두와 함께 600여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72시간 동안 치열한 구법여행을 떠났다. 아니, 깨달음을 얻기 위해 3박 4일간 잠 한 숨 자지 않은 채 가부좌를 틀었다.


엄격한 일과에 따라 용맹정진하고 있는 수행자들.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11월 2~5일까지 3박4일간 참선철야용맹정진법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법회에는 비구 · 비구니 스님 80명, 남 · 녀 재가불자 520명 등 총 600명이 참가했다. 이중 70% 정도는 지난 1회에 이어 두 번째로 동참했고,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신청접수 후 취소한 이들까지 합치면 800여 명을 웃돌았을 것이라고 한다.

해운정사에서의 용맹정진 일과는 엄격했다. 첫날 오전 11시 입제식과 점심공양을 마친 후 오후 2시 10분부터 5시까지 입선, 저녁공양 후 오후 5시 10분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예불 및 입선 등의 순으로 예불, 공양 시간, 매 시간 10여 분의 포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입선에 든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세속의 삶에 익숙한 불자들은 이것저것 볼멘소리를 해댔다. 하지만 올해에는 1회 유경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엄숙한 가운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520명의 재가불자 중 15%인 80명은 남성불자로, '거사선불교'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예년에 비해 3~4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수행분위기를 보다 강건하게 다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는 2010년 음력 11월 초하루에도 어김없이 해운정사 3박4일 참선철야용맹정진이 열릴 예정이다. 7월경 참가접수를 받고, 선착순 700명에 한할 예정이다. 3박4일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해운정사에서 매주 토요일 주말동안 상설 운영 중인 토요용맹정진선원에서 기본기를 익혀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박지원 기자

희망세상 나누기
생명나눔 걷기대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0월 31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순환산책로 일원에서 '희망 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부산시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식전공연 및 원범스님의 대회사, 내빈소개 및 축사, 개막선언 등 기념행사를 갖고, 오후 2시 준비체조 후 약 2시간 여 공식행사인 걷기대회를 이어갔다. 오후 4시 축하공연과 경품추첨 등 희행의 축하행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부산 시민과 환우 및 가족, 장기기증 · 후원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쾌적한 자연 속에서 생명 나눔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희망세상을 함께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박지원 기자

기사 넘쳐 이번 주 부루나존자는 쉽니다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사찰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북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C757-112009.11.92:1PM페이지1(1,1)

4대 종교 성지 순례길 조성

10월 31일, 전동성당서 선포식 개최



1일 완주 천호성지에서 설법하는 도영 스님.

전북지역 4대 종교의 성지를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순례길이 만들어진다.

전라북도는 한국순례문화원과 함께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개 종교의 성지가 있는 전주~완주~익산을 잇는 180㎞ 구간에 현대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아름다운 순례길'을 조성하고 10월 31일 전주 전동성당에서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이병호 주교, 김완주 지사, 원불교 허광영 교구장, 개신교 김동건 목사와 각 종단별 2000여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 경기전 앞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고 순례 일정에 들어갔다.

첫날 전주 전동성당을 출발한 순례단은 완주 송광사에서 첫날밤을 묵으며 천주교 이병호 주교와 개신교 김동건 목사의 강론을 들은데 이어 1일에는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에서 도영스님이 500여 명의 순례단과 함께 법석을 마련했다.

도영 스님은 설법을 통해 원효 스님의 해골 물에 대한 설화를 예로 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종교 성지를 순례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자기 자신의 마음안 여러 가지 현상을 챙기며 자기를 반성하고 다짐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조성된 순례길은 1845년 한국인 첫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가 머문 나바위성지(익산시 망성면)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10여 순교자가 묻힌 천호성지(완주군 비봉면), 백제 불교문화의 정수인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호남 최초로 1893년 설립된 서문교회(전주시 다가동), 신라 말기에 창건된 송광사(완주군 소양면) 등으로 이어지는 180km 450리에 걸쳐 조성되어 있으며 중간 중간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와 강암 송성용기념관, 최명희 문학관, 한옥마을, 만경강 갈대밭, 제남리 둑길, 고산천 숲속 오솔길도 만날 수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을 산사, 책에 물들다

고창 선운사서 진행된 밤샘독서 150여 가족 참가



10월 31일 선운사에서 열린 '밤샘독서' 행사에서 독서를 통한 자기성찰을 당부하는 법만 스님.

고즈넉한 시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창 선운사에서는 간간히 책장 넘기는 소리와 뒹구는 낙엽소리만이 정적을 가른다.

책읽기운동전북본부(상임대표 박규선)가 지난해 금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산사, 책에 빠지다'란 주제로 개최한 이 행사에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 시간부족으로 평소 읽지 못한 책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150여 가족이 참여한 '밤샘독서'로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원하는 만큼 책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스님들이 강당으로 사용하던 '만세루'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개회식과 함께 미니초청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하이안'의 통기타 공연과 김명자씨의 '사랑한다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 낭송도 이어져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법만 스님은 "최근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입시 등으로 자기성찰의 시간이 많지 않다"며 "산사에서 책을 읽으며 새로운 경험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과 영혼을 순화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규선 대표는 "작년 행사를 진행해보니 산사의 분위기와 독서가 잘 맞아떨어짐을 느꼈다"며 "깊어가는 가을밤, 단풍이 물든 산사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책을 읽는 문화 속에 푹 빠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카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정지현(전주 우아동 · 40)씨는 "작년에 참여한 친구로부터 이 행사를 알게 됐다"며 "아이들이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책 읽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5개 불교대학 화합의 큰 잔치

1일, 전주교육대서 7개 종목 체육대회열려



1일 전주교육대 체육관에서 열린 전북지역 불교대학 큰 잔치.

전북지역의 5개 불교대학 화합의 큰 잔치가 개최됐다.

11월 1일 전주교육대 체육관에서 화엄, 전북, 이리, 남원, 무주불교대학 등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 재학생 및 동문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배구, 터치볼, 단체줄넘기, 2인3각, 탁구, 단체 달리기, 화합의 줄다리기의 7개 종목과 열띤 응원으로 펼쳐졌다.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 · 김제 금산사 주지) 주최로 올해 9회째를 맞는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대 도약과 대화합으로 미래 불교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지역 기관장과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원행 스님은 대회사에서 "아직도 전북지역에는 전법과 포교, 대중교화의 여정은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며 "중단 없는 정진과 자기 성찰을 통해 거룩하고 수승한 불교대학인들이 전북 불교의 미래를 비춰 달라" 당부했다.

김백호 전북신도회장은 "전법과 포교가 없는 불교의 미래는 없다"며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지성불교, 복지불교를 위해 전북지역의 불교대학인들은 화합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서 전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기록한 이리불교대학이 종합우승을, 무주불교대학이 준우승, 전북불교대학이 응원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전통의식 강좌

광주전남불교협의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를 배울수 있는 강좌가 개설된다.

광주전남불교협의회(상임의장 영조 · 송광사 주지)는 스님과 일반불자를 대상으로 12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불교전통의식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불교전통의식중 하나인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50호)를 일반인에서 널리 알리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광주 금륜회관에서 주 2회 실습위주로 12월 1일 개강하여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혜령스님(사단법인 전통불교영산회 회장), 도성스님(광주 복암사 주지), 정환담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박행삼 교수(한국전통문화연구소장)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062) 224-099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후생활 · 우호다지는 기회"

고창군노인복지회관, 복운실버아카데미개강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11월 4일 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1회 복운실버아카데미(노인대학) 개강식 및 입학식을 진행했다. 입학식에 이어 무공 스님의 '7080 노년의 건강한 삶'에 대한 유쾌한 강의가 이어졌다.

노인대학은 영화 · 연극 관람, 현장학습, 취미교육, 교양강좌, 타 기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공 스님은 "학습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 보람 있는 노후생활과 어르신들 상호간 우호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규례(72세. 고창군 성송면 무송리) 어르신은 "폭 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얻게 되어 앞으로 노년이 즐거울 것 같다"며 흡족해 했다.

복운실버아카데미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노년층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여가활동 지원 · 육성을 통한 건전한 노인문화 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강했다.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 교육과정으로 주 1회 시범 운영 되며, 교육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익산 김동확 포교사

어디든 불법 전하는 1인 10역 포교사



깊은 가을 10월의 일요일, 익산 여산면 육군 부사관학교 넓은 법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설법하는 노신사를 한 분 만날 수 있었다.

올해로 미수(88세)를 맞는 김동확 포교사(사진)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 곳곳에서 식지 않는 열정으로 포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40여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절에서 천도재를 지내면서 불교에 입문하게 됐다는 김동확 포교사는 까까머리 중학생시절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김 포교사는 6 · 25 참전유공자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인지 군포교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1990년대 초부터 육군 부사관학교 호국충국사와 임실 탄약창 장영사, 김제 해안대대, 논산 항공학교, 군산 공군 38전대등 지역 내 군법당을 꾸준히 찾아 생활법문과 교리강좌를 개최해왔다.

또 군산 교도소법당도 틈나는 대로 찾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특유의 성실함을 무기로 재소자들에게 법공양물과 간식을 마련해 불법을 전해왔다.

이리불교대학에서도 13년간 학생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의는 물론 틈틈이 교리퀴즈 시간을 마련해 학인들이 퀴즈의 정답을 맞출 때마다 선물을 제공해 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도 했다.

인근의 사찰에서 직접 특강을 하기도 하고 적십자사 평생대학 교수직과 각 노인대학, 자원봉사대학, 사회단체인 희망연대에 강의를 나가면서 교양강좌를 통해 <법구경> 등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불교의 자비사상을 홍포해 왔다.

미수의 나이가 무색하게 익산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양로원 등 인근의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과 종합병원에서의 간병봉사까지 병행하고 있다.

노인대학 강의때면 인생황혼기의 참다운 삶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며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한 이해로 편안한 여생을 보람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주머니에 간편하게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천수경> 5000권을 손수 자비로 제작해 서울 옥수동 불전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단체나 군법당 혹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주고 옴 뺏지, 합장주, 기도문 등을 만들어 곳곳에 배포해왔다.

"머무는 곳마다 정토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아닌 것 없다"는 김동확 포교사는 어느 특정분야만이 아닌 이르는 곳마다 불법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1인 10역의 진정한 부루나 존자임에 틀림없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위스 기술로 만든-초절전형 12㎡ (3.5평) 실내 전체를 22℃까지...

505W 낮은 전력으로

New Convection Technology 이코노 히터 2 초절전 전기판넬히터

난방효과 더욱 강력해진 동절기 근무시간 이후 대체난방 해결사

난방비 최저 50% 절약하고, 탄소마일리지 받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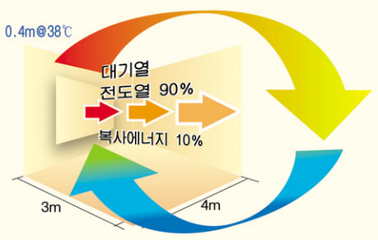
1. 사무실, 오피스텔, 병원, 연구실, 도서실, 휴게실, 기도실, 자하실
친환경적 자연 원리 이용-난방비 50% 이상 절감
2. 시간외 근무, 주말 근무시 난방이 않되는 업무용 빌딩의 대체 난방
화재위험 없고, 별도 공간차지 하지 않는 초절전형
3. 외풍, 건물외벽방, 발코니 난방해결
전체 보일러 온도 높이지 않고, 추운 사각지역 해결

- 벽에 부착, 공간을 차지 하지 않음.
- 화재의 위험이 없으며, 냄새없고, 소음없음.
- 산소소모 하지않아 24시간 가동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음
- 알르레기 유발할 먼지을 일으키지 않음.
- 건조하지 않아 눈이나 입술이 마르지 않음.
- 유지관리비 없음, 디자인이 우아함.

전자파차단(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번호 : SY07003-8001
제조물책임배상 보험 : 1억원 가입.

전기료 1시간 35원
(주택의 경우 누진세 적용되므로 별도)

공기중 세균살균 효과
공기가 대류하면서 공기중 세균이 벽과 판낼사이를 통과할 때 세균이 살균 됩니다.



- 자연의 원리에 따른 친환경적 -
밑 바닥에 있는 찬 공기가 히터쪽으로 모여서 따듯하게 되면 스스로 위로 올라가고, 자연 순환하게 하므로 실내 전체가 골고루 따뜻하여 집니다.





"강력한 더운 공기가 나오는 모습"



"강력한 더운 공기가 나오는 모습" 을 '주안홈페이지' 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aum NAVER 검색창에 주안상사 를 쳐보세요 www.juanscorp.net

ECONO-HEAT THE WARMTH OF A HOME (주) 주안상사 JUANS CORPORATION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69-1번지

대리점모집 및 문의
070-7124-9301, 9303

C757-122009.11.109:2AM페이지1(1,1)

유종하의 '쉬운 IT 즐거운 생활'

'홈페이지' 누구나 쉽고 간단히 만들수 있다

IT 이렇게 이용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어 중에는 '추선(秋扇)'이란 고어가 있습니다. 추선이란 단어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을 부채'라는 뜻으로 쓸모가 없어진 물건(物件)을 뜻합니다. 저와 같이 컴퓨터가 업인 IT종사자들은 이 말을 항상 떠올리곤 합니다. 시스템 어디엔가 문제가 생기면 다급하게 찾으시지만 시스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추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 분위기를 반증하듯, 불교계 역시 IT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수많은 혼란을 우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혼란의 주범은 각 조직의 시스템을 운영할 IT인력의 부재라는 전제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추선과 같은 IT 전문인력 확충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는 불교계 여러분들에게 작은 하선(夏扇: 여름 부채)이 되고자 이글을 기고합니다.

블러그를 이용해 초간단 홈페이지 만들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으로
첫째, 도메인등록(홈페이지 주소)
둘째, 호스팅
셋째, 웹페이지 만들기(html, jsp, php, asp기타 등등)
마지막으로 포털사이트에 등록 등등.이러한 사항을 준비해야만 홈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적고 보니 간단하지가 않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목에 어울릴 만한 초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블러그를 만들어 봅시다



Daum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블로그 개설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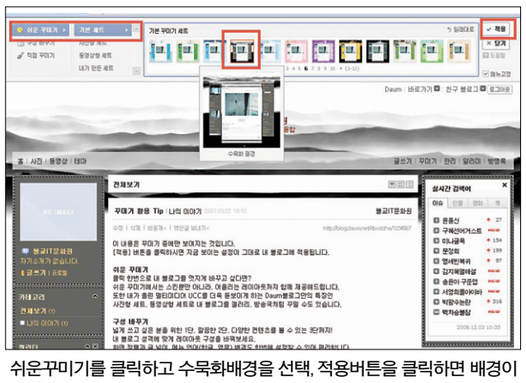
일단 다음(www.daum.net) 또는 네이버(naver.com)에 가서 블러그를 하나 생성합니다. 회원 가입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블러그 개설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블러그 만들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주소라는 입력창에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itbuddha'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름을 입력하세요. 여기에 입력하시는 블러그 이름은 나중에 웹 브라우져 상단 탭



블로그 만들기 페이지에서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블로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머지 공간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시고 블러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블러그 페이지로 오셨죠. 거기 오른쪽 상단에 꾸미기 버튼이 보이시죠. 역시 클릭합니다. 왼쪽에 '쉬운 꾸미기'를 클릭하시면 배경을 고를 수 있는 화면들이 나옵니다. 자 쉬운 꾸미기에 기본 세트 중에서 하나 고르시고 오른쪽 적용 페이지를 꼭 클릭합니다. 전 6번째 페이지에 있는 수묵화 절경이라는 배경을 적용했습니다. '적용'을 클릭하고 나니 배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리홈 이라는 페이지가 보이시죠. 거기 두 번째 메뉴인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관리홈에 카테고리 페이지가 나왔죠. 여기에 그룹과 카테고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시고 게시판 형태는 '목록보기'를 선택합니다. 다 하셨으면 역시 '적용' 버튼 클릭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블러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쉬운꾸미기를 클릭하고 수묵화배경을 선택,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배경이 바뀐다.

#까페24에서 도메인 주소를 등록해 봅시다

너무 쉽다고 앞서가지 마세요. 이제부터 진짜 재미 있는 걸 하려고 합니다. 아까 블러그 이름 작성하신 것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신다고요? 기억이 안 나셔도 너무 걱정하시 마세요.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를 꼭 기억해두세요. 블러그 내용은 천천히 채우시고 다음 순서로는 도메인 등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도메인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www.cafe24.com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원하시는 홈페이지 주소를 찾습니다. 주소를 찾기도 쉽지가 않죠? 원하시는 도메인 주



www.cafe24.com에 가서 회원가입을 한 뒤 도메인검색란에 원하는 주소를 쓰고 검색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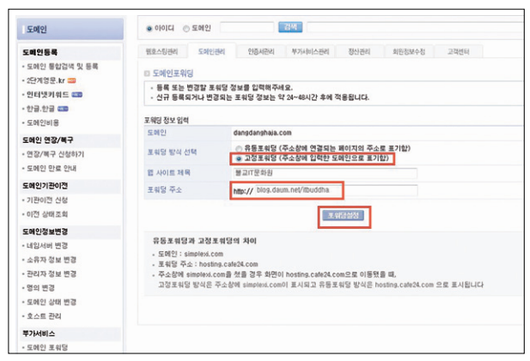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등록가능한 도메인 주소가 나타난다. 원하는 주소를 체크하고 선택한 도메인 등록하기 버튼 클릭.

소는 다 등록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찾아보세요. 원하시는 영문 단어나 숫자(전화번호)로 검색하시면 오른쪽에 '등록 가능' 하다고 나옵니다. 저는 dangdanghaja.com 이란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블러그를 만들었고 도메인을 등록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 주소를 블러그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도메인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cafe24.com에서 도메인을 등록하였으니까 cafe24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하시고 상단에 도메인부분을 클릭하시고 왼쪽에 부가서비스 영역이 보이시면 '도메인 포워딩'이라는 부분을 클



로그인 후 도메인 부분을 클릭하고 왼쪽에 부가서비스의 도메인 포워딩을 클릭.



포워딩 정보 입력페이지에서 포워딩 방식 선택을 고정 포워딩으로 체크한다.

릭합니다. 도메인명 오른쪽에 포워딩 등록 클릭하시면 포워딩 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오시죠. 도메인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포워딩 방식은 고정 포워딩으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여기 입력하는 내용은 웹브라우저 상단 탭에 표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할 주소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블러그 주소를 복사해서 넣습니다.

저에 다음 블러그 주소는 blog.daum.net/itbuddha 이기 때문에 포워딩 주소를 blog.daum.net/itbuddha 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설정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는 24시간이나 48시간 기다리라고 하는데 한 10분후면 설정 완료 되실 겁니다. 이제 www.dnagdanghaja.com이라는 주소를 웹브라우저에 입력하시면 다음 블러그(blog.daum.net/itbuddha)가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10분 후 좀 전에 등록하셨던 홈페이지주소를 웹 브라우저상에 입력해보세요. 다음 블러그가 나오시죠. 짜잔~ 얼렁뚝딱 초간단형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응용해 볼까요. 카페, 블러그, 미니홈피 등등을 만드시고 등록하신 도메인 주소로 포워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본인 홈페이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도메인을 하나의 홈페이지로 포워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buddha.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uddha.net 과 buddha.org 도메인을 buddha.com로 포워딩 하면 두 도메인 모두다 buddha.com으로 연결됩니다. 도메인 포워딩을 활용하시면 홈페이지는 하나지만 도메인 즉 홈페이지 주소는 3개로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분석은 홈페이지 발전에 중요한 요소

마지막으로 블러그 관리 메뉴 중에 통계보기(웹로그)가 있습니다.

통계(웹 로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홈페이지 운영 계획 및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활용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통계(웹로그) 분석이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만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 발전에 직접적인 중요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운영 전략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가 되도록 가공하는 작업을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차례에는 웹 로그 분석 방법과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올바른 서버 선정 방법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불교IT문화원 홈페이지(www.itbuddha.co.kr) 커뮤니티에서 동영상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교IT문화원 사무국장

불교문화의 IT 대융합의 시작, 불교 IT문화원
1대 1맞춤 강의시스템!! 대기설법 형식 수업진행!! 컴맹 탈출 1개
아직도 컴맹이십니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330호
www.ITBuddha.co.kr 02.739.9777
불교 IT문화원 강좌안내
컴맹탈출 / 중급 / 전문가
홈페이지제작 / 불교방송국개설
한문 / 한글/ 손글씨
장엄연구
재채비연구
초중급 / 불화연구
전통예술제본연구
불교 IT컨설팅 당당 www.consultingit.co.kr
종무관리 시스템 / 디저털 법회 시스템
홈페이지 제작 / 인터넷 불교방송국 구축
최신 신도관리 시스템
문의전화 070-8713-9777
장엄연구소
제작문의 02-739-9777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0

진리 바로보면 어리석음 깨진다

[원문]
세존당입설산중(世尊當入雪山中)
일좌부지경육년(一坐不知經六年)
인견명성운오도(因見明星云悟道)
언전소식편삼천(言詮消息遍三千)
–태조산 도리사 태조선원

[번역]
부처님께서 설산에 계실 때
한번 앉아 6년이 흘러감을 알지 못했네.
밝은 별을 보고 도(道)를 깨달으시니
그 말씀 그 소식 삼천세계에 가득하여라.

[선해(禪解)]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쁜 경지로 빠진다. 이와 달리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올바른 지혜로써 어리석음을 끊어 버린다. 그리하여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 미혹한 생을 되풀이 하는 일을 두 번 다시 행하지 않는다."

옛날 인도의 비데아 왕국에는 미틸라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정도(正道)로써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왕이었다. 특히 왕은 종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8만4천년 마다 왕자로 윤회하며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왕은 삼세(三世) 동안 오직 군주의 자리에만 올라 만백성을 통치하는 삶만을 오래 동안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다. 왕은 자신의 머리를 깎아 주는 이발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발사여! 만일 내 머리칼을 다듬다가 흰 머리가 발견 되면 즉시 나에게 말하라."

왕자에서 국왕에 오른 지 이십여 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발사는 왕의 머리를 깎다가 한 올의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였다. 즉시 이발사는 왕에게 이를 고하였다.

"대왕님! 여기 흰 머리카락을 찾았나이다."

왕은 이발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머리카락을 나의 손바닥 위에 올려보아라."

그 때 왕에게는 아직도 8만4천 년이란 엄청난 수명이 남아 있었지만 흰 머리카락을 보자 마치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 온 듯 마음이 초조해졌다. 어떤 때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도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어리석도다. 미틸라여 아직도 나 스스로 머릿속에서 백발이 나오도록 번뇌를 끊지 못했다니!"

그는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더 이상 이런 번뇌의 성에 갇혀산다는 것이 큰 고통임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하였다. 그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

"아들아 내 머리에 백발이 돋아났구나.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다. 인간적인 욕망은 누릴만큼 누려왔으며 더 이상의 생은 가치가 없다. 이제 나는 출가를 하여 도를 닦고자 한다."

왕은 스스로 왕궁을 떠나 기나긴 수행 길을 나서 '마카데바 망소 숲'에서 남은 긴 세월을 고요한 선정에 들었다. 이 후 왕은 죽어 다시 범천계에 태어났다.

이것은 붓다의 과거세에 나오는 <본생이야기>이다. 여기에서 국왕은 바로 부처이며, 이발사는 아난다의 전생이며, 아들은 붓다의 아들이었던 라훌라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의 위대한 사실이 있다.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왕은 어느 날 갑자기 돋아난 단 한 올의 흰 머리카락을 보고 자신이 늙고 병듦을 탄식했던 것이다.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다. 이것이 우주의 질서이며 진리이다. 가고 오는 것이 그 이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갓 눈앞의 권력과 권세를 버리지 못하고 오늘날 이전투구를 일삼는 많은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

억겁의 무명도 한 순간의 견성으로 밝아진다

병과 재물, 명예는 쌓을수록 화를 불러일으킨다

사람이란 나이가 들어 늙어 갈수록 욕심이 더 늘어난다. 애착과 집착이 강해지고 가진 것을 놓지 못해 행복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병과 재물, 명예는 쌓을수록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원리를 모르고 있는 까닭이다.

미틸라 왕이 머릿속에 난 한 올의 흰 백발을 보고 기꺼이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내치고 출가의 길을 걷고 마침내 부처가 되었다는 이 <본생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왕은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진리를 따라 출가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혹한 생을 되풀이 하는 일을 두 번 다시 행하지 않고 부처가 되었다.

이 미틸라 왕과 카필라국의 왕자였던 부처님의 출가는 매우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련 여행은 태조산 도리사 태조선원이 알맞을 것 같다.

도리사는 경북 구미시 해평면(海平面) 냉산(冷山: 지금의 太祖山)에 있는 절이다. 중국에서 불도를 닦고 귀국한 고구려의 아도(阿道)가 눌지왕 때 신라에 와서 그때까지 불교가 없었던 신라에서 포교하기를 요청하여, 처음에는 많은 미움도 샀으나 후에 소지왕의 신임을 얻어 불교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 무렵 왕궁에서 돌아오던 아도가 이 곳 산 밑에 이르자 때가 한창 겨울인데도, 산허리에 복숭아꽃과 배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고 이름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경내에는 극락전 본당, 조사전(祖師殿), 칠성각(七星閣) 등의 법당과 요사(寮舍)가 있으며 불상, 탱화(幀畵), 석탑,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 아도화상사적비 등이 있다.

태조선원의 주련 내용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출가기를 그리고 있어 참된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세존당입설산중 일좌부지경육년: 부처님께서 설산에 계실 때 한번 앉아 6년이 흘러감을 알지 못했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몰입했을 당시를 표현한 게송이다. 뼈가 살가죽이 붙을 정도로 수행하다 보니 어느새 6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다는 내용으로 그 고행의 고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이를 모른 채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셨다는 뜻이다. 물론, 부처님이 겪었던 그 고행상(苦行相)을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는 없다. 한생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먼 길이기 때문이다.

'인견명성운오도 언전소식편삼천: 밝은 별을 보고 도(道)를 깨달으시니 그 말씀 그 소식 삼천세계에 가득하여라.'

부처님은 고행의 그 긴 세월을 보내셨지만 도를 깨친 것은 밝은 별을 본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억겁의 무명(無明)이 찰나의 순간에 밝아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별빛처럼 삼천 대천 세계에 영원히 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 설법이요,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다만 영원한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업의 윤회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은 업을 짓지 않고 육도를 윤회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또한 수행자는 성불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닦고 머무는 바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0

본성 보면 업을 짓지 않는다

[원문]

縱作業不同迷人 一切業拘他不得. 從無始曠大劫來 只爲不見性 墮地獄中 所以作業輪廻生死 從悟得本性 終不作業. 若不見性 念佛免報不得 非論殺生命. 若見性 疑心頓除 殺生命亦不奈何.

설사 업을 짓더라도 미혹한 사람과는 다르므로 모든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느니라. 아득한 옛날부터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였기에 지옥에 떨어졌으며 그런 까닭에 업을 지어 생사에 윤회하는데 본성을 깨달으면 업을 짓지 않느니라.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염불을 하더라도 살생의 과보를 면할 수 없느니라. 견성을 하여 의혹을 확 없애버리면 생명을 죽이더라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느니라.



日 임제종 하쿠인(白隱, 1686~1789) 선사의 '달마 도강도(渡江圖)'.

[해설]

성품을 보게 됐을 때,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도리를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업이라도 그 사람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일체가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일러줘도 와 닿지도 않을 겁니다. 아직도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육신은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살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지며 일초 전과 일초 후가 같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참된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만, 주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깨달아 단 십 분을 수행 하더라도 바른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본래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름이 끼면 태양을 볼 수 없지만, 구름이 걷히면 밝은 태양이 대자연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우주 실상을 비춰볼 수 있는 광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잘못된 삶에 의해 우리 불성이 깜깜하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익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바로 비춰보지 못하기에, 중생이라고 그립니다. 구름이 걷히면 환한 빛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성품을 본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 탁한 업을 맑혀 놓으면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시간 정진하면 반드시 한 시간 정진한 만큼 업이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정진하면 5분 한 만큼 불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성이 드러나면 나의 본래 고향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집에서 자는 것이 남의 집에서 자는 것보다 편하듯이 수행을 통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정진의 끈을 항상 놓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을 찾든 '지장보살'을 찾든, 염불 하는 대상이 우주와 하나라는 생각으로 찾았을 때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본 사람에게는 업으로 인해서 다시 구속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업을 짓고, 본성을 깨달으면 업을 짓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불한 이후 제바달다라는 사촌 동생에게 많이 시달리거든요. 육신이 있는 한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생의 일을 알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전생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면 얼굴이 금방 붉어지잖아요. 전생을 알고 있다면 상대가 왜 나쁜 말을 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상대에 대해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업을 짓지 않지만 모르기 때문에 다시 업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상대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악연이 끝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같이 얼굴을 붉히게 된다면 두 사람 관계가 악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성품을 보면 살생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품을 보지 못했을 때는 염불을 한다 할지라도 살생 했을 때 살생의 과보와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견성(見性)'이나 '성품을 본다'는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주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그 자리를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을 보고 모든 경계가 끊어졌다면 어떤 행위라도 인과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견성을 하여 의혹을 확 없애버리면 생명을 죽이더라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정토교학의 선지식 군맹당 서진스님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묘약(妙藥)

『관무량수경』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 기 간 : 2009년 12월 2일(수요일)개강 후 6개월간
■ 시 간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수 강 료 : 10만원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 장 소 : 서원사 불교문화센터
■ 접수마감 : 2009년 11월 30일까지
■ 전 화 : 02)983-7484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수강료 계좌입금



당뇨. 비만 Diet

임 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종 정 무진본 정화당
총무원장 혜봉당 무공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근근히 이어오다 종파분열(宗派分裂)로 인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등지는 현재의 처함에 있어, 제종통합(諸宗通合)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루고자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과,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서류
◆ 본종 소정양식(입적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4장, 득도증서 사본 1통 (계단장 또는 사승)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호보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심적사
심적 시민 선원 개원

◆ 하안거 · 동안거 결재와 산철 결재 봉행 · 운영
– 개원일 : 2009년 12월 1일
◆ 매주 주말 철야정진 참선 법회운영

마음을 밝혀 참나인 불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심적 시민선원을 개원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매월 초하루 3일 신중기도
매월 음. 9~11일 500 나한기도
매월 음. 18일 지장재일 봉행

전화 : 055) 973-1769, 7547
팩스 : 055) 973-1206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127번지
진주에서 35분, 산청IC에서 8분거리

대한불교 조계종 웅석산 천년나한도량 심적사

보살의 원력으로 중생심·번뇌 끊고 사세요

주제: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 2

일시:11월 3일

장소:광주동구KT문화센터

강사: 정락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 스님.

건강·장수·재능·자유·지혜·사랑·기쁨·복이 행복 조건
업력의 삶 버리고 반야공 목표로 원력의 삶 살아야

이렇게 좋은 자리에 동참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광주불자님들을 이렇게 좋은 법석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업력(業力)의 삶과 원력(願力)의 삶'입니다.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이야기 하는데, 어느 학자가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신 것이 불교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대목이 중생이 업력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살의 원력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이란 다시 말해서 '중생의 삶과 보살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각자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의 업력으로 사는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삶과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고 설하신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에 앞서, 행복의 조건을 몇 가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능력을 갖추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체력 뿐만 아니라, 재력, 지식 등 모든 능력을 잘 갖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스러움입니다. 어떤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유스럽게 살면 행복 조건 중 하나를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가족 및 이웃, 또 직장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깥에서 기쁜 일도 많이 생겨야 되겠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복력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능력만 가지고 노력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력이 있어서 그 복의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있으면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뿌리가 있듯, 보이는 능력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복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를 제가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살고, 능력 있고, 자유스럽고, 지혜가 있고,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복이 있는 삶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뭘 더 찾는 표정입니다. 일곱 가지가 부족하다는 표정이네요. 아니면 또 만족하다는 표정입니까? 사실 여기서 한두 가지만 다 갖추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닥쳤을 때 가령 몸이 좀 아플 때에는 재산도 다 필요 없고, 그저 몸 건강한 것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중 단 하나만을 구할 수도 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그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제일 첫번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봅시다. 이렇게 그 일곱 가지를 다 갖추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만 갖추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세간에서, 중생세계에서 욕심을 갖고 업력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놓고 보면 만족하게, 완전하게,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절에 살 때, 96세 된 노스님을 제가 시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에서 스님들이 세배를 왔어요. 절에 세배를 와서 96세 된 노스님 보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쭈니, 아주 당당하게 "아흔여섯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배 한 스님이 자기 생각에는 덕담한다고, "아이고, 스님 100세까지 사셔야겠네요." 그랬단 말이죠.

그 스님이 간 다음에 노스님께서 "그 중 다시는 못 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앞으로 나보고 4년만 살다 죽으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96세 된 노스님께서 더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건강, 오래 사는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중생 세간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보통 50대, 60대만 되면 늙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놓고 볼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거의 평준화가 된답니다. 누가 이쁘다 그런 소리, 그 때 되면 안 듣는데요. 그냥 누가 돈이 많다, 그런 이야기나 좋아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건강을 이야기 하고, 오래 살기를 이야기 하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00년, 만년 지나면 서로 꼴(모양)도 못 봅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한 생명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중생 세간에서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서기 전에는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살아있는 그 자체도 삶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세워놓고, 그런 원력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생각해 봅시다. 능력에는 재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면 부자 될수록 더 욕심이 많아진답니다. 아는 것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서로 욕심내고 자기 자신의 욕심 속에서 살다보면 만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욕심내서 다투다 보면 절대 혼자서 만족하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분석을 해보면 우리 중생의 업력으로 사는 이 삶 속에서는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만족할만한 완전한 그런 삶이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를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자유도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좀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 그건 자유라 할 수 없어요.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도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해탈을 해야 완전히 자유스러운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자기가 자유로우려고 해도 마음 속 근심 걱정이 있다든지, 분노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라고 하지만 중생의 업보를 지니고, 업력으로 사는 한은 자유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종(노예)이라고 그럽니다. 절대자에 대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성불 한다고 그래서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살수행을 해서 성불하겠다든가,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라든가, 그러면 중생을 자식 같이 사랑하고, 중생을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간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으로는 완전한 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반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등 공양을 올리는 것은 반야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 사랑을 생각해봅시다. 세속, 세간에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 딸 사랑하는 것을 그래도 가장 완전하다고 하지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중생의 소견을 가지고 사는 한에는 그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는 원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을 자비라고 그럽니다. 자(慈)는 일체 중생들을 사랑하고, 일체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이 비무량심(悲無量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안에 그런 완성된 사랑, 그걸 자비라 그러고, 그걸 보살행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생각해봅시다. 사실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기쁨도 줄어들어요. 자기만 기쁜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 기뻐하는 꼴도 못 보게 됩니다.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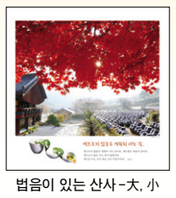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 -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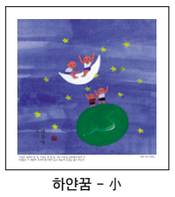
관음의 미소-大, 小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사랑이 자비 보살행

중생 세간의 기쁨은 그 때 뿐인 것이 많습니다. 가령 집을 샀다고 기뻐하지만, 집도 평생 열 채를 살 것도 아니고 그 때 뿐입니다. 중생이 기쁜 일이라는 것이, 죽어도 한이 없다 할 정도로 기쁜 일이 평생에 몇 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많은 것인데 우리는 얻어먹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수경>에 '복 복자'가 두 번 나옵니다. '受福如佛等(수복여불등)'이라 할 때, 수복은 부처님한테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복이 바로 베풀어 주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願我勝福(원아승복)'이 나오는데 전부 베풀어주는 복을 말합니다. 얻어먹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부처님의 경지, 즉 원력의 삶에 들어서서 보살의 삶으로 가는 삶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생의 삶에서 원력의 삶으로 방향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원력의 삶쪽으로 나아가는데 목표로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임금이 있었는데,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나가면 금으로 된 화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화살이 사슴에 꽂혔을 때는 사슴과 금화살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지만, 빗나간 화살은 따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신하들이 횃불을 들고 화살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무엇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아직 화살이 다 회수가 안 되어서 화살을 찾으려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내일 와서 찾지 뭐하려고 이렇게 밤에 횃불 들고 찾을 것 뭐 있느냐, 내일 와서 찾으라"고 하니, 신하들이 "오늘 밤에 찾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이 금으로 된 화살을 사용하는지 알고 밤이 되면 횃불을 들고 온 산을 뒤져서 주어갑니다"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 하는 말이 "초나라 임금이 잃어버린 것을 초나라 사람이 주어 가는데 무엇이 아깝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하들이 감동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공자님께 가서 자랑을 합니다. 공자님이 가만히 듣고 하는 말이 "왜 초나라 사람만 주어 가야 하느냐? 그냥 사람이 잃어버린 것, 사람이 주우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천하통일할 만한 인물이 아니고 그 초나라 임금 밖에 못해먹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또 노자님이 그 말을 듣고 초나라 임금이나 공자님이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안 주우면 어떻고, 노루가 물어 가면 어떻고, 꼭 사람만 주워야 되느냐? 그것이 사람 욕심만 기른다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자님이 그랬고, 노자님이 그랬고, 초나라 임금이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 불자님들에게 물으니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정락 스님의 법문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을 듣기 위해 모인 광주지역의 불자들.

그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어떤 스님 한 분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물었습니다. "아까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스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은 배를 탄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난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경지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떠나서 무심(無心)의 경지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배를 탄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난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은 기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깊이 그 뜻을 알아듣는다면, 정명도, 정이천 그 형제의 경지에서는 알아들을 만한 말이예요. 그런 경지가 갖추어지면 얼마나 참 마음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혹시 불자님들이 절에 갔을 때,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든지, 혹은 친구 집에 갔을 때 초청 받아 갔는데 푸대접 받아서 욕하고 싸우고 나올 때도 예전과는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그 집 간 일도 없고, 욕 먹은 일도 없다"고 말입니다.

원력의 삶이라는 것은 반야공(般若空)을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업력의 삶을 버리고 원력의 삶으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언급한 '금즉시공'이요, 또 배를 탄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난 일도 없는 그런 경지를 증득하는 것이 원력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생의 세간에 끄달려서 얽매여있는 한 업력의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원력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인연 만나서 참 좋습니다.

정리=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그러면 공자님이 그랬고, 노자님이 그랬고, 초나라 임금이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 불자님들에게 물으니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반야심경>에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 했는데 금은 곧 색이거든요. 그래서 "금즉시공(金卽是空)이니라"하고 말합니다. 그 자체를 공(空)이라고 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금에 대한 욕심, 이런 것까지 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진심(嗔心) 즉, 화 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주자의 스승인 정호, 정이 두 형제가 하루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죽음 직전에 이릅니다. 사람이 큰 풍랑을 만난 상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아비규환입니다.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아우성을 치는데, 그 때 두 형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배가 다행히 언덕에 닿아 걸어나오면서 형제간에 대화를 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아까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몸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어떠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마음은 좀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린 겁니다. 치심(治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심(修心)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고요히 할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8. 원융불교의 실천자 이영무 스님

운제 이영무(李英茂, 1921~1999) 스님은 원융(圓融)불교의 실천자다. 특히 원효 대사와 태고 보우 국사를 중심으로 <유마경>의 불이정토(不二淨土) 사상을 널리 선포하였다.

운제 스님은 1922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1970년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어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이 될 때까지 대학생불교연합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강의해 주셨다. 장차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요직에 앉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철학을 심어주기 위하여 <유마경> 원전과 원효 대사의 <열반경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의하였다.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3~40명에 달해 속칭 '원효파'와 '유마파'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내가 1937년 석왕사에서 중이 되어 석왕사 강의를 마치고 강남 봉은사 강사로 취임하였을 때만하여도, 청년들의 열기가 삼동(三冬)의 얼음도 녹여낼 수 있을 정도로 펄펄 끓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보호하는 생각, 가정의 혈맥을 계승하는 정신이 강하였는데, 6·25 이후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개인 자유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상하 전후 좌우가 모두 없어져 버렸으니, 이것이 민주화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조용하면서도 끈기가 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으므로 청강생들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조용해진다. 스님의 전공이 역사학이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경북대학교, 단국대학교, 조선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에서 스님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골고루 모였다. 불교도 불교이지만, 한문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도 많았다.

"내가 한문 실력만 가지고 역사학을 전공하다 보니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무섭더라. 학자는 자기 분야가 아니어도 세상에 크게 유행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불교를 하는 사람은 동양 3국어는 말할 것도 없지만, 빨리어, 산스크리트에 능해야 된다. 한국불교가 중국불교를 계승하여 한문 일변도로 공부하는 악습도 있지만 오히려 불교경전을 통해 한문공부도 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렇게 난제를 오히려 호제로 만들어 후배들을 길렀다.

원효 대사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주장한 것이나,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 중 무상(無常) 속에서 영원을,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부자유 속에서 자유를, 더러움 속에서 청정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이 같은 난관에서 얻어진 철학이 아니었겠는가 깨우쳐 주었다.

나이 들어 서울 불이성 법륜사의 법사가 되고, 묵담 스님에게 계를 받아 태고종 법규위원, 종회의원, 고시위원을 거쳐 총무원장, 승정의 위에 오르고 동방불교대학장까지 겸한 것은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불교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늘 강조하였다.

"한국불교는 아만, 아집 때문에 망쳤다. 유생들이 골육상쟁(骨肉相爭) 한다고 욕하지만 그들은 현실사회에 뛰어들어 권력과 이익을 가지고 싸웠지만, 중은 닭 벼슬만도 못한 주지 직을 가지고 아귀(餓鬼)다툼을 하였으니,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 정도전이었다. 정도전, 이성계, 모두가 보우 국사 제자 아닌가. 그런데 명나라 패들이 원나라와 연관 있는 스님들을 깎아 내리고

유마·원효의 계승자… 대불련에 큰 관심 두고 후배양성 매진

죽이니 그럴 바에는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 당시 유생들의 생각이었어."

78세가 되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스님의 그 생각은 변치 않았다. 몸이 불편하여 단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가니,

"나는 나를 이기기 위하여 스스로 고행을 체험하고 있네. 내가 직접 40일 단식 하고 나니 부처님 6년 고행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네."

하고, 금방 다시 살아나 좋아하시던 붓글씨도 쓰고 시도 읊어 주셨다.

"서래(西來)의 한 곡조 아는 이 없으니
백아(伯牙)는 있어도 종자기(鍾子期)가 없는 격.
홀로 고요히 앉아 밤 지내니
주렴(珠簾) 뚫고 남은 달 장삼에 비치네."

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

전수교육 안내



[장한빛 仙師]
-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 암등 난치병 공동연구
-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 애타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 교육장소 : 강화 한빛건강修練院 (전등사인접)
◆ 교육기간 : 11월 13일(금) ~ 11월 15일(일) (2박3일)
◆ 신청접수 및 문의 :
032)937-7182 / 야)010-6299-8386
인터넷검색창 : 한빛건강수련원, www.한빛건강수련원.com
※상담 연락시 자료요청하시면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전수비용 : 기초과정/ 고급과정/ 연구과정
◆ 주 최 :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 교육대상 :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 (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 한의사, 중의사, 물리치료사, 승려, 목회자, 태권도, 합기도 관장, 수련원, 단식원 운영자 및 대체의학 전통의술에 관심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
◆ 후 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 지원센타 (피부,비만,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지부설립문의)

◆ 弟者구함 : 자연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주경야독하면서 醫通君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구합니다.

전수교육 내용

◆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 正骨整體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活人氣功)
2. 正血淸血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 正氣(通經活絡)
萬病之根源 氣滯血瘀, 세계최강 山蔘면역침술

◆ 내과적영역
초·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백내장, 치주염,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파킨슨, 루게릭은 임상중)
※10년~20년 이상 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10회의 시술로 90% 이상 치유됩니다.

◆ 외과적영역
수술날자받은 경추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초기강직성척추염, 안면마비, 모든 종류의 두통,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항강통, 어깨결림, 오십견, 테니스·골프엘보우, 수족마비, 3,4기골다공증, 하지무력증, 통풍, 류마티스, 퇴행성무릎관절염, 악성무좀,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생리통, 채머리증, 수전증, 족저통, 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10년~20년 이상 된 묵은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90%이상 사라집니다.

전수교육 수료자 체험추천서

18세때 무술에 입문하여 사범, 관장시절 저의 무술도장에서 회원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대체의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뼈접골, 침술, 지압, 기공, 최면술, 카이로프락틱 등 각종 단체로부터 또는 개인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에게 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옥살이도 했습니다.
이윽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조금은 조국이 원망스럽기도 했지요. 시간이 흘러 미국을 떠나 이민국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지금까지 원주민을 상대로 기 치료를 하면서 가끔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차 지난 8월 12일 기내에서 모 일간지를 통해 원장님의 특강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웬지 느낌이 와 닿아 전화 접수후 바로 교육에 임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속는 셈치고 휴식도 취할겸 해서 참석했는데, 막상 교육을 접하고 보니 정말 기적같은 현실이 일어나더군요.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능력과 투지, 그리고 인자한 성품, 열정적인 연구자의 모습까지 정말 감동했습니다.
원장님의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원에서 기 치료사 박ooo (10기수료)

나는 직업이 승려입니다. 세속 60년이죠, 법랍 26세 인연에 의해 강원(절)에서 수행하였고, 큰 사찰에서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마산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지요. 중생들에게 불연을 맺게 해주는 방편을 고민해 오던중 강화도 한빛건강문화원에서 해답을 찾은 내용을 적어 봅니다.
먼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 부처님 -
나는 카이로프락틱, 최면학, 빙의, 전생요법, 수지침, 기공침술, 봉침술, 수정클리닉, 레이키, 따주기, 신병다스리는법, 물론 명리학도 한때는 수강을 받았지요. 좋은것도 있었고, 때로는 돈이 아까울때도 있었습니다. 뭔가 20% 모자라는 것을 찾기 위해 목말라 했는데 무혈,무통,무수술, 세계최강 - 한빛건강문화원- 장한빛 선사를 찾아가서 서로 마주보는 순간 수강을 하기로 결정했었죠.
수강의 결정적 동기는 대구 oo산 ooo소속의 oo의 짤막한 한마디, 유정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5박 6일간의 수강을 했습니다. 수강후 29년된 아토피를 해결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말이 필요없습니다. 부천중학교 선생님 ooo 불자 이분이 29년 아토피로 고생한 것을 해결했습니다. 경남 마산시 산호동 거주 ooo 63세 oo사 불자 병명: 안짱다리 등등. 내려 올때나 올라갈 때 언제나 불편했던 것을 요번 수강 후 해결했습니다. 교육 도중에 나이 많으신 보살님이 오셔서 시술받는 그대로 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선사님께서 이 소승을 1개월씩 1개월씩 3개월만 선사님의 도력을 전수할 수 있게끔 마음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 원대한 꿈 펼치시어 사랑과 희망으로 큰 가르침 주십시오. 언제나 감사합니다. 두 손 모읍니다.

- 6기 수료생 마산에서 승려 oo

처음 교육때는 배워서 남을 치료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지병부터 고쳐보고자 생각하고 왔는데 나의 생각이 너무 옹졸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몸을 관리하면서, 옆에 아픈 분들과 관리를 하면서 그 즉시 각종 통증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잠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병원에 수없이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낫지 않았는데 단 몇 분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모든 통증이 싹 가시고 낫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십수년 동안 아파왔던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졌다. 또한 위장병과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생각이 확 바뀌었다.
이 좋은 치료방법을 배워서 남을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모독이며 선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따르지 아니 함이니 부족하나마 열심히 배워 활인비법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몇 번 망설인 끝에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하며 왔는데, 지금의 생각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과정이 몸에 익어 가는 것 같다. 침 몇 개로 오십견과 허리통증을 낫게 하고 정골정체 비법으로 몇 분만에 몇 십년 앓아오던 관절과 발 저림을 낫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런 좋은 활인법을 가르쳐주신 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에 같이 참석하여 서로 도와주며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승려 OO (3기 수료)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22>

편리함 · 쾌적함 추구가 지구온난화 유발

인류는 지구 생태계 교란으로 원인모를 병원체에 노출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와 인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염화불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에너지,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에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고 강수량 감소에 대한 사막화 현상의 심화, 집중호우, 태풍, 엘니뇨(El Nino)현상 등 이상기후현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원인 모를 괴질, 역병(疫病)을 야기하는 등 인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됐고, 현재 이 협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구속력을 강화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있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계속 저감되지 않고 있다. 기상학자 및 생태학자에 의하면, 현재의 페이스로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00년 후에 약 2도 이상 6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1도의 기온 상승은 일본열도가 적도방향으로 300Km 이동하는 것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의료생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자연생태계에 비가역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왜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역병이 때때로 지구상에 출현해 대유행하고 있는 것일까. 예를 들면 미국 뉴욕에서 돌연 출연한 '살인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다. 1999년 8월, 갑자기 출현한 살인바이러스로 뉴욕이 온통 혼란에 빠졌졌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급격한 발열과 전신마비 등으로 쓰러진 후 불과 며칠 후에 사망하는, 기이한 병이 집단 발생했던 것이다.

길거리의 까마귀나 동물원의 새가 대량 치사하고 말(馬)도 쓰러졌다. 그 후에도 환자는 계속 이어져, 그 해 9월 말에는 순식간에 62명이 감염됐다. 당초는 옛날부터 미국에 존재하는 센트루이스 뇌염 바이러스의 감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 그러나 병원체의 유전자 분석 결과 미국에는 없는 아프리카의 '서나일 바이러스'로 판명됐다. 감염된 야조가 비행기로 실려 온 것이 원인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뉴욕의 서나일열이 2002년에는 드디어 폭발적인 유행병으로 확산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로 인류를 위협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병원체가 온난화에 의해 본격 활동 태세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증해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야생동물의 자연생식 지역에 인간이 침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알 수 없는 병원체에 인간이 접할 기회가 증대했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병원체인 바이러스의 자연숙주(自然宿主)격인 생물이 생태계의 변화를 강요당해 왔다고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유행했던 신행폐염(SARS)이나 에보라 출혈열의 바이러스는 중국의 산간오지나 아프리카의 정글지대에 사는 동식물 가운데 각자 조용히 살아왔다. 즉 거의 모든 미생물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이 안정적으로 종(種)의


그림 · 김필헌

존속을 가능케 하는 '자연숙주'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생물과 자연숙주와의 '공생관계'가 위협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까지 조용히 살고 있던 미생물은 '숙주'로부터 관계를 끊고 튀쳐나와 '이머징 바이러스'로서 지구상에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들 인류는, 열대우림의 벌채, 목초지의 개간 등의 자연파괴를 반복해 왔다. 거기에다 야생동물의 남획 등 최근의 인류가 자행하고 있는 많은 무익한 행위가 새로운 병원(病原)체 미생물의 출현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이나 지구온난화 등 과학기술의 진보에 수반한 '간접적인 자연파괴'가 생태계의 파탄을 초래하게 됐고, 미생물과 그 자연숙주와의 간에 '공생관계'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유인 가운데 지구온난화나 거기에 따른 대규모 기후변동의 영향이 가장 중대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신흥 감염증이 국지적인 '풍토병'으로 수습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은 글로벌화 때문이다. 즉, 국제 항공망이 발달하고 인간이 단시간에 지구상을 이동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컨대 글로벌 시장경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람이나 돈이 국경을 넘어 지구규모로 쉴 새 없이 이동하게 된 것에서, 감염증도 항공기 등에 의해 급속히 세계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풍토병이 글로벌 바이러스로 변모한 일례가 바로 '사스(SARS)'이다. 사스는 옛날이었다면 중국의 광동성(光東省)에서 발생한 조그만 풍토병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인간뿐 아니라 새나 동물, 작은 모기까지도 인간 상품에 붙어 여객기나 화물기로 스며들어온다. 그리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도 그와 함께 손쉽게 국경을 이동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우 가까운 미래에 신종플루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원인모를 병원체가 한반도에 출현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가운데에는 온난화에 의해 활동태세에 들어가는 새로운 병원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인류는 현저하게 진보,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인류는 자기 자신이 '지구를 숙주로 하고 있는 하나의 기생동물(parasite)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결과, 인류는 지구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체 지구의 질서가 파괴되도록 짓밟고 있다. 그러한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깨지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점점 새로운 병원체가 비집고 스며들어 인류를 공격하게 된 것이다. 현대문명은 '보다 편리하고 보다 청결하며 보다 쾌적하게' 라고 하는 말처럼 합리성과 공리성을 추구해 왔다. 미생물은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하여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 그 결과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한 현대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편리함이나 쾌적함'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해 오로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가운데서 경제효율만을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화의 진전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해 온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약체화된 현대인'에게 지구온난화로 유도된 감염증이 여러 가지 모양새를 바꾸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작금의 신종플루처럼 세계의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 모를 역병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㉒ 코치의 과학관

허달의 불교와 코칭

쉬운 진리 멀어지고 보는데만 집착…

필자는 명색이 화학공학을 전공한 전문경영인이었으므로 한국화학공학회의 일을 맡아 한 인연도 있었다. 1966년 대한석유공사(유공)에서 시작한 직장 생활을 1998년 꼭 32년만에 SK로 이름이 바뀐 같은 직장에서 마감하고 경영직에서 은퇴해 SK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에 교수 직을 맡게 되자, 회고담을 학회지에 기고해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침 개인 홈 페이지를 개설 중이었으므로 그 내용을 주제로 하여 '게으른 자의 겉핥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잡문 하나를 써서 기고하였다. 꼭 10년 전의 일이다. 남과 나눌 만한 통찰이 부족한 삶을 산 것에 아쉬움을 피력한 대목 중 본인의 과학관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

전략(前略). 공과대학 입학을 시작으로 계산자와 유효숫자 세자리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취직해서 공장설계랍시고 하다 보니 어려운 공식으로 애써 구한 유효숫자의 정확도와 자부심이 이런저런 허용차(allowance: 예컨대, 부식허용차, 안전허용차, 게다가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철판 두께는 다음 얼마짜리 규격밖에 없다는 등) 때문에 뭔지 모르게 되어 버리고 만다. 그래서 무얼 들여다보고 살아야 할지, 과학만능세대라니 과학자들 하는 짓을 훔쳐 보니 그것도 가관이다.

20 세기 인류의 커다란 성취라는 허블(Hubble)망원경을 위성궤도에 올려놓고 주야로 '우주 저 깊숙이' 들여다보던 과학자들이 마침내 우주의 나이가 120억년에 불과 (과거에는 150억년) 하리라는 추론을 발표하자 난감한 천문학자, 천체물리학자가 무더기로 생겨난다. 한편으로는 페르미연구소니, CERN이니 하는 거대한 입자가속기를 만들어서 우주의 기원과 물질의 본질을 찾아보겠다는 참으로 가상한 목표를 세워놓고 일로 매진 중인데, 자꾸만 새로운 입자는 발견되지만 아마도 본질 그것은 입자가 아닐 것 같다는 얘기며, 그런 본질을 꼭 물질 속에서만 찾는다고 찾아질지 보장도 없어 보인단다.

차라리 불교 논서인 <기신론(起信論)>을 들여다보면 지름 수 km, 총 길이 수십 km 된다는 입자가속기에 수백억 불(弗) 들여 만들지 않고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이야기가 물질/비물질 이야기보다 수승(殊勝)한 것 같아서 본질을 다루는 논리로 그럴듯해 보이며, 그러면서도 과학처럼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가 아닌 나름대로 추론의 결론이 일단은 준비되어 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백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 무한 소립자의 세계, 유전자의 비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현대과학으로도 불과 5000년 전의 인류역사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이견이 많다. 어떤 과학자는 태양계가 1000년 단위의 시간 축(Time Span)으로 볼 때 안정된 계(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금성이 5000년 전에 지구와 근접충돌과정을 거쳐 태양계에 예속되게 된 혜성이었다고 말하는데(Velikovsky 이론), 다른 정통 과학자들은 그런 건 사이비과학이라고 매도하면서도 현대과학으로 풀 수 없는 예외 현상들을 설명할 이론이 마땅치 않아(금성 탐사선이 금성에 도착해 보니 그 표면온도가 정통과학의 온실효과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온도보다 훨씬 높아 오히려 Velikovsky의 추정온도가 더 가까웠다고 한다)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진보적 생물학자(Rupert Sheldrake)는 유전자(gene)만 가지고는 생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없으며, 축적된 기억, 습관 이런 것들이 형태생성의 장(Morphogenetic Field)을 만들어서 생물의 형태와 진화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교 유식론(唯識論)에 나오는 제8저장식(貯藏識, 아뢰야식)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런데다 이런 공부들이 종합되어 진리를 추구하는데 쓰여지는 일 없이 제가끔 뿔뿔이라니, 원… 잘난 분들은 나날이 불어나고, 쉬운 진리는 나날이 멀어져만 간다. 다 보는데 집착한 때문이다. 하략(下略).

코칭이 과학인가 아닌가 하는 명제가 있다고 해서 필자의 외골수 과학관을 들먹여 보았다. 과학이 관찰로부터 시작되며, 관찰로 측정 가능한 대상과 추론만을 다룬다고 협의로 해석하면 코칭은 과학의 범주에서 벗어날지 모른다.

다만 코칭이 고객 마음의 변환을 다루는 프로세스라 할진대, 최면 기법이나 NLP기법, 이른 바 영성(靈性)기법, 명상기법 등을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남용하기 이전에 전세계 식약청이 신약(新藥) 인증에 기하는 과학적 신중성의 몇 십, 몇 백 분의 일이라도 고객의 미래와 정신 건강을 위해 고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C757-172009.11.92:25PM페이지1(1,1)

말 적게 하고 음성 낮추며 장난치고 웃는 일 좋아하지 말라



혜암은 해인사 선원에서 두 철을 보낸 뒤 중봉암을 떠나려고 했다. 성철 방장스님 밑에서 유나 소임을 맡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정진해 보았으나 대중들의 근기가 들쑥날쑥하여 선원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던 것이다. 선원에 대중이 많다 보면 반드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청규를 지키지 못하고 낙오하는 사람도 있고, 상기병(上氣病)이 생겨 뒷방으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었다.

혜암은 오랜 만에 중봉암을 찾은 광명화보살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큰시님, 이걸 왜 주십니꺼"

"나 없더라도 이걸 스승 삼아서 공부하소."

"큰시님 글씨 아닙니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수표와도 같은 거요."

내민 종이에는 혜암이 꾹꾹 눌러쓴 볼펜 글씨가 선명했다.

"큰시님, 중봉암을 떠나실라고 그랍니꺼."

"지리산으로 갈거요. 보살은 더 따라오지 말고 이걸 의지해서 공부해요. 오대산 한암스님도 이걸 좌우명 삼아서 공부했어요."

광명화보살은 혜암이 어디를 가든 시봉을 계속하고 싶었다.

"큰시님, 공양주보살 하면서 복덕을 짓겠십니더. 그러니 막지 마이소. 큰시님께서 가시는 데가 어디라도 따라 가겠십니더."

"그거야 보살 마음이제. 어쨌든 나는 혼자 떠나니 그리 아시오."

혜암은 광명화보살에게 종이 한 장을 남기고 해인사를 떠났다. 지리산에는 혜암이 정진할 빈 암자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그 빈 암자가 바로 고려 때 보조국사가 깨달음을 얻었던 상무주암이었다.

할 수 없이 광명화보살은 혜암이 준 종이 한 장을 들고 마산으로 돌아갔다. 종이에는 중국의 천목중봉(天目中峰)선사가 제자들에게 당부한 수행지침의 글이 쓰여 있었다. 중봉선사는 〈선요〉를 집필한 고봉원묘(高峰原妙)선사의 제자이기도 했다.

도 닦는 마음을 견고히 하여
모름지기 반드시 견성할지어다.
화두를 꼭 붙들고 생철을 씹듯이 하라.
좌복 위에 길이 앉아 옆구리를 땅에 대지 말라.
불조의 말씀을 잘 읽어서 항상 스스로 부끄러워하라.
계의 몸을 청정하게 해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행동거지는 조용히 하여
욕정과 사나움과 어지러움이 없어야 한다.
말을 적게 하고 음성은 낮추며
장난치고 웃는 일을 좋아하지 말라.
비록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남의 비방은 받지 말라.
항상 빗자루를 들고 다니며 집안의 먼지들을 쓸어내라.
도를 닦는 행에 게으름이 없으며 음식을 배불리 먹지 말라.

道心堅固 須要見性 捉着話頭 如咬生鐵
長坐蒲團 莫脇着席 看佛祖語 常自慙愧
戒體淸淨 莫穢身心 威儀寂靜 莫慾暴亂
小語低聲 莫好戱笑 雖無人信 莫受人謗
常携?? 掃堂舍塵 道行無? 莫飽飮食

혜암이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가고 없자, 해인사 대중 중에는 섭섭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철 방장스님을 보좌하여 해인총림을 이끌고 나가야 할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랬다. 그러나 혜암은 어느 자리에서나 잘 사는 것이 성철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상무주암은 지리산에 자리하고 있을 뿐 해인사에 소속된 암자였다. 그러니 혜암은 해인사를 떠나지 않은 셈이었다.

상무주암에 도착한 혜암은 바로 삽과 곡괭이를 들었다. 지난해 폭우로 끊어진 산길을 닦았다. 틈틈이 땔 나무도 지게로 날랐다. 산길을 닦고 지게질하는 노동이 혜암에게는 낮 동안의 정진이었다. 마음 닦는 공부는 밤에만 해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 동안 혜암은 상무주암으로부터 1㎞쯤 떨어진 산중에서 동굴을 하나 발견했다. 동굴 주위를 살펴보니 옛 수행자가 살았던 기운이 느껴졌다. 혜암은 환희심을 내고는 암자를 하나 짓기로 작심했다. 기둥과 서까래 용도의 굵은 재목들은 상무주암 주변의 산자락에 흔했다.

부지런한 영산(靈山)이 힘 좋은 처사와 번갈아가며 벤 소나무들을 지게로 날랐다. 혜암은 낮을 갈며 하루 종일 소나무껍질을 벗겼다. 한편으로는 암자 터의 잡목들을 베고 계곡에서 주춧돌과 반반한 구들장 돌을 찾아 모았다. 잔일을 돕는 일손이 늘 부족했다. 그래서 혜암은 상좌 원각에게 해제하면 상무주암으로 올라오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윽고 혜암은 하동으로 가 목수를 만났다. 상무주암을 가끔 올라오는 함양 사람에게 하동에 산다는 정목수를 소개받았던 것이다.

"암자를 하나 지어주시오."

"시님, 저는 마실에서 조그만 초가밖에 지어보지 않았십니더. 그러니 다른 목수를 찾아 보이소."

"소문을 듣고 왔소. 칙간목수는 함양 마천에도 많소. 큰 절을 짓는 것도 아니니 인연을 맺어 봅시다."

"큰절이 아닙니꺼."

"그렇소. 손바닥 만한 암자요."

정 목수는 작은 암자라는 말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시님, 암자 이름이 뭡니꺼."

"문수암이오."

"대들보나 기둥은 단단한 지리산 소나무를 최고로 칩니더."

"껍질까지 다 벗겨놓고 그늘에 말려 놓았소. 지붕으로 쓸 함석만 마천에서 지게로 올리면 되오."

그제야 정 목수는 혜암에게 공손하게 합장했다.

"시님, 문수암 상량신을 잘 모시겠으니 걱정하지 마이소."

"얼마나 걸리겠소."

"상량은 추워지기 전에 올라가야 할낍니더. 추울 때 흙벽을 바르면 봄에 흐물흐물 부서지고 맙니더."

정 목수는 품삯도 많이 요구하지 않았다. 혜암은 그의 약속을 받고는 돌아왔다. 정목수를 도울 일꾼들은 이미 마천에서 구해놓은 터였다. 시멘트와 모래 등은 일꾼들이 마천에서 지게로 져 날라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수암 불사가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마천 마을사람 중에 누군가가 상무주암 주변의 소나무를 베었다고 혜암을 고발했기 때문이었다. 혜암은 난데없이 거창지검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산림법과 국립공원법은 엄중하여 누구라도 지리산의 소나무를 단 한 그루라도 무단으로 벨 수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혜암은 한 신도의 도움으로 벌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다.

혜암은 상무주암으로 돌아와 다시 삽을 들었다. 정목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꾼들과 함께 기둥과 서까래를 치목했다. 혜암의 편지를 받고 온 원각도 자신보다 서너 살 많은 영산과 함께 일꾼들의 새참과 밥을 지게로 져 날랐다. 그런데 영산은 지게질만 하는 생활이 힘들었는지 상무주암을 떠나려고 했다.

"아무래도 선방으로 가야겠소."

"문수암을 보고 동안거 때 가지 그럽니까."

"고생하시는 혜암 스님을 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이제는 떠나고 싶소."

"스님께 말씀은 드렸습니까."

"어제 솔직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뭐라 하시던가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원각스님은 이곳에서 계속 머물 생각입니까."

"저는 우리 스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뿐입니다. 우리 스님이 가시는 길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혜암은 고된 노동으로 밤이 되면 끙끙 앓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원각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방에 군불을 더 들이고 공양을 정성스럽게 올렸다.

"스님, 영산 스님을 왜 붙잡지 않았습니까."

"난 영산을 부른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붙잡겠느냐."

혜암의 말은 사실이었다. 영산이 어느 날 상무주암에 왔다가 갈 때가 되자 흰 구름처럼 눈앞에서 사라진 것뿐이었다.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지 말거라. 지금 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어라. 그것이 공부다."

원각은 영산이 한 일까지 곱으로 하다 보니 더욱 고되고 힘들었다. 날마다 일꾼들의 밥과 새참을 지게에 지고 가파른 산길을 탔다. 일손이 바쁠 때는 마천에서 올라온 모레와 시멘트까지도 지게로 져 날랐다.

어깨에 멍이 들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지만 혜암을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나지 않았다. 은사스님이 시키는 일이니 묵묵히 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 마음이었으므로 한 가닥의 요령이나 잡념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누구에게 칭찬받을 생각도 없었고, 무엇이 편한 것인지를 생각하지도 않았다. 자신에게 길을 열어 준 고마운 분이 시키는 일이니 무심코 할 뿐이었다. 그 사이 암자 터에 기둥과 들보가 맞추어 세워지고 상량식 때는 단에 떡과 과일을 올려졌다. 혜암은 목탁을 치며 〈반야심경〉을 외었다. 문수암 불사는 정 목수가 약속한 대로 첫눈이 내리기 전에 회향되었다. 그제야 혜암이 원각을 불러 말했다.

"너는 해인사 선방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문수암에서 겨울을 나 처사와 함께 날 것이다."

원각은 새 암자인 문수암에서 정진하고 싶었지만 혜암이 지시하는 대로 즉시 문수암을 내려왔다. 나 처사는 혜암보다 나이가 더 많았는데, 출가 수행자가 되고 싶어 문수암을 찾아온 불자였다. 은사를 두고 해인사로 돌아가는 원각의 발걸음은 그래도 무겁지 않았다. 나 처사가 동안거 동안 혜암을 잘 시봉할 거라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안거가 해제되자마자 문수암으로 올라간 원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몰골은 3개월 전과 전혀 딴판이었다. 머리는 봉두난발에다 수염은 산적처럼 길었고, 옷은 누더기가 다 되어 남루했다.

"지난해 네가 고생한 공덕으로 문수암에서 겨울을 잘 보냈다."

"저는 고생한 일이 없습니다. 스님께서 다하셨습니다. 거창으로 가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혜암은 문수암을 떠나려고 했다. 문수암에서 정진하고 싶다는 한 스님이 나타나자 미련 없이 넘겨주려고 했다. 새 암자에 대한 집착이 털끝만큼도 없기 때문이었다. 혜암은 문수암에서 겨울 한 철을 흡족하게 용맹정진한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니 단 한 철 겨울을 나기 위해 9개월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한 셈이었다. 혜암은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위해 전강 회상으로 떠났다. 〈계속〉


그림 · 최문정

지리산 상무주암 옆 토굴터에 문수암 불사 시작
낮에 일하는 것으로 정진, 밤에도 참선수행
새 암자에서 나 처사와 정진… 새 봄에 떠나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지 말거라 지금 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어라 그것이 공부다"



금강경 읽기 · 사십구재 효림 스님, 동시출간


효림 스님.

성남 봉국사 주지 효림 스님(前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이 <효림 스님과 함께 금강경 읽기>(새싹)와 <사십구재>(조계종출판사)를 동시에 출간했다.

<…금강경 읽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금강경>에 비유하고 인용, 일반인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책이다.

이 책에서 효림 스님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은 육조 혜능 스님의 무심(無心) 사상의 근원으로서 '무릇 있는 바 상(相: 고정관념이나 개념, 집착)이란 다 허망함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여래를 보느니라' 하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사상"이라며 "참된 인간상은 상이 없는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효림 스님은 "사회를 갈등에 빠뜨리는 이념의 노예나 지나친 확신주의자들, 광신적인 종교인들이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사회가 건강해진다"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나 잘 살려는 사람들에게 '불취어상 시명보살(不取於相 是名菩薩: 상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이름하여 보살이라 한다)'이라고 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십구재>는 종교를 뛰어넘어 유명인사들의 장례의식으로 정착되고 있는 불교의식인 49재의 유래와 의미, 의식, 절차 등을 강의형식으로 풀어쓴 글이다. 49재와 관련된 경전문구들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 부록도 첨부했다.

김성우 기자

노옹이 들려주는 "늙어도 날마다 새로운 날"

선도회 권영두 법사, '생활속의 참선…' 펴내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를 떨쳐 버려서 확실히 비워버리고 사니 현실이 살만하고, 늙어도 날마다 새로운 날로 맞으니 오직 좋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삶은 오직 '자작극'이라고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가참선단체인 선도성찰나눔실천회(舊 선도회)의 법사인 법장 권영두(80) 옹이 30여 년간의 참선 수행기를 진솔하게 기록한 <생활속의 참선수행 이야기>(운주사)를 펴냈다.

이 책에서 법장 거사는 "나는 참선수행을 익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자신을 본래의 밝은 상태로 확실히 바꿔버렸더니 날마다 좋은 날이다"며 "현실을 극락세계와 같이 천당이라 여기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법장 거사는 "사람의 마음이 허공과 물과 같이 텅 비고 무심(無心)하면 어느 경우에도 밉거나 곱거나 싫거나 좋아할 것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생활속에서 수행하고 살면 생로병사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번뇌 망상에 걸리지 않고 제 구실을 다 하며 저절로 무심한 경지로 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감나무에 열린 홍시처럼 완숙한 인생 법문을 쏟아내는 일이 어디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겠는가. 강산이 여덟 번이나 변한 깊은 연륜과 불혹(不惑)을 지난 46세의 늦은 나이에 만난 불연(佛緣)으로 삶의 달인이 된 것이다.

법장 거사가 참선을 시작한 것은 불교를 알고 나서도 8년 뒤인 54세, 이미 중년의 나이에, 그것도 사업상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만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가 간화선의 지도자였던 종달 이희익(1905~1990년) 노사로부터 입실(入室: 1대 1 점검)지도를 받는다. 이후 '무(無)'자 화두를 시작으로 '<무문관> 48칙(則)' 수행 과정을 마치고 이제 자신이 지도법사로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생활속의 참선…>은 이처럼 법장 거사가 참선에 입문한 계기부터 스승 이희익 노사와의 만남, 입실지도를 받으며 화두를 타파해 가는 치열한 용맹정진, 선후배 도반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아울러 참선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어떻게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자유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투박하면서도 진실된 글은 독자들을 참선의 세계로 이끄는 데 충분한 설득력을 준다.

법장 거사는 이 책을 인연 닿는대로 전국 대학가에 무료로 보시한다는 원력도 실천하고 갖고 있다. 참선 수행은 젊어서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권영두 법사.

선도성찰나눔실천회 선원 건립을 위해 살고 있는 집까지 아낌 없이 기증한 노 거사의 자비행은 참된 무소유(無所有)와 무념행(無念行)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생활속의 참선수행 이야기 | 권영두 지음 | 운주사 | 1만원

김성우 기자

'영산재의 문화콘텐츠 만들기' 김영렬 감독, 출판기념회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한국코메디언협회(회장 엄용수)가 김영렬 감독의 <영산재의 문화콘텐츠 만들기>(운주사 刊) 출판기념회를 연다. 행사에서는 간단한 영산재 및 코메디언들의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수많은 국내외 공연을 통해 영산재를 세계 문화계에 알려온 김영렬 감독(동국대 문화예술대 외래교수)은 영산재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해 현대화, 세계화 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최근 발간된 <영산재의 문화콘텐츠 만들기>는 김 감독이 오랫동안 방송 현장에서 KBS PD로 몸담으면서 체득한 현대적 연출기법을 토대로 영산재의 형상화, 무대화, 연희화를 통한 대중화를 모색한 책이다. (02)784-3400

김성우 기자

본지 연재 '조선왕릉…' 올해의 청소년도서에 선정

본지에 2년 동안 인기리에 연재됐던 <조선왕릉, 잠들지 못하는 역사 1, 2>(이우상 저, 다할미디어)가 '올해의 청소년 도서'에 선정됐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09 올해의 청소년 도서' 사업 가을분기 추천에서 선정된 총 30종의 도서 중 불교관련 도서는 불광출판사의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수행 이야기>(천진, 현현 지음)와 함께 두 권이 선정됐다.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뜰
2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3	그냥 무조건이야	대행	한마음선원
4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5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6	시인과 스님, 삶을 말하다	도법, 김용택	메디치미디어
7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	김상백	운주사
8	인과경	현담	선
9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혜담	불광출판사
10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구도 향한 고뇌 포착 김성동 문학의 원형

'피안의 새 복간' … '간추려 본 발자취' 추가



우리 문단 대표 작가들의 첫 작품집 복간 시리즈인 도서출판 책세상 '소설 르네상스'의 스물여섯 번째 권으로 김성동 작가의 <피안의 새>가 출간됐다.

복간된 <피안의 새>에는 초판에 실린 열 편의 단편소설 중 '나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새로 집필한 '간추려본 발자취'를 작품들 뒤에 수록했다. 작가는 자신의 이력과 작품의 원천을 밝힌 '간추려본 발자취'라는 고백수기에서 이데올로기의 상처로 얼룩진 어린 시절과 깨달음을 향한 젊은 날의 방황이 그의 문학적 원천이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출가 수행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본질 문제를 다루며, 섬세하고 유장한 필치로 한국전쟁이 남긴 아픔과 구도의 여정에서 존재의 근원을 탐구한다.

소설적 허구와 자전적 경험의 팽팽한 긴장 사이에 위치한 김성동 문학의 특성이 드러나는 <피안의 새>는 그의 히트작인 소설 <만다라> 이후 벌어진 사건들의 연속 같은 느낌을 준다. <만다라>의 '구도적 방랑'이라는 그의 문학적 화두가 <피안의 새>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옥성 평론가는 작품 해설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피안의 새'는 <만다라>에서 화두로 등장하는 호리병 속의 새이다. 호리병에 갇힌 새는 '피안에 놓인 새'가 아니라 '피안으로 날아오르고 싶은 새'로서, 결핍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 세계에서 깨달음과 중생 제도의 꿈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젊은 시절 작가의 자화상을 암시한다."

<피안의 새>를 통해 구도를 향한 고뇌와 번민이 현실과 동떨어져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모순을 껴안으면서 보편적인 삶의 진실로 다가가는 김성동 문학의 본질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김성우 기자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산사의 숲…'

본지 인기연재 '108사찰 생태기행' 네 번째 시리즈



무려 7년간 '108 사찰 생태기행'이란 코너를 본지에 연재한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의 '108 사찰 생태기행' 시리즈의 네 번째 책 <산사의 숲, 바람에 물들다>(지성사)가 출간됐다.

<산사의 숲…>은 홍천 공작산 수타사, 동해 두타산 삼화사, 부여 부소산 고란사, 논산 반야산 관촉사, 제천 월악산 덕주사, 문경 희양산 봉암사, 안동 천등산 봉정사, 상주 노악산 남장사, 양산 영축산 통도사, 나주 덕룡산 불회사, 해남 달마산 미황사의 가을풍광을 담았다.

이번 <산사의 숲…>에서는 특히 화려한 색상의 변화로 가을의 대표적 자연 풍광으로 여겨지는 단풍나무의 붉은 단풍이 알고 보면 치열한 종족 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알려 준다. 단풍이 물드는 현상은 자신의 영역 주변에 다른 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독을 분비하는 일종의 타감 활동의 하나라고 한다. 단풍잎의 한 성분인 안토시안이 다른 종들에게는 독성으로 작용하여 단풍잎이 떨어진 자리에 다른 수종들이 생장할 수 없어 이듬해 봄이 되면 그 주변에는 단풍나무 묘목만 자라게 된다는 것. 아름답게만 보는 자연현상이 자연 속 그들에게는 치열한 생존임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저자는 자연 속 동식물들끼리의 경쟁 외에 우리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변화도 경계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물길을 바꾸거나 지형에 변화를 주는 것에 주목한다. 물길이 바뀌면 지형과 식생이 바뀌고, 이로인해 곤충과 조류상도 변화되기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보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사의 숲…>은 숲속 생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숲으로 존재하는 사찰의 문화유산까지 생태적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어, 절과 숲에 처음 눈 뜨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산사의 숲, 바람에 물들다 | 김재일 지음 | 지성사 | 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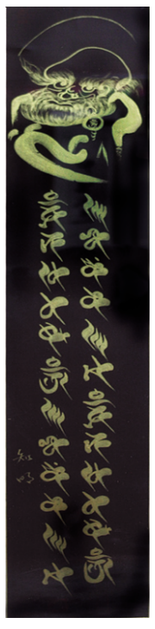
김성우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식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조계종, 15일 불교합창 페스티벌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1월 15일 오후3시 서울 KBS홀에서 '2009 불교합창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불교음악예술원(원장 이달철)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귀련)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불교합창단의 발전과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는 지난 10월 10일 예선전을 통과 후 본선 진출한 12개 합창단의 실력을 감상 할수 있는 '불교합창경연대회 본선'이 진행된다. 2부에는 불교음악을 위해 헌신하신 원로 불교 음악인들의 작품을 전국 7개 지역 합창단이 연합합창을 함으로써,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원로불교음악인을 위한 특별음악회'로 꾸며진다.

이번 행사에는 2008년도 대상을 차지했던 제주불교여성합창단의 축하공연무대와 불교성악가 20명이 참여하는 솔리스트 합창, 원로 최영철 선생님의 지휘로 연합합창 전체가 함께하는 대합창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많은 불교인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조계종 문화부는 11월 28~29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불교음악인 연수를 개최한다. 신청접수는 팩스(02-722-2606)와 메일로(nhk@buddhism.or.kr) 11월 20일까지 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은정 기자

최문정 작가 '젊음정신-축제'서 전시



중요무형 문화재 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인 최문정(사진)이 (사)한국미술협회 청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JUBILEE O' YOUNG MIND 2009(젊은정신-축제)에 참가해 작품출품 전시회를 갖는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와 신진작가 발굴, 대중미술의 활성화, 미술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100여명의 선정작가 부스전과 특별전, 실버전 오픈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스전을 하는 100여명의 작가는 추천과 공모를 통해 JUBILEE O'! YOUNG MIND 2009(젊은정신-축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작가들로 구성되며, 회화, 입체, 영상등 다양한 장르가 전시된다. 볼거리와 예술품이 함께 판매되며 참신한 작가들과 대중이 소통하는 국내 유일의 미술 페스티벌의 장인 JUBILEE O'! YOUNG MIND 2009(젊은정신-축제)는 11월 13~18일 서울 서초구 한전플라자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은정 기자

포교원·풍경소리 음원계약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좋은벗풍경소리(총재 지현)와 2차 음원계약을 맺고 1~28집 약 400여곡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무상으로 음원 배포하고 있다.

어린이 포교 전용 사이트인 키즈붓다(www.kidsbuddha.org)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곡은 비영리 포교로 사용되는 한 무상으로 다운로드와 활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에는 음원제공과 함께 악보, 듣기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된다.

한편, 어린이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좋은벗풍경소리는 올 겨울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를 위해 제작되는 풍경소리 29집에 실릴 노래의 노랫말을 모집한다. 어린 불자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노랫말이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02)723-9836 이상언 기자

세세생생·평등 담은 30년 작업 한 자리에

장갑작가 정경연 교수 이중섭미술상 수상 기념전 5~15일



정경연 교수의 작품 중 하나인 '무제'(위)와 '어울림'.

'장갑작가'로 알려진 정경연 교수(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의 이중섭미술상 수상 기념展이 열렸다.

11월 5일 서울 조선일보미술관에서 개막식을 가진 전시회는 그녀의 30년 화업인생을 이중섭미술상 수상을 계기로 재조명 해보는 자리이다.

"작년에 제가 30주년 기념전시회를 열었어요. 공교롭게도 이런 큰 상(이중섭미술상)까지 받아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중섭미술상은 한국 근현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중섭 화백을 기리고, 역량 있는 중진 작가들을 발굴해 한국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1988년 제정됐다. 특히 상은 수상자 선정 후 1년 후 전시회를 열어 왔다.

정 교수는 세세생생(世世生生)과 인간평등의 이념을 장갑이라는 소재로 브론즈 회화 설치미술 미디어 판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해 왔다.

"1981년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작업해 온 저의 대표작만 모아 이번 전시회를 꾸몄습니다. 다른 전시회 때와 달리 좀 더 임팩트 있게 꾸며 보고 싶었죠. 현재까지 제가 발표하지 못했던 미발표 작품과, '무제' '블랙홀' 시리즈의 신작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경연 교수의 작품은 여러 장갑들이 뒤엉켜 평면과 입체, 조형과 비조형을 넘나든다. 수많은 장갑들을 통해 그녀가 표현한 것은 일체중생이다.

정 교수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무제' '블랙홀' 시리즈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무제'는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사상을 그녀 만의 예술세계에 담아보는 이마다 자유로운 사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블랙홀'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어 주고, 작품 '하모니'를 통해서는 모든 이들이 섞여 인연법에 따라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며 누구나 다 하나라는 평등사상을 말한다.

"제 작품의 손들은 내 손도 되지만 노동판의 노동자의 손, 어머니의 손 등 다양한 손들이에요. 윤회와 인연법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며 부처님 말씀처럼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었지요. 인연법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연에 따라 얽히고 설키며, 그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처럼 그녀의 작품도 얽힌 장갑들처럼 말 없이 세상법을 말한다.

정경연 교수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 더 좋은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며 사회에 헌신하는 것이 앞으로도 나의 할 일"이라고 전했다.

전시회는 15일까지 열린다. (02)724-6328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정경연 교수.

웅산표 재즈 그 깊은 추억 속으로…

웅산 '미스, 미스터' 발매… 자작곡 수록 등 열정 담아

파워풀하면서도 중저음의 보이스가 매력적인 웅산이 재즈가 잘 어울리는 가을에 한국 팬들만을 위한 스페셜 기프트 앨범 'MISS MISTER'를 발매했다. 'Love Letters' 'The Blues' 'Yesterday' 'Fall in Love' 등 총 4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매 앨범마다 화제가 됐던 웅산이 이번에는 제대로 '웅산표 재즈'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그녀만의 유감없는 끼를 발산했다.

이번 스페셜 기프트 앨범은 도시적이면서 세련된 재즈 리듬부터 한국적인 발라드의 서정적인 느낌까지 골고루 담고 있다. 또한 재즈에는 한국어가 어울리지 않다는 편견을 깨고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 신선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웅산은 이번 앨범에 자작곡을 수록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였으며, 시작하는 연인들의 만남에서부터 이별을 표현한 사랑이야기를 그녀만의 독특한 보이스로 9곡의 음악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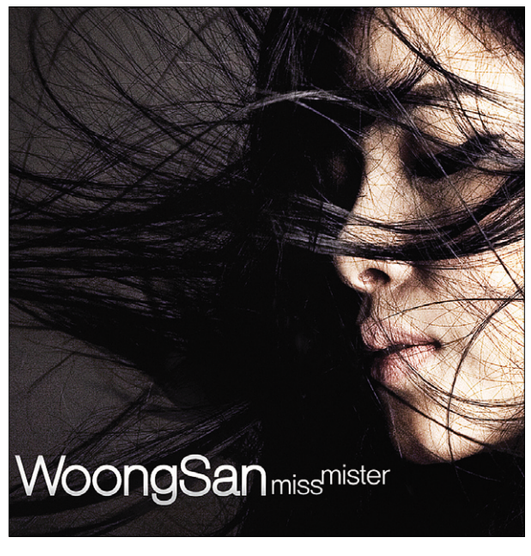
7월 일본 '삿포로 시티 재즈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으며, 재즈 디바로 자리매김한 웅산은 이번 앨범을 통해 그녀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도시적 모던함, 시크함을 고루 표현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영화 '그림자 살인' '미인도' '식객'등의 음악 작업에 참여했던 황상준 감독과, '박효신' '박화요비' 등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작곡가 신형, 첼리스트 김규식 등이 참여해 한층 더 품격 있는 앨범으로 탄생됐다.

웅산만의 강한 카리스마를 기본으로 한결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이 더해진 이번 스페셜 앨범은 보다 다양해진 스펙트럼과 웅산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웅산은 11월 15일 다시 일본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며, 내년 2월부터 일본 전국 라이브 투어가 계획 중이다. 또한 12월에 일본에서 웅산의 5집 앨범이 선행 발매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스페셜 기프트앨범 'MISS MISTER'를 발매한 웅산.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번 역 3.친지방문
2.공 증 4.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특별 결혼 정보
캄보디아=베트남=네팔



해성불원 자비회는 특별히 불자 가정 장애우님들께 봉사의 마음으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짝지어 주기 운동을 전계 하였습니다.

자격조건 = 생활능력 있는분

1. 직장증명서 (갑근세 증명)
2. 자가, 전세 계약서
3. 장애 급수 증명
4. 정신 질 환자 제외
5. 심사 규정에 맞아야 함

위와 같이 자격을 갖추신 분에 한하여 특별 우대 하여 모십니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 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쟈빌딩 1505호)

138회 부산 2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 날 짜 : 2009년 11월 14일(토) 저녁 9시 ~
2009년 11월 15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결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2개, 위생비닐장갑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손목,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부산 금정법당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경우빌딩 4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大韓國佛教曹溪宗
입종안내

총무원장 덕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창종한
大韓國佛教曹溪宗이 함께하실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시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비구니부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대한국불교조계종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번지 정토사
총무원 전화 02)379-5502 / 팩스 02)379-0843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52 밥은 현재-미장원 편<1>

미장원에서 파마하면서 밥 시켜먹기

오늘도 내 방 현관문에는 오만 식당의 전단지들이 도배되어 있고, 집 앞 쓰레기는 간밤에 다녀간 고양이로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다. 매일 지나가는 길목엔 그새 그 흔한 미장원이 두 곳이나 더 생겨났고, 집 앞에 삼겹살 집은 어느새 곱창 파는 집으로 바뀌어 문전성시다. 근처 소나무 숲에 모여 살던 백로떼들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가 없고,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아래에는 겨울철새들이 제집마냥 서둘러 자리를 잡았다. 너무나 익숙한 풍경도 눈에 제대로 담지 못하고 살아온 판에 요즘은 그 속에서 시나브로 일어나는 변화도 감지되는 것은 아마도 성숙해진 계절 탓일 테다. 소소한 익숙함도 소소한 새로움도 차차 인식되는 요즘, 나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한편 불행히도 나는 이 모든 행복을 여실히 느끼지 못한다. 그저 머리로 인식된 행복일 뿐이다. 동네의 정겨운 풍경도,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도 그 속에 속한 나도 그저 겉도는 삶의 그림자처럼, 붕 떠있는 아득한 환영과 같은 느낌이다. 요즘은 그 증세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다. 왜 나는 현재에 머물러있지 못할까? 스스로에게 던진 새 화두와 아무리 애써도 머리로만 이해되는 행복이란 감정을 떠안고 모처럼 동네 단골 미장원으로 나들이를 나섰다. 미장원에 들를 여유조차 없어 길어진 머리를 샤워할 때 석둑석둑 자르곤 했더니, 어느 순간 헤어스타일이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살갑기가 친자매와도 같은 미장원(머리향기: 054-772-2037)의 주인 신 언니와 그를 도와 일하고 있는 김 언니는 오늘도 여전하다. 손발만큼이나 마음이 척척 맞는 두 언니의 쉼 없는 수다로 오늘도 작은 미장원 안은 다정(多情)으로 넘친다.

"언니, 참 재주도 좋소. 혼자 거울보고 뒷머리까지 자르는 사람은 처음 본다.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데 아무리 시간이



미장원 주인 신 언니와 그녀를 도와 일하고 있는 김 언니는 살갑기가 친자매 같다.

없어도 그렇지, 다시는 그러지 마이소잉."

나의 심상치 않는 머리상태를 점검한 신 언니가 반가운 인사를 구박으로 대신한다. 요즘은 파마의 종류도 가지가지라 선택을 하기도 어지럽다. 단순무식한 내 고집으로는 자고로 파마란 뽀글뽀글해야 제격이니, 그러한 성향을 익히 아는 두 언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촘촘히 구루프를 말아준다.

"신아야, 오늘은 그냥 밥 시켜먹자. 이 집에서 시켜 먹어볼까?"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아 밥 때를 놓친 두 언니가 근처 새로 생긴 분식집에 주문을 할 모양이다. 시장기가 찼는가, 방금 전 음식을 주문한 신 언니가 구르프를 말고 창밖을 내다보던 내 옆으로 다가와 분식집의 배달 오토바이가 오기를 기다린다.

"가을이 되니까 기분이 좀 그렇다. 날도 쌀쌀해지고 뭔가 허전하네…."

밥 타령에서 뜬금없이 가을타령으로 넘어간 신 언니에게 "옛 애인이라도 생각나요?"라고 농을 던지니, "언니, 옛 애인 얘기는 하지도마래이. 옛날 애인이고 뭣도 읍다. 나는 첫 남자랑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일년도 연애 않고 결혼해 첫 해에 바로 애 놓고 살았재"라며 그 사연이 봇물 터지듯 한다. 주말드라마에서처럼 남녀 주인공의 사랑처럼 이룰 듯 말듯 한 애달픔이나 극적 반전도 없이 20대 초에 만난 첫사랑과 무난하게 결혼한 자신의 러브스토리가 맹숭맹숭했던지 신언니는 창피한 얘기라 어디 가서 말도 꺼내지 말란다.

"에고, 결혼하면 누가 이름 불러주는 사람도 읍다."

"내가 매일 '수아야' 라고 네 이름 불러주잖아."

두 언니의 바통을 이은 신세한탄과 위안이 의좋게 오가는 사이, 미장원 한쪽 테이블에는 배달된 참치김치찌개와 떡볶이와 오징어라면이 한 상 가득 차려졌다. 그런데 음식의 때깔부터가 당체 입맛에 댕기질 않으니 아니나 다를까, 먼저 수저를 들어 떡볶이를 시식한 김 언니의 입에서 "어우, 완전 소태다 소태"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계속>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11 사상체질2

네 가지 체질로 분류해 증상 치료

사상체질의학은 네 가지 체질로 분류하여 증상과 치료법을 달리 하는 우리의 독창적 한의학이다. 구한말 이제마 선생이 창안한 체질의학이다.

태양인은 머리가 명석하고 창의력이 뛰어나며 순간적인 임기응변이 강하다. 사람을 쉽게 사귀고 진취적이며 결단력이 뛰어나다. 사상체질 중 체력이 가장 강해 지치지 않고 일한다. 다만 계획성이 부족하여 돌발적이고 공격적이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는 억지가 있다.

폐대간소(肺大肝小)하여 폐 기능이 좋고 간 기능이 약하다. 숨을 쉬어 체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기를 주관하며 몸속이 산성도 조절, 효소와 호르몬의 합성 및 대사 등에 관여하는 폐기능이 좋다.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양이 많으면 건강하다.

좋은 음식은 새우, 굴, 붕어, 잉어, 가물치, 전복, 홍합, 가재, 조개, 오징어, 대구, 감, 자몽, 키위, 포도, 모과, 앵두, 수박, 사과, 올리브유, 돈나물, 배추, 오이, 상추, 감자, 토마토, 파, 현미, 메밀 등이다. 좋은 한약은 오가피, 모과, 솔잎, 녹차 등이다.

태음인은 과묵하고 인내심이 많다. 성취욕이 강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 말을 친절하게 잘 하며 이해타산이 빠르다. 하지만 욕심과 사치심이 있어 자기 실속이 없으면 좀처럼 움직이려하지 않는다. 속으로 교만하고 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며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간대폐소(肝大肺小)하여 간 기능이 강하고 폐 기능이 약하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영양분의 대사, 뇌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물질의 결합과 해독 등을 하는 간기능이 좋다. 구슬땀을 많이 흘리면 건강하다.

좋은 음식은 게, 결명자, 고구마, 고등어, 고사리, 국화, 꽁치, 다시마, 더덕, 도라지, 두부, 마, 매실, 머위, 명태, 무, 밤, 배, 살구, 소고기, 율무, 은행, 죽순, 참외, 참치, 치커리, 칡, 콩, 호두 등이다. 좋은 한약은 갈근, 도라지, 오미자, 맥문동 등이다.

소양인은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사상체질 중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편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상황판단이 정확하고, 주고받는 계산이 분명하며 필요이상으로 베풀지도 않지만 남의 신세를 지는 것도 싫어한다. 막상 일을 하면 잘 하는데 시작하기를 무척 꺼려하며 일의 마무리가 약하고 체력이 부족할 때가 많다. 계획성이 다소 부족하고 일이 안되면 체념이 빠르다.

비대신소(脾大腎小)하여 비장과 췌장의 기능이 강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하다. 소화를 주관하고 노폐한 적혈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지라가 강하고, 비뇨기, 생식기,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신장기능이 약하다. 대변을 시원하게 잘 보면 건강하다.

좋은 음식은 돼지고기, 복어, 광어, 새우, 해삼, 멍게, 굴, 오징어, 소라, 딸기, 수박, 자두, 유자, 바나나, 복숭아, 호박, 감자, 토란, 고사리, 검은깨, 녹두 등이다. 좋은 한약은 복분자, 산수유, 구기자, 금은화 등이다.

소음인은 머리가 총명하고 순발력이 좋으며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치밀하다. 외유내강형으로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전략이 있다. 총명한 머리에 비해 체력이 약하게 보인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강하다. 일은 조금만 하고 성과는 크게 얻고 싶어하며 남에게 인색한 면이 있다.

신대비소(腎大脾小)하여 신장 기능이 강하고, 비장과 췌장기능이 약하다. 인체를 성장, 발육시키며, 장기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시키고, 뼈와 골수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신장이 튼튼하다. 소화를 잘 시키면 건강하다.

좋은 음식은 갈치, 감초, 계란, 계피, 깻잎, 고추, 귤, 꿀, 닭고기, 대추, 들깨, 마늘, 메기, 멸치, 미역, 삼계탕, 생강, 시금치, 쑥, 양고기, 염소고기 등이다. 좋은 한약은 인삼, 백출, 당귀, 진피 등이다.

한양방센터삶 대표원장 이경제 (02-576-7575)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삼베훼이셜타올
각 ~~6,000원~~ ➔ 5,400원 (10%DC)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 수세미**



■삼베수세미
각 ~~4,000원~~ ➔ 3,600원 (10%DC)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각 ~~15,000원~~ ➔ 13,500원 (10%DC)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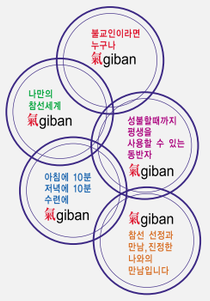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 의 할인 !!

불자생활정보 | 21 | 제 757호 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빼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최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불상 • 탱화

아주 저렴하게 판매
사찰에서 직접 조성합니다.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께만
판매합니다. 소량만 주문 제작해
드리므로 불교용품점에서도 판매가
불가능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불단 제작도 해 드립니다
043)857-1259

불교마음수련원생 지도

면벽, 좌선, 예불, 명상다례 등을
통하여 심,신의 장애제거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우울증, 자폐증, 만성피로 등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함.
(팔공산 묘적암 성인 합장)
011-9371-8080

역학.빙의.퇴마법 전수

명리학, 주역, 매화역수,
성명학, 풍수지리
실제감정 위주로
속성 지도해 드림
운명 전화상담 가능
010-7443-3060
도통 합장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명리학 대강좌

(사주학대비 체질의학 특별강의)
석진성 돈오전법원에서는 동양철학과
불교를 회통한 전법강의를 개설.
스님과 함께하는 방편과 깨달음
(근본 실상자리)으로의 여행에 많은
학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0-3045-0085

공양주 구함 신심이 돈독한불자

▷경북 청송, 부부도 가능
054)874-2226
010-4730-4350

참 좋은 명리학

명리학자 금당 이종수
(3대 복심법 명리학
선종 학파 이수자)
부산광역시 동구 동광동 5가
1-7 인쇄골목 2길.
010-5015-7175
명리학 상담가능

만물 만능 氣 잡기

사물의 진가, 마음의 진위, 사업성패, 미래예측
기풍수, 기사주, 원격투시, 내게 맞는 것 찾기
영강상태, 만물만능치유,
운명개척 등 수치까지 확인
시중철학이 아닌 100% 과학
누구나 쉽고 간편한 방법. 효과는 무궁
016-606-5658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서울에서 50분 거리.
산세 좋은 명당. 2만 5천여평에
대작 불사를 하고 있는 사찰 입니다
(현재 80%이상 완공중에 있음)
대작 불사에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실
화주 보살님이나 포교하실 보살님을
모시고져 합니다.
주지 스님 직접 상담
010-9240-0529

불사 함께 이루실 참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제천 서원사
043)644-4580
010-4543-45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041)545-6531
011-422-675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52)275-0829

요양 보호사 모집

1급 자격증
女 : 2명
(진천 정진원)
043)532-2072
011-213-7443

잠시 • 한 • 두달 100일
산사에서
쉬고 싶으신 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주인공 ?
031)674-7188
033)441-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010-3188-5103

사 람 찾 음

속명 : 장종인
법명 : 자혜
나이 : 갑오생 56세
위 사람은 부전으로 다니는
스님으로서 부당행위를 한 자임.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031)471-6675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조계종 노승이 상좌가 없어 40-50대
비구니 건당 상좌 뜻이 있는자로
평생 운영관리하면서 시봉할 인연을
찾고 있음. 그리고 40-50대 오랫동
안있을 대중도 없는 곳이니 조용한
곳을 찾고 있는 공양주 바람.
소백산 지장보궁
054)653-1180 경북
010-6353-1180

공양주 구함

앞에는 저멀리 산으로 둘러 쌓인
호수같은 바다요 뒤에는 황토산에
소나무가 울창하도다
물 맑고 공기 좋은 부처님 성지에서
함께할 공양주를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여수시 소재)
061)644-1244
010-4442-6789

큰 가람 사찰 운영 동참자

(불심있는 보살에 한함)
- 위치 : 부산, 대구, 울산에서 한시간 거리
- 신도수 약 2천명 이상의 사찰로 운영중임
- 약간의 투자 가능한 분

010-7714-3757

작은 절 전세 구합니다 연락주십시오

010-2680-5404

법당불사 인연 맺어주실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0-6419-5852
011-9977-3934

연등보살 모금 아르바이트

- 부부, 학생, 외국인
- 광역시 거주
- 이력서, 사진, 7일교육

(12월 1일부터 3월 30일 12시까지)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 208번지 만불사
043)745-3010
조계종 만불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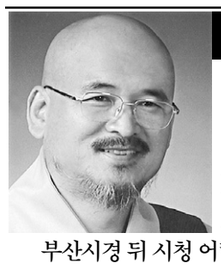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스님들께는 포교당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는 진정한
불보살의 가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암 운영에 필요한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등 부처님과 함께 하실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진실을 모르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성취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 진정한 피안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 자운정사 031)386-39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고(古)건축, 사찰 건축전문

전문적인 건축지식과 오랜 현장경험을 통한 완벽, 책임시공 보장
전통사찰 전문. 일반사찰 전문. 부속 건축물 일체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전문
010-6405-2060
061)741-1624 / 031)581-212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 보 암
- 주 지 : 혜명 (松尾仙姬)
- 주 소 : 大阪市 北區 本場西 1丁目 10-9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구단구궁법

※테 이 프 출 시
(교재 및 요점 상세히 설명)
- 구궁술로 1분안에 길 흉성패 명운을 꿰뚫는다.
- 타지방에 계신분은 교재와 테이프로 공부可 (교재 및 테이프 가격 30만원)
- 직접래방 개인지도時 (4주완성 수강료 50만원)
- 계좌번호 부산은행 233-12-045334-2 (박옥균)

금 어 산 방

부산시 도래구 온천2동 916-7
☎ (051)554-6040
010-8569-5695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대한불교조계종 청강사 혜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0-9506-5706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3억 2천

- 위치 : 인천
- 법당 : 25평
- 요사 : 25평
- 부지 : 50평
- 가액 : 4억

- 위치 : 경북
- 법당 • 요사 : 20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4억
- 고찰지 및 경관 최상급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70평
- 산밑
- 가액 : 2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경관수려
- 가액 : 3억 9천만원

- 위치 : 북한산
- 부지 : 150평
- 법당 : 35평
- 산밑
- 가액 : 4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및 토굴 안내

잔디마당 넓은 절

- 총대지 : 730평
- 법당(목조)22평, 산신각 및 요당
- 요사채 2동(목조) 30평, 17평
- 산세 전망 최고, 남향
- 50년 전통, 텃밭 300평
- 가액 : 3억 8천

- 위치: 부산시내
- 총대지 : 5,500평(건물 7동)
- 법당(목조) 70평, 관음전 50평
- 요사채 70평, 종무실 (3층)
- 자연동굴 20평, 용왕당 연못(300평)
- 추모관 납골 1,200기 분양 중
- 가액 : 36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동부산대학옆
- 평수 : 42평, 1층 요사채, 방3개, 거실
- 2층 법당 17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가액 : 1억 4천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비품(시설비) 1,200만원

011-9395-9411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김해 내동
- 평수: 50평, 법당 18평, 방 3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없음

011-9323-4478
010-3827-819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토 굴 안 내

- 위치 : 영천에서 경주방향 15분거리
  (경주IC 영천 IC15분 內)
- 대지 120평 작은 임법당
- 구옥(흙집)3칸, 연탄, 기름보일러 겸용
  새로 설치, 10년된 토굴
- 비구니 선객이 편히 짐 풀수 있고,건강을 살필 수 있고, 조용히 정진 할 수 있는 아늑한 토굴
- 교통편리(KTX10분거리, 내년 개통 신경주역)
- 가액: 5천만원

010-6717-17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
- 3층 25평, 법당 • 가액: 2억 2천만원

- 4층 25평 요사채 • 전세: 5천 5백만원
  아파트 밀집지역, 옥상 전체 사용가능
  (창고, 텃밭)

031)970-9008
011-9005-7007

고찰사지안내

- 부산 근교 가야시대 창건한
  문화재 보존 사찰임
- 문화재 발굴 후 건축할 수 있음
- 대가람 중창의 대력 원력의
  인연만 연락요
- 약 700평 • 가액: 5억 5천

055)273-0053
010-3571-0042

천하절경 사찰적지

- 충북 청원군 미원면
- 7200평(현 펜션성업중)
- 옥하구경 중(9경)박대소
- 다음카페 "송죽헌"
  동영상 참고

010-6393-0794
010-8336-271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 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5억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2분거리)
- 평수: 약 42평(2층)
- 구조: 법당 약 20평(삼존불 모셔있음)
- 방2개, 주방 겸 거실,
  단독 남, 녀화장실 (약 22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포교원최고요지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 시장부근
- 평수 54평(현 법회중)
- 4층건물 중 3층(관리비 無)
- 시설완벽 법당1실, 방 4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원(올 전세 가능)
  시설비 1,500만원

055)372-356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50평 전 120평
- 임법당 15평, 큰방 2칸 작은방1
- 삼존불, 지장불, 산신각 2평
  집기 일체
- 비구니스님기도처 적합
- 가액: 8,500만원
- 꼭 필요 하신분 연락 주세요

011-340-5963
010-6667-5778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 40평
- 2층 건물에 2층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032)549-2088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북부 마을끝집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평수 대략 250평
- 문중땅. 건물 시설비 7900만원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여수 돌산
- 땅 250평 • 건물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채, 요사채 1채
- 사찰 앞 큰 저수지
- 가액: 2억 5천만원

011-9765-53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광역시(재래시장부근)
- 4층건물에 3층과 4층
- 3층은 법당, 상담실
- 4층은 요사채
- 가액: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즉시법회가능

051)638-113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구리시 교문동
- 3층중 2층 50평. 대로변
  앞 뒤 산이 보이는 전망
- 법당 25평, 방 3개, 주방 大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없음

011-9342-9794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금정시장 입구)
- 2층 , 평수 : 약 50평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7백만원

010-4432-27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
- 부지: 1,2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35평, 공양실 20평
- 전체 기와 단청
- 가액: 5억 5천만원

010-3967-004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50평,
- 심야전기, 신전자제품완비
- 방4개, 법당, 공양간, 욕실2개
- 법당내부신도실완비
- 몸만 들어 오면 즉시 법회 가능
-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스님 건강문제로 급 양도

010-6564-8088

암자터 임야 안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
- 특징 : 암자터 좋은 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9천 5백만원

010-7325-1259

전통사찰(급)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27억 5천만원
  (금액조정불가)

010-6227-5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2 억 (가격절충)

010-5430-396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 동부지청 부근
- 3층건물에 2층
- 평수 : 30평
- 가액 : 2천만원, 월 20만원

051)782-0110
010-3101-115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 사시사철 계곡에 물이
  흐르고 사용은 토굴 별장
- 대지: 198평, 건물 30평
- 개인하천부지 38평 무료
  드림, 합 236평
- 가액: 1억 8천만원

010-3088-313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평수: 약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월 20만원
- 시설비 집기일체 1,500만원
  (절충가능),시세 반값도 안됨

051)503-0908
010-2291-55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2,800평, 대지 4,000평
  건평 720평
- 대웅전, 산신각, 대문종각,
  요사채, 법당, 나한전, 식당 외
  일체 모든 시설 완벽
- 가액: 융자포함 20억

010-8281-878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
  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동
  (전철 3백미터 대로변)
- 평수 : 30평(4층의 3층)
- 가액: 보증금 4천만원에 월 75만원
  시설비 3백만원
- ※ 원목 불단 3조, 운각 3조,
  바닥 전기필름시설,
  즉시 법회 가능

02)762-003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 평수 약 50평, 삼불, 소불 53위,
  신중탱화, 종
- 방 5(큰방1, 작은방3, 공양간1)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1-9987-41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 부지 : 17,000평
- 법당 신축허가 필
-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 수려한 지역
- 법당(가건물), 요사, 화장실,
  전시시설. 유
-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918-033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위치 최상
- 건물 : 2층 중 2층
- 평수 : 47평
- 방2, 공양간 등 시설완벽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612-2575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 총평수: 328평
- 임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 가액: 1억 5천만원

010-4660-538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은천동
- 평수 : 3층에 3층
  50평(옥상사용)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싸게드림

010-3550-11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시 모란시장 뒤
  공설운동장 후문 입구
- 평수: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 최신시설

011-857-3775
031)755-3775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
나무 꽃 잔디 가꾸며 남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 2,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60평
-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신중,
  산신, 영가단 각단후불탱화
- 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010-6278-1488

별장 및 토굴 가능한 집 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 거실에서 남한강 보이고 옆에 계곡물 흐름
- 토지 330평(4필지), 건평 75평
- 큰방 4개, 대형거실1, 화장실 3
- 지하수+상수도 잔디마당
- 가액: 2억 7천만원 (융자1억 2천포함)

010-4736-3567

암 자 터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역전 3분거리 도로 접
- 대지 400평 • 건물 21평 포함
- 가액: 평당 10만원

- 대지 470평 • 가액: 평당 5만원
- 복바위 앞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음

010-5048-9949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절충가능)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사찰 및 전원 주택지 안내

- 사찰,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 부지151평, 인법당40평, 요사20평
- 산신각, 창고, 심야보일러시설등
- 가액 : 2억5천(전세가능)

- 전원주택지, 경남 거제시 전망 좋은 바닷가
- 지방도로 옆(약860평)
- 약32평 복층 건물 있슴
- 가액 : 5억

010-6369-1191

암 자 안 내

- 위치 : 창녕 남지IC에서 5분거리
- 탁 트인 전망, 조용하고 공기 좋은 넓은
  호수에 물안개 뜨면 한폭의 그림같은 곳
  호수가에 연꽃이 피면 정말 꿈같은 곳.
- 암자 별장이나 전원주택 생활 즐길 분
- 대지: 463평, 집 3동 전(밭) 465평 (주인직)
- 가액: 평당 29만원

010-7731-3721

암자 터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삼태안
- 대지: 200평(전포함), 총 755평
- ㄱ자형태의 온돌 방구조, 기초공사완료
  23평, 17평 정도의 건축가능
- 수도 및 서울봉은사황토벽돌납품회사1800장
- 급히 집 지으실 분만 연락
- 삼태안 천년동굴에서 흐르는 물 단독사용
- 설계 또는 명의 변경가능, 주변 혐오시설 없음
- 급 양도가 6500만원

010-6460-1316

757-232009.11.92:33PM페이지1(1,1)

이학이 불교 · 도교 교의 섭수해 사상적 주도권 장악

<45> 명대(明代) 제왕(帝王)의 불교정책



그림 · 김홍인

명대(明代)에 들어서면서 통치자들은 점차로 이학(理學)을 통치이념으로 삼게 됐다. 그에 따라 불교는 점차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불교의 쇠퇴는 '이학'이 불교와 도교의 교의를 충분히 섭수해 사상적 주도권을 장악한 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최고 통치권력인 황권에서 엄격히 불교통제책을 채택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이는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즉위 초에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해 짐은 제유(諸儒)와 함께 치도(治道)를 논해 밝히겠노라"(<명사(明史) · 태조기(太祖紀)>권2)라고 선언한 것에서 짐작된다.

주원장은 본래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16세에 고아가 돼 기근을 피하고자 호주(濠州; 현 安徽省 鳳陽)의 각황사(覺皇寺)로 출가했다. 이러한 경력은 주원장으로 하여금 원조(元朝)가 지나치게 불교를 숭상해 발생한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게 했다. 그는 25세에 '불교타도'의 기치를 내건 도교의 반란군인 백련교도 곽자흥(郭子興)의 부하였다. 그 후 뛰어난 전공을 세워 반란군 지도자가 돼 명왕조를 세웠다. 명조를 세운 태조 주원장은 본격적으로 불교를 정돈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홍무(洪武) 원년(1368), 태조는 금릉(金陵) 천계사(天界寺)에 '선세원(善世院)'을 설치해 혜담(慧曇) 대사를 종이품(從二品)에 해당하는 관직을 내려 '연범선세이국종교대선사(演梵善世利國從敎大禪師)'라고 칭했다. 그 밑에 통령(統領), 부통령(副統領), 찬교(贊敎), 기화(紀化) 등의 승관(僧官)을 둬 전국조직을 만들어 불교를 관리했다. 홍무 14년(1381)에 '선세원'을 '승록사(僧錄司)'로 개편해 전국 승가조직을 더욱 완비했다. 다음 해인 홍무 15년(1382)에는 전국사찰과 승려들을 선(禪) · 강(講) · 교(敎)의 셋으로 분류하도록 명했다. '선'은 선종을 가리키고, '강'은 천태 · 화엄 · 밀교 등 종파를 가리키고, '교'는 구복(求福), 천도재, 공양 등의 각종 의식(儀式)을 가리킨다. 또 각각의 승복을 엄격히 규정했다. '선승'은 다갈색인 옷과 홍조 옥색의 가사를, '강승'은 옥색 옷에 홍조 천홍의 가사를, '교승'은 백의와 흑조 천홍의 가사를 착용하도록 하고 결코 섞이지 않도록 했다. 또, 같은 해 사전(寺田)의 매매를 금지하는 조칙을 내려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사원을 통제하려 했다.(<석감계고략속집>권2, <속불조통기>권2 등 참조) 이러한 태조의 사원통제 목적은 민중의 조직과 사찰이 결합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에 있었다. 이는 원말(元末)의 반란이 주로 불교와 도교 등의 사묘로부터 조직돼 일어났던 것과 태조 본인도 승려출신이었던 것에 기인했다.

홍무 24년(1391)에 태조는 <신명불교방책(申明佛敎榜冊)>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지금 천하의 승려는 대부분 속인과 섞여 있고, 오히려 속인보다 못한 자가 매우 많다. 그 가르침에는 귀의했지만 그 덕행을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당시 불교의 현황을 진단하고, 선 · 강 · 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권유했다. 특히 선종에 대해서는 "대중을 모아 총림(叢林)을 이뤄 청규(淸規)로써 안선(安禪)하라"고 해 산림에 은둔해 수행하기를 권유했다. 만약 이를 어겨, "총림에 들어가지 않고 사사로운 권속이 있거나, 민간에 몰래 머물러 사람들에게 고발되거나 관부에 불잡히면, 반드시 머리를 베어 대중에게 보이고, 숨겨준 자는 3000리 밖으로 유배 보낸다"(<석감계고략속집>권2)라고 엄격히 규정했다. 이렇게 선종에 대해 특히 통제를 강화하는 까닭은 당연히 당시 민중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종파였기 때문이다. 또한 <신명불교방책>에서는 도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승록사에서 도첩을 발급하는데 비용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수와 자격에 대하여 철저하게 통제했다. 도첩은 3년에 1회로 규정했고 남자는 4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3년에 한 차례씩 시험을 치러 불합격하면 도첩을 회수했다. 또한 각 주(州)와 현(縣)에 사찰과 승니(僧尼)의 수를 엄격하게 한정했다.

홍무 27년(1394), 태조는 다시 방문(榜文)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승려가 도시와 촌락에 들어가 모연(募緣)함을 금지시켰고, 관부와 교류하는 것도 불허했다. 나아가 일반인이 이유 없이 사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금지시켰으며 "주지나 모든 승려가 감히 관부와 교류하거나 속인을 친구로 하는 자는 중죄(重罪)로 다스린다"라고 규정했다.(<석감계고략속집>권2) 이러한 조치는 민중과 승려가 결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려는 의도로서, 당시 건국초기의 불안정한 정세와 태조의 완전한 중앙집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태조의 정책은 양송(兩宋) 이후 기울어져 가는 선종을 비롯한 전체적인 불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명대(明代) 통치자들 엄격히 불교통제책 선택
교의 제창 이루지 못하는 불교정책 침체기

태조 주원장이 죽자 손자인 주윤문(朱允炆)이 건문제(建文帝)에 오르지만,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주체(朱棣)가 이른바 '정난(靖難)의 역(役)'을 일으켜 4년간의 전쟁을 통해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에 올랐다. 그런데 모반의 과정에서 도연(道衍) 선사가 모사를 맡았고, 제위에 오른 후 도연 선사의 공훈을 '제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성조는 불교에 대해 태조와는 달리 우호적이었다.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영락 18년(1420) 성조는 <법화경> 서문을 찬술했다. 다시 친히 <신승전(神僧傳)> 9권(<대정장>50에 수록)을 찬술하기도 했다. 또한 영락(永樂) 18년에는 "황제가 경전의 서문 13편, 보살찬(菩薩贊)의 발문(跋文)을 12편을 찬술해 각각 경전의 머리에 실었다"(<석감계고략속집>권3)고 한다. 성조가 태조와는 달리 불교에 우호적이었던 것은 도연 선사(후에 황명으로 요광효(姚廣孝)의 속명을 사용함)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성조 역시 기본적으로는 태조와 마찬가지로 유학(理學)을 통치사상으로 삼는 한계가 있었다. 성조는 반복적으로 "짐은 유가의 도로 천하를 다스린다.", "짐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쓰는 것은 오직 유가의 오경(五經)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불교와 도교를 힘을 다해 숭상하지만 조상을 모시는 예를 소홀히 하는 것은 화복(禍福)의 설에 빠져있을 뿐으로 그 근본에 어둡기 때문이다"(<명사(明史)> 권7 <성조기(成祖紀)>)라고 해 불 · 도 양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조의 불교보호정책은 자칫 꺼져버릴 위기에 처한 중국불교에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이후에 명조의 제왕들은 대체로 불교를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영종(英宗)은 독실한 불교도인 환관 왕진(王振)에게 명해 경도(京都; 北京)에 대흥륭사(大興隆寺)를 짓고서 '천하제일총림(天下第一叢林)'의 사액(賜額)을 내렸으며, 헌종(憲宗)은 승려들을 예우해 '법왕(法王)', '불자(佛子)', '국사(國師)' 등의 칭호를 무수히 내렸고, 그러한 칭호를 받은 스님들은 모두 자금성에 출입하도록 했다. 또한 신종(神宗)의 모친(聖母慈聖宣文明肅皇太后)이 불교에 귀의해 스스로 '구련보살(九蓮菩薩)'이라는 법호를 사용했고, 수많은 사찰을 건립했다. 신종 역시 불교에 상당히 관심을 보여 만력(萬曆) 12년(1584) 영락제 시절에 만들어진 <대장경>(永樂南藏)에 결여된 부분을 보충해 <속장경>을 간행하고, 친히 <어제신간속입장경서(御製新刊續入藏經序)>를 찬술했다. 또한 무종(武宗) 주후조(朱厚照)는 즉위한 후 하루에 4만 여 승려를 출가시켰다. 정덕(正德) 5년(1510)에는 스스로 '대경법왕(大慶法王)'의 칭호를 사용했고 자주 승의(僧衣)를 걸치고 다니며 궁내에서 널리 불법을 강의했다.(<석감계고략속집>권3) 그러나 세종(世宗) 주후총(朱厚熜)의 재위기간(1522~1566)에는 황제가 도교를 신봉해 불교에 대한 극심한 억압정책을 실시했다. 세종은 스스로 '영소상청통뢰원양묘일비현진군(靈霄上淸統雷元陽妙一飛玄眞君)'으로 칭하고 도사들을 궁내로 출입시키며 밤낮으로 도교의례를 행했다. 이와 동시에 세종은 1만3000여 불상 등을 훼손했다. 무종이 정덕연간에 주조한 불상의 도금 1천3천량을 벗겨내기도 했다. 명대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도첩의 매매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대종(代宗) 경태(景泰) 2년(1451) 조정은 구황과 군비조달의 명목으로 도첩을 매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도첩의 매매는 공식화돼 점차로 삿된 무리가 넘쳐나 승가의 우환이 돼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담연원징(湛然圓澄) 선사가 찬술한 <개고록(慨古錄)>의 "혹은 큰 사고를 치고 승려가 되었고, 혹은 감옥에서 도망 나와 승려가 되거나, 혹은 빚을 갚을 수 없어 승려가 되었거나, 혹은 승려이면서 처를 거느리고 진속(眞俗)의 '쌍수(雙修)'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부부가 모두 승려가 되어 함께 절에 머물거나, 혹은 남녀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사찰에 머물거나 온갖 이들이 승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문구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명대의 불교정책은 비록 몇몇 황제가 불교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태조로부터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통제를 통하여 '억불'의 기조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명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교의의 제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 그에 따라 명대는 불교를 중흥하고자 하는 고승들과 거사들의 반성적인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는 시기였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정보 757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마산역 시장 내
● 포교원 인수하실 분
● 방2, 삼존불, 탱화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약간 있음
011-8686-09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언양 (인접) 부근
● 매우 발전적 사찰 운영 중심
● 가액 : 2억 정도(절충가)
017-559-8904

지리산자락 고요한 암자
● 총 650평
● 대지 320평
● 건물 : 황토건물 4동
● 수행 정진 하실 분
● 가액: 1억 5천만원
055)882-03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지리산 줄기)
● 총 8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2, 방 4개,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 최고 명당
● 가액: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교원(급)안내
● 위치:경북 칠곡 약목기차역 맞은편
● 평수 : 약 45평 (시설 완비, 공기 청정) 법당,삼존불,방2,주방,화장실
● 2층건물 중 2층(옥상사용)
● 보증금 1,500만원 / 월 1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54)974-0307
017-217-191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011-452-8374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지
● 대지: 80평, 법당 15평
● 요사채, 방5개, 거실 1, 주방 2
● 가액: 2억 3천만원
● 주인직접, 절충 가능 함
011-792-8969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시내 대로변
● 3층건물 중 3층 5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최고시설, 방2, 주방, 욕실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2)274-1113
010-8301-27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면적 65평
● 방 4개, 다용도실, 임법당
● 삼존불, 냉난방, 완벽 설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실비 상의 타사찰 소임으로 급 양도
018-622-9865

작은 암자 구합니다
● 조건: 산속 또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 원함
● 경남 지역 원함
010-4555-2325

포교원(급)안내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 3552-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 바다가 보이는곳
● 평수 117평
● 법당: 20평 목조건물
● 요사채 4동,산신각, 용왕당, 석탑
010-9798-1091
영주불사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최고 위치, 최고 시설
● 삼존불,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 42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약간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세요
010-5453-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 도로
● 3층건물에 2층 ● 평수 : 30평
● 가액 :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00만원 보증금은 조절가능
051)782-0110
010-3101-1151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 평수 대지 400여평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약사여래불 대세지보살, 칠성
● 소부리 100불,완벽한 법당으로써 즉시 법회가능
● 사찰내 주차가능 IC에서 2분거리
● 사찰 앞 경관이 좋으며 산 경치가 수려하며, 등산로를 끼고 있다
● 가액: 2억
010-9418-5938

사찰(종무원)안내
● 위치: 대구 중심 요지(지하철역)
● 건물전체(3층), 주차장 등
● 포교, 교육, 총무원 적지
● 최고시설(법당, 종무원, 후원, 난방 등)
● 전체 7,0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010-6780-627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시 풍동 종교시설
● 사찰로 최적지임
● 대지: 480평, 건평 50평
● 가액: 1억 8천만원 (융자 3천 2백만원 포함)
016-472-5654

부산대 사찰안내
● 대지: 300평(법당 및 요사찰)
● 국유지:(산) 450평 점유(사용료지불)
● 20년생 벚꽃나무 50주, 목조 법당(25평) 목조 요사(30평)
● 단층 벽돌로 요사채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당, 종각, 약사여래상(15층)
● 지하수 사용, 창고(2동), 화장실(2동)
● 심야보일러, 사찰내 주차(20대 이상)
● 가액 : 10억
051)302-3100
016-430-7789
010-6560-47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송파구 전철역에서 3~4분거리
● 4층중 2층, 실평수 약 50평 ● 시설: 방3, 부엌1, 화장실
● 아미타석자반동굴, 지장보살2자반 동굴, 관세음보살2자반, 후불산신탱화와 합 60평
● 모든시설완비, 집기일체多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스님 사정상 급히 양도
010-5336-8875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⑫ 만생 진홍수

진홍수 전통에 대한 개성적 재해석 담겨

17세기 중국, 명말청초의 혼란기에 망국의 유민으로 기인적인 삶을 살면서도 독보적인 예술 스타일을 통해 후대 화가들에게 회화적 영감을 선사한 걸출한 화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진홍수(陳洪綬, 1599~1652). 같은 시기, 차 문화에 있어서도 오래도록 기억될 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차를 좋아해서 자사호(紫沙壺)를 집적 디자인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시문을 서각하기도 했는데 훗날 이렇게 만들어진 다호는 그의 호를 따서 '만생호'라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았다. 같은 시대를 살았으나 다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두 인물이 사실 동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 만생호의 '만생(曼生)'은 바로 진홍수의 호인 것이다. 그림뿐만 아니라 차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던 진홍수였기에 그의 예술세계에는 문인적인 전통성과 새로운 예술적 요소들이 아우러진 복합적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



만생호(曼生壺), 중국 당운예술관 소장(위), 진홍수(陳洪綬), '정금품명도(停琴品茗圖)', 견본설색, 76x54cm, 개인소장(아래).

오늘 소개하는 진홍수의 그림인 '정금품명도(停琴品茗圖)'는 두 인물이 악기 연주를 잠시 쉬고 차를 마시며 품평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문인의 차회는 그림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이지만 진홍수의 표현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우선 그림 안에는 동진시대의 화가 고개지에 의해 성립된 고식의 표현방식이 눈에 띈다. 인물과 주변 경물을 제외한 모든 배경은 생략됐으며 인물들의 의습 표현도 옛 방식을 따라 평면적으로 그려져 신체 골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그림이 단지 과거의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참신하면서도 희극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인물들의 얼굴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옷주름의 표현보다 더욱 섬세한 붓질로 그려낸 얼굴표정은 마치 특정인물의 초상화를 그린 듯 생생하다. 화면을 등지고 주인공과 마주앉은 인물도 정면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는 표정에서는 깊은 의중이 읽힌다. 또한 각이 진 바위 질감에 맞추어 옷 주름의 곡선 표현을 조금씩 굴절시킨 부분은 배경과 인물이 한데 어우러져 개성적 얼굴 표현을 한층 돋보이도록 만들었다. 다완을 들고 있는 인물들의 주변에는 군데군데 찢어진 파초 잎과 비단에 싸인 채 석상(石床) 위에 놓인 거문고가 있어 소박한 듯 운치 있는 이들의 만남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오른편에 만개한 연꽃이 이 모든 풍경을 투명한 흰빛으로 장식하고 있다.

과거 한족이 융성했던 시절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기법적인 복고주의를 넘어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진홍수가 표현한 전통에 대한 개성적인 재해석은 현재와 과거가 같은 공간에 융합되면서 기이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체적으로는 품다의 정경이 지닌 품위를 잃지 않고 있어, 그림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개성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물표현뿐 아니라 다구의 묘사에 있어서도 드러난다. 인물의 오른편에는 청색과 붉은색으로 채색된 기괴한 모양의 바위가 마치 고대 청록산수화에 등장하는 암산처럼 신비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데 그 앞으로는 탕병이 놓여있는 화로와 함께 당시 사용하던 다호가 섬세하게 묘사돼 있다. 사실적으로 표현된 다호가 신비한 느낌의 괴석과 한 자리에 어우러진 모습이다. 다호가 놓인 공간을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한 그림이 드문 점에서 보아도 진홍수의 다호에 대한 애정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정성껏 그려진 다호는 당시 상류층이 애호하던 자사호이다. 자사호는 본래의 차색과 맛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특성 때문에 청대에 유행한 산차와 보이차를 가장 잘 담아내는 다호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진홍수가 직접 디자인하고 명문을 조각해 넣은 만생호는 공예품 안에 문학적인 미감을 보탠 것으로 당시 자사호의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

차 문화가 종합 예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다의 발전뿐만 아니라 진홍수와 같이 문화적 역량을 갖춘 인물들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다. 진홍수는 그의 예술을 통해 과거와 현실의 기법을 융합시키고 실용과 순수예술을 접목시켰다. '호(壺)는 글자를 통해 귀함이 있고, 글자는 호를 통해 전달된다.'는 말처럼 이를 통해 각각의 문화는 보다 종합적인 감상의 차원으로 격상됐던 것이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⑨ 석주 스님 가시던 날



만장이 일어선다. 슬픔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중은 울고, 마지막이 아니라면서 법구는 길을 나선다. 2004년 11월 18일, 석주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가 부산 범어사에서 있었다. 영정은 낙엽 위를 걷고 있었고, 깊어가던 산문의 풍경은 잠시 시절을 놓은 듯했다.

불이 들어간다. 스님은 '나고 죽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상사라 했지만, 불길 끝에 매달린 시선들은 스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 스님은 부처님 곁으로 가셨고, 도자기를 끌어안고 글씨를 쓰던 스님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스님의 마지막 법문도 끝이 나고, 대중은 한 줌 연기 속에서 스님의 마지막 글씨 한 점씩을 받아들고 겨우 돌아갔다.

詩가 있는 도량

■ 운주사에서

남행길에 에돌아 들른
운주사, 千佛들
한참을, 들여다보니

아비 얼굴
아이 얼굴
내 얼굴

내가 건너온 전생이
저리 쓸쓸하고 무섭게
천년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제 다시, 어디에서
천년을 기다려야 하나, 생각하니
열두 근의 그늘에 뼈 마르는 소리들

–김병호, 〈시와 시학〉 10월호

옛 판화의 세계

무업 스님이 말끝에 깨닫다
무업돈오(無業頓悟)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무업 선사가 스승인 대적 선사(마조도일)와의 법거량을 통해 '마음이 부처'라는 말씀의 뜻을 환하게 밝혀 깨우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무업(無業)은 산서성 서남군의 분주지역에서 널리 선풍을 드날린 분주무업(759~820)이다. 속성은 두씨로 신장이 6척을 넘었고 말투는 범종처럼 위엄이 넘치고 장중했다. 경전에 해박해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화엄경> 등에 뛰어났으며 특히 <열반경>을 오랫동안 강의했다. 불경의 진리에 통달했다고 해 대달국사(大達國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업 스님이 대적 선사에게 정례하고 말했다. '오직 삼승의 글과 학문은 대략 그 뜻을 궁구했습니다만 일찍이 듣건대 선사께서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아직 환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적 선사가 말했다. '아직 환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 그것도 별다른 물건은 없다. 환하게 밝지 않을 때는 곧 헷갈리고 있는 것이며, 만약 환하게 밝아지면 곧 그것이 깨달음이다. 헷갈리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다. 도는 중생을 떠나지 않는 것인데 어찌 중생 이외에 따로 다시 부처가 있겠느냐? 비유하면 마치 손이 주먹이 되는 것과 같다. 완전한 주먹 그것이 곧 손이다.' 무업 스님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크게 깨달았다. 이때 무업 스님은 말했다. '본래 생각하기를 불도는 길고 먼 길이라 생각해 오랜 세월 부지런히 고행해야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법신의 실상이 본래부터 스스로 구족돼 있고 만법이 마음에서 생기며 오직 이름만이 있을 뿐 실상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법거량을 하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의 마음과 헷갈리는 중생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무업이 '평상심시도'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스승은 제자에게 깨달음의 마음과 깨닫지 못한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님을, 손이 주먹이 되는 것과 같이 완전한 주먹이 곧 손이라는 비유로써 깨달음을 도와준다. 깨닫지 못해 헷갈리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이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요, 내 속에는 어떠한 죄업에도 물들지 않는 불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무업돈오(無業頓悟)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사찰 화재보험 안내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0-7344-1881



대행 스님

악과 선을 다 흡수해서 둘 아니게 응용할 수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오늘 저녁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오?" 이러고 할 때 "산 입에 거미줄 칠까. 다 살게 되겠지. 먹게 되겠지." 하고 부지런히 나가서 찾아보면 그날 굶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은 거기에 신경을 좀 안 쓰지만 그때에 이 절이 저 안쪽 요사채만 있고 아주 가난했을 때죠. 그런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의 자손이 뭘 훔치러 왔어요. 그래서 붙잡아서 물어보니까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쌀 한 가마 반인가 있는 거를 다 몽땅 줬어요. 식구가 여럿이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주고선 사시 마지때 사시 공양을 올릴 것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올리기 전에 말이에요, 쌀 세 가마니가 들어옵디다. 그게 내가 한 겁니까? 부처님이 계시면 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안될 거고 만사가 태평하죠, 뭐. 그렇게 생각 안돼요? 하하하. '내 자불이 있으면 될 거고 없으면 안되고 그럴 거니까 너만이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맡기고 하세요, 뭐든지요.

질문자5(여):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스물세 살에 냇가에서 빨래하다가 발에 병이 나서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올해가 육십, 환갑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놈의 발이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낫고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당장 다리를 자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젊은 나이에 다리를 자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아저씨가 데리고 왔어요. 와서 아무리 좋다는 약을 다 써도, 나아가지고도 또 한 2년 되면 도로 재발하고 3년 되면 또 도로 재발하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에 내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스님 한 번 친견하고 발이 또 나았어요. 나아가지도 한 이십 일을 발이 그렇게 또 아팠습니다. 아주 참, 물도 어떻게 못 데워 먹을 정도로 발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또 스님한테 와서 친견을 해서는 스님 하라시는 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발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지금 내가 이 선원에 나온 지가 한 3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발이 지금 완전히 내 마음으로는 나은 것같이 참, 상태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러니 우리 스님한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말로 감사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나은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나은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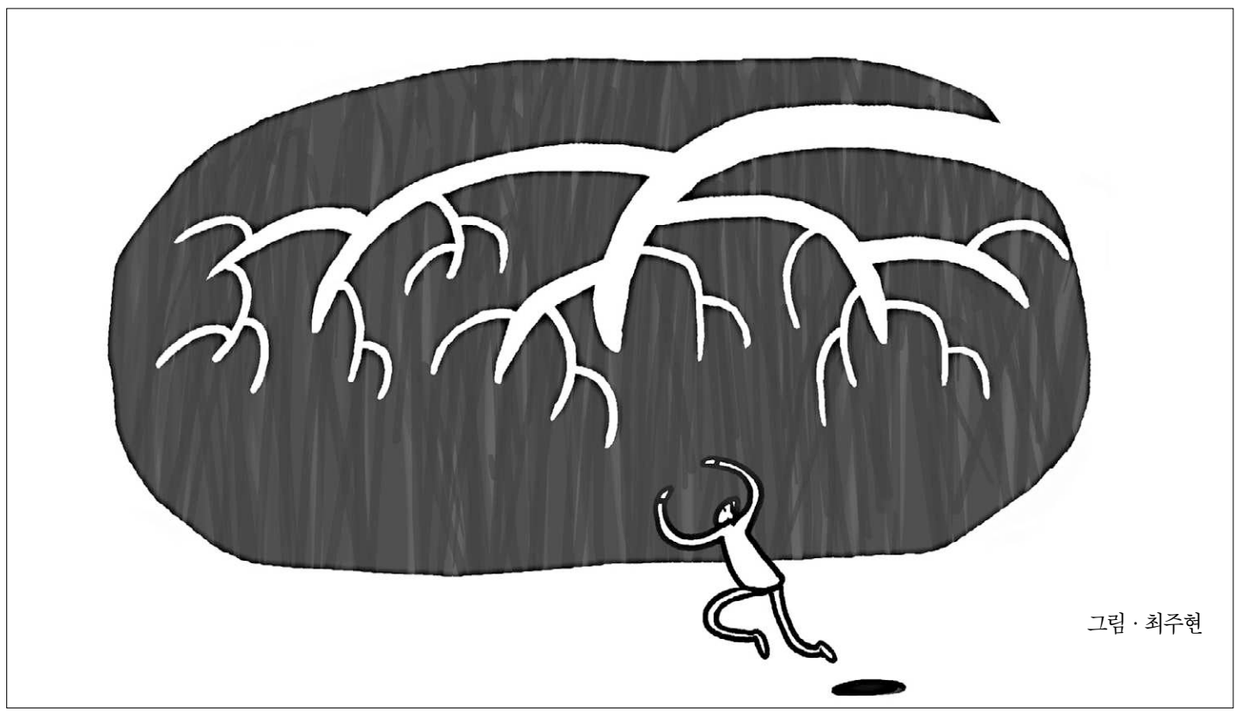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5(여): 나았어요, 예. 하하, 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 나았어요. 발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스님한테 참, 이 감사한 말씀을 진작 올려야 되는데 못나가지고 이 장내를 나오기가 그렇게 뭐해서 참 오늘은 아주 진짜 진짜 주인공한테 맡기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래서 그 원리가, 내 자불 주인공에다 맡기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 대뇌로 올라가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내면 속의 생명들이 작용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악조건이라도 다 작용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 아마 안되나 봐요. 하하하, 하여튼 편안하게 사십시오.

질문자5(여): 스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손녀가 지금 세 살 먹었는데 어째 엄마 아빠 소리만 부르지 말을 못합니다. 스님, 어째서 그런답니까? 말을 못하니까 엄마 아빠도 마음이 조금 불안해해서 아들 며느리한테도 이 공부를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얼른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로서는 주인공한테 맡기고 '주인공, 네가 이끌어. 하여튼 우리 아들 며느리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고 여하튼 이끌어. 이공부 좀 하게 이끌어.' 그러고 지금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그렇게 애기가 세 살 먹었어도 말을 못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스님,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큰스님: 하하하. 아니, 참 보살님이 대견합니다. 둘 아닌 도리를 말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없어질지언정 그 둘 아닌 차원이야 어찌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질문자5(여):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 어린애 말 못하는 것은 열심히 둘 아니게 관하시고 또 저희 엄마 아빠도 거기에 똑같은 인과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관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해서 차차 말을 하게끔 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질문자5(여):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6(여):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 법어집을 공부한 지가, 얼추 십 년 다 돼 갑니다. 처음에 한 십 년은 천지도 모르고 기복적으로 이렇게 참, 뭣도 모르고 하다가 법화경에서 처음에 이제 일불심 도리를 알아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100%로 안 풀리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큰스님의 법어집이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걸 지금 공부한 지가 한 십여 년 다 돼 갑니다.

그러나 제가 부산으로 나주로 지금 용인에까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잠깐 선원에 다녔습니다. 다른 절에 다니면서 잠깐 한 번씩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만 다니려고 원을 세웠는데도, 또 어떻게 아들하고 인연이 된 스님이 계시고 해서 서울에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작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큰스님 법어집을 진짜 세 번 네 번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하나를 다 꿸 정도로 그렇게 속속들이 너무나 멋있게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여기에 잘 안 와지는 것도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은 오는데 오늘 꼭 여기 나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계십니다. 영국인 시아도씨라고 우리 아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오신 지가 한 이십여 년 되셨는데 고향에서는 안 살고 여기서 사십니다, 사업상도 그렇고요. 그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폐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들보고 "오늘 좀 모시고 오너라." 하면서 큰스님 법회 있으니까 우리 가서 한번, 설령 몸을 바꾸더라도 진짜 큰스님의 큰 뜻을 알고 가셔야만이 앞으로 또 다른 몸 받지 않고 잘 저거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아들하고 저분이 뒤에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참 주제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일러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이 말이 통하고 아들도 불법을 잘하고는 있으나 저도 바쁘고 또 100% 믿는 그런 처지는 못되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모시고 나왔는데 큰스님, 불쌍히 여기셔서 한마음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 말 하려고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리고 큰스님,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정말로 보살행을 하고 싶은데 그게 몰락 녹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좀 섭한 소리를 누가 하면, 많이 섭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제가 빨리 웃으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나가면서도 너무 섭섭할 때는 그것이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몰락 녹이고 싶은데 그게 참 입맛대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스님: 당신 공부하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하하하. 폐암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가 모든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저 나무 싹이 자기 뿌리 믿듯이, 붙어 있는 거니까 진짜로 믿고 거기를 관하면 항시 먹는 거나 지금 보호해주는 사람이나 삼합이 다 일치되고 또 이 폐가 그렇다고 관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뇌로 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그러면 폐의 소임을 맡은 그 직원들이 다 작용해 주고 또 간의 소임맡은 직원들이 또 간에서 작용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고 뭐고 하나도 붙지 않죠. 거기는 직접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찾고 발견할 게 없는 거거든요, 자기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마음이 항상 바깥으로 떠돌거든요. 갔다가

☞26면으로 계속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임원공고

종 정 정화 총무원장 혜 봉

원로원장 구담 원로위원 덕운
교육부원장 월암 사정원장 법안 비구니원장 아산 비구니위원 자인
총무부장 법륜 문화부장 근홍 사회부장 혜통 규정부장 호산
포교부장 법보 홍보부장 능현 감찰부장 봉정 호법부장 혜원
재무부장 법련
문화국장 법봉 호법국장 현오 감찰국장 벽송 포교국장 원공
홍보국장 정오 기획국장 도경 교임단장 도견
제10교구종무원장 해광 제6교구동부종무원장 운오 제3교구종무원장 상원
제28교구종무원장 지광 제26교구종무원장 묘진 제13교구종무원장 지광
제6교구서부종무원장 지웅
종 도 혜원 선허 법산 적광 보현 명광 법광 해담 도광
포교원 인덕화 연화행 혜명심 교임단장포교원 대법행
법사
보광 향원 자비행 보광 염상 도일 대운 정법 능오 성문 백상 백연화

종도일동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buddhanews.com

안으로 자기 뿌리를 진실로 믿어보세요

☞25면에서 계속

나왔다가 갔다가 나왔다가 이러기만 해요. 그러니 글쎄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을 해드려도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질문들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저렇게 되는 거 하여튼 질문을 하셔야 그 뜻이 깊어져서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걱정없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말이 간단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마음을 태평하고 지혜롭게, 그냥 한 철 사는데 용렬하게 살지 말자 하고 그렇게 넓게 산다면 병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바득바득 쥐고 애를 쓰기 때문에 몸 망가지죠? 몸 망가지니 그 바등바등한 것도 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축나고 모든 일이 악화가 되고 선한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체 만법을 다, 이 마음 하나만 뿌리와 싹과 동일하게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간다면, 이탈되지 않고 잘 굴러간다면 되는 거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는 거, 또 부처님, 역대 조사들, 일체제불이 다 한마음에 접견이 되니까요.

질문자6(여): 한 3년이라도, 저분이 다만 3년내지 5년이라도 좀더 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원을 가지고 큰스님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

큰스님: 그렇게 해보세요. 하하하.

질문자6(여): 예, 그렇게 하고… 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일러주셨고 또 진리가 그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짜로 아리송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진짜로 하셔야 되는 거죠. 진실하게 말입니다. 잘만 하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질문자7(여):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선법가를 부를 때 '스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저는 지금 나이는 스물아홉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게 '결혼해서 사는 그런 것보다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불교 책을 알게 돼서 '가장 멋있는 인간으로서 살려면 가장 멋있는 것이 출가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런 원을 세우고 스물한 살 때쯤 잠깐 출가해서 살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다시 교회를 한 이 년 정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인연이 되어서 선원을 알게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전에는 항상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너무 사량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요전이나 그런 걸 읽고 관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음속으로 관하는 그런 공부가 잘 안되고 마음속에 갈등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출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항상 갈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괴롭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요.

큰스님: 공부는 출가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걸 떠나서 공부하는 거야. 출가를 한다 하는 거는 가정을 다 버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출가를 하는 것은 가정을 버려야 하고 형제들 부모들 애착을 다 버려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초로 해서 안에 들어와서는 나도 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한 철 살다 가는 건 다 마찬가진데 스님네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생사윤회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죽고 사는 데만 걸리지 않는다면, 이런 거 있지.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지? 안 그래요?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 그런데 살아나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갈 자리도 없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편리하게 생사윤회를 활랑 다 치워 버렸다 이거야. 묻지도 않는 얘기도 다 해주잖어, 내가? 하하하.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기보다도 그것이 다 그냥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는데, 세상이 여러 가지로 또 공해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오기는 어디로 왔으며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이 있느냐 이 소리야. 그 뜻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한 철 나는 데에 사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래서 때로는 더 얽매어 놓는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도 이 도리를 공부를 열심히 하면 펼쳐지고, 이러는 것과 같은 거야.

질문자8(여): 스님, 저는 딸이 7개월 만에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의 딸 좀 어떻게….

큰스님: 우는 힘으로 말씀하세요.

질문자8(여): 눈물이 나와서 목이 맵니다. 저는 선원에 나온 지 얼마 안됩니다. 책을 보니 많이 공부 안 해도 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7개월 만에 뇌성마비를 앓아가지고 아무 철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스님: 자주 오세요, 다 나을 수 있어요.

질문자8(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옛날에 원주에 있을 때에 그, 무슨 병원인가 이젠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 병원에 뇌성마비로 애들이 그냥 비비 꼬여서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일러줬어요. 병원에들 드러누웠는데 우리 손주를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그러곤 가서 관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애는 사흘 만에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다녀서 가니까 밥도 못 먹던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어느만큼 믿었기에, 둘 아니게 믿었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질문자9(여):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절에 공부하러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되고 아직 초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출가한 딸이 서른 세 살인데 한 3년 전에 위 수술을 했는데 그 병이 지금까지 안 나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하는 말이 "어머니, 저같이 이렇게 아픈 친구 어머니가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어려움이 다 나았다." 고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제 마지막 소원인데 대행 스님께 한번 가서 어머니가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살든지 죽든지 이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오늘 풀게 되고 생각지도 않게 큰스님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안됐지만 들어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애기한테 용기와 힘을 좀 주십시오.

큰스님: 이 부처님의 도리와 진리를 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이 공부를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성불이라고 할까 견성이라고 할까, 성불이라고 해두는 게 좋죠. 성불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얕은 물에 뜨는 배냐, 깊은 물에 뜨는 배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얕은 물에 뜨려면 자동적으로 작은 배가 되고 깊은 물에 뜨려면 큰 배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세상 살기가 유유하다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가 결정적으로 문제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들이 살고 있어도 우주 공간에도 다 우리들의 마음 근본이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멸정처 우주에서도 우리는 하고 있고 또는 은하계 생산처에서도 우리 하나하나가 살고 있고 또 북두칠성 거기에서도 우리는 생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라면 달과 별도 또 해도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 지금 살아나가는 이 진리 속에, 세상 속에 모두가 결부돼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 결부돼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 만약에 좁쌀 알갱이, 아니 티끌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티끌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아까 작은 배가 되고 큰 배가 되듯 이렇게 자유자재한다. 이런 법에 의해서 바로 티끌 하나에도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와 더불어 우리 세상도 같이 더불어 하고 있다. 모든 게 이름해서 이름이 주어지는 거고 그렇지, 보살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름으로써 주어진 거지 진짜 실천은 함이 없이 하는 거죠. 함이 없이 할 줄 아니까 보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죠. 이름이 주어진 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마음 속에서 하는 겁니다. 깊은 마음 속에서 말입니다.

> 마음을 태평하고 지혜롭게
> 그냥 한 철 사는 데 용렬하게 살지 말자 하고
> 그렇게 넓게 산다면 병도 안 걸려요.

이런 게 있죠. 큰 돌이 있거나 그 돌 밑에 소나무가 있거나 꽃이 있거나 이래도, 그렇게 깊이 있어도 '아, 넌 참 교묘하게 뿌리를 꼬아서 올라갔구나. 아유 참 얼마나 꼬아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릴 수도 없게 그냥 돌 옆을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껄껄 웃고 대화를 하는 거죠.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때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보게도 되고 때로는 하게도 되고 이렇게 만나게도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심심할 게 없죠. 그래서 어디를 가자 그래도 심심할 게 없어서 그냥 때로는 지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나가자고 그러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모두 삶의 자유니까요.

내가 때로는 말을 잘못하더라도 믿는 거는 진짜로 믿고 하세요. 다 실천적인 얘기지 거짓이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내가 함이 없었기 때문에 실천이란 얘깁니다. 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지장보살이 문고리를 잡고선 아무리 다 들여보내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해도 그치질 않아서 문고릴 잡고선 영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배워서 자기도 모르게 실천을 옮기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온 분들, 아파서, 처음에는 죄 그래서 모두 오는 분들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가지고, 즉 믿게 되는 거죠. 자기 주인공을 믿게 되는 거죠. 자기 주인공을 믿으니까 그렇게 낫더라. 그러니까 뭐든지 주인공에만 일임한다면 다 나을 수 있겠구나. 다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업보나 영계성, 유전성 뭐 인과성, 모두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없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는 데 겁내지 말고 굶어 죽을까봐도 겁내지 말고 잘살지 못할까봐 겁내지도 말고 우리는 한 철 단생에 이 도리를 다 무찌르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을 얻지 못하고 세세생생을 이렇게 돌아야 하니까요. 때로는 하천세계에 짐승으로도 모습을 갖게 되고, 여자로도 모습을 갖게 되고 남자로도 모습을 갖게 되고 상세계로는 참, 법신으로서 보살로서 부처로서 이렇게 등등 차원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세생생을 끄달리지 않아도 좋고 끝간 데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한 철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세생생을 좌우하니까요. 그러니까 입산해서 하는 사람들은 속가에서 사는 데의 그 얽히고설킨 문제가 다 없으니까 좀 낫죠. 공부하기가 월등 30%는, 아마 해온 거죠.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부처도 되시고, 부처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름이 부처가 아니니까요. 악과 선을 흡수해서 둘 아니게 응용한다면 그것이 평등공법이요, 그 평등공법에서 천차만별로 나가는 갈래갈래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니까요, 보배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만 할까요? 누가 한 것도 아니지만요. (대중 박수) (법상 앞으로 모시러 나온 스님을 향해) 뜸을 들였더니 어떠냐, 좀. 밥이 끓자마자 금방 일어서면 뜸이 안 들잖어. 허허.

사회자: 큰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이 감사함을 보답키 위해서 열심히 정진합시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11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품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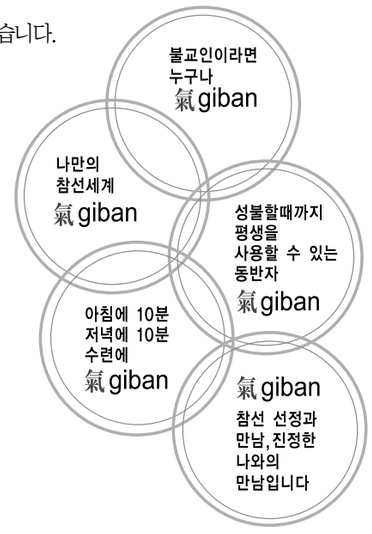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 의 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박지숙
한양방의료센타 'salm' 마인드힐링 연구소장

수능 앞두고 마음 다스리기

요새 찾아오는 환자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케이스는 바로 수능을 앞두고 불안 초조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는 수험생들이다. 어린 학생들이 삶이 버거워 가녀린 몸들을 떨며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자면 정말 난 어떻게 저 시절을 견뎠을까 하는 아득함과 남의 일 같지 않은 가슴 찡함이 동시에 밀려온다.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학생들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거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된다. 별거 아닌 일에 식구들에게 울고불고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행불행의 징조를 갖다 붙이며, 육체적으로도 온몸은 종합병원이 되어 간다. 비염과 두통은 기본이거니와 잠이 잘 안온다,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다. 그 증세도 가지각색이다. 이렇듯 정신적 육체적으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병명과 상태들이 나타나지만 표면적인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는 시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다. 즉 무지하기 때문에 모든 고(苦)가 생기는 이치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에 최선을 다하여 다들 열심히 노력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시험도 망치면 난 끝장이야" 등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와 사고가 작용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최대한 신나고 행복에 겨워 활짝 웃고 있는 나의 얼굴을 사진을 찍듯 떠올린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때의 가슴 벅차고 환호하는 기분과 분위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실제로 일어난 듯 충분히 느끼고 경험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나의 몸은 뇌에 인식해 놓은데로 이루어지기 위해 저절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 방법은 이메지네이션 떼라피의 일종인데 연습을 할 때는 멀쩡하게 잘 하다가 시합만 나가면 망치는 운동선수들이나 수험생들에게서 임상적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했다. 나의 몸은 내 마음에서 그리고 만드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안될 것이다', '실패', '패배' 등을 떠올리면 나에게 돌아오는 건 불안과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그러나 반대로 '잘 될 것이다', '성공'과 '즐거움'을 떠올리면 나에게는 반드시 행복한 상황과 건강한 성취의 에너지가 끌어당겨지게 되어있다.

두 번째는 수험생도 수험생이지만 아이들의 가장 측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수험생들의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게 심각하다. 상담을 받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 부모도 함께 치유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엄마, 아빠가 흔들리면 아이들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망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신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의 부모님께도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 전해드리고 싶다.

"평상무사시도(平常無事是道)"라 했다. 승부나 시험을 맞이하여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평소에 늘 그랬듯이 담담히 대하는 마음이 최대의 관건이다. 갑자기 더 오바해서 잘 하려고 하거나 그렇다고 일부러 무관심한 척 할 필요도 없이 주어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도(道), 성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0월의 테마-시간

시간… 지혜 · 자비의 날개를 달고

역사이래로 많은 철학자들이 시간에 대한 고찰을 해왔다. 그 가운데 과정철학자들은 시간을 연속적인 것으로서 비합리적인 직관에 의해 이해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거는 불변하고 미래는 열려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시간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미래도 역시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자의 주장이 맞다. 과거를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연기법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지혜와 자비이다.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부처님께 달려 왔다. 그녀의 품안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아들이 축 늘어진 채로 안겨 있었다. 여인은 부처님께 아들을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부처님은 그녀의 절박한 소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단 그전에 여인이 해내야 하는 숙제를 주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는 것이었다. 잔뜩 긴장하고 있던 여인은 예상 밖의 쉬운 숙제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마을을 향해 내달았다. 하지만 여인은 단 한 개도 구하지 못한 채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절망만 안고 되돌아 왔을까? 아니다. 겨자씨를 얻기 위해 온종일 이집 저집 뛰어다니는 동안 어느 순간 사별이 자신만이 겪는 고통이 아님을 알았다. 시간 덕분이었다. 그때 비로소 부처님은 무상법문을 설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은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잡비유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백미는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초월적인 힘에 의존한다거나 신통력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그것은 시간의 묘미를 이용하는 것이다. 외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여인에게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려준들 그 말이 들리겠는가!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아들을 살릴 수는 없다. 그런데 여인은 아들이 살아나야 끔찍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두 가지 명제는 절대로 합치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딜레마를 부처님은 이렇게 해결하셨다. 즉 시간 위에 당신의 지혜와 자비의 양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죽은 이가 없는 집에서 겨자씨앗을 얻어오게 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씨앗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격앙되었던 여인의 슬픔이 차츰 진정이 될 것이라는 계산된 의도, 즉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인 무상법문으로 그녀의 모든 문제에 종지부를 찍도록 한 자비를 적용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시간이 더해짐으로써 고통이 해결된 것이다. 세상이 어수선하다. 지혜와 자비의 양 날개를 단 시간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면 세상이 좀 더 평온해 질것 같은데 박복중생들이 판을 치는 이 땅에 그런 시간이 주어질까. 부디 그렇게 되길 바란다.

혜정 스님
의정부 광동고 교법사



社說

자승스님 체제의 조계종에 '기대'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취임식을 봉행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불교중흥을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체제의 슬로건으로 내 걸었다.

소통은 우리 시대의 공동 화두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소통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기관과 개인 상하관계 지역과 계층 등 수많은 단위들이 서로 부딪히고 관계를 맺으며 유기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실상이다. 종교계에서의 소통도 사회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현대사회의 개방성은 종교계의 권위와 폐쇄적 분위기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출가와 재가, 중앙과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자승 스님 체제가 소통을 중요한 종책 과제로 삼은 것은 불교계의 시대적 변화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소통의 원활한 흐름이야말로 종단 화합의 기본이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 있어 소통은 화합과 별개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 상하좌우가 원활하게 소통된다면 이미 화합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겠는가.

불교중흥이라는 과제는 사실 매우 포괄적이다. 자칫 구호에 그치기 쉬운 테마이기도 하다. 보다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허해 지기 십상이다. 소통의 구조를 개선하고 화합의 분위기를 구현하는 목적이 바로 불교중흥에 있다고 이해하고 싶다. 정말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길 바란다. 불교중흥은 큰 목적인만큼 작은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수험생 위한 템플스테이 다양해야

신종 플루 공포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사찰에서 수능기도를 봉행하고 수험생을 둔 가정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서 수능은 참으로 묘한 경계다. 수능을 마치고 나면 대학 지원과 면접 등으로 다시 분주해 지지만 입시의 정점은 아무래도 수능이라 할 것이다.

사찰은 수능 기도를 마친 것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수능 이후에도 수험생들이 심리적 안정과 희망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포교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기이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사회인이 되는 수험생들에게 불교를 체험 시키고 인식시키는 일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능 이전에는 종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여유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포교를 포기하는 것이다. 요즘은 포교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을 위한 포교대안은 그리 다양하지 않은 듯하다. 수험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인생 설계에 불교라는 아이콘을 주입시키는데 종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에서는 반드시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사찰 간 정보교류와 프로그램 공유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불안과 방황의 시기에 안정과 희망을 주는 일이야 말로 배고프고 목마른 이에게 밥과 물을 주는 것이다.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템플스테이를 기대한다.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기도성지 황등산
천 문 사

마애약사여래불점안 대법회 및 만등불사



"앞으로는 호거산 운문사요, 뒤로는 가지산 석남사 그리고 그 산등성을 구비 구비 넘어가면 황등산 천문사가 자리하고 있다.
무공 산승이 직지사에서 출발하여 태백산 줄기를 타고 남쪽 부산의 금정산까지 수행 만행 중에 "성지에 불당을 지어 많은 중생을 제도하라"는 선몽을 받고 이곳 나선폭포에 초막을 짓고 [선불도량을 일으켜 많은 중생을 제도하겠다] 는 원을 세우며 기도하던 중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문수보살이 하강하는 꿈을 꾸고 [천문사 天門寺]라 했다"











봉 행

마애약사여래불 점안 대법회 및 만등불사

■ 일 시 : 불기 2553년 양력 11월 29일(일요일) 오전 10시
■ 증명법사 : 고 산대종사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회 주 : 현 관
■ 주 지 : 무 공
■ 병 법 : 근 파
■ 송 주 : 석 봉, 선 파, 지 홍, 석 경
■ 신도회장 : 김중곤 거사
■ 총 무 : 박 불도화 보살

대한불교조계종 황등산 천문사 전화 054)373-8932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삼계) 51-1번지